



2025학년도 한신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2025. 3. 31.

한신대학교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http://www.hs.ac.kr> | <http://ent.hs.ac.kr>

TEL : (031) 379-0104 / FAX : 372-6101

목 차

I. 선행학습 영향평가 개요	3
1. 대학별고사 실시 현황	3
2. 전형 및 모집계열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	3
II.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5
1.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련 대학의 자체 규정	5
2.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6
3. 대학별고사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절차	6
III. 대학별고사 준비 및 시행 과정 분석	7
1. 논술고사	7
가. 출제 전	7
나. 출제 과정	10
다. 출제 후	10
2. 면접고사	15
IV. 문항 분석 및 평가	20
1. 문항별 총괄표	20
2. 대학 자체 설문 분석 결과	22
V. 차년도 입학전형 반영 및 개선 계획	42
VI. 부록	43
1. 2025학년도 논술문제	43
2. 2025학년도 면접문제	70
3. 2025학년도 문항카드	72
4. 2025학년도 선행학습영향평가 신입생 설문지	150
5. 2025학년도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검토의견서	155

I

선행학습 영향평가 개요

1. 대학별고사 실시 현황

구분	입학전형	모집계열(단위)	대학별고사 실시 여부 (○,X)	대학별고사 유형					교과 교육과정 관련 여부 (○,X)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기타	
수시	참인재	인문/자연계열	○		○				X
수시	논술	인문/자연계열	○	○					○
수시	체육실기	특수체육학	○			○			X
정시	일반학생	특수체육학	○			○			X
수시	학생부우수자	인문/자연계열	X						
수시	학교장추천	인문/자연계열	X						
수시	사회배려자	인문/자연계열	X						
수시	고른기회	인문/자연계열	X						
수시	기회균형선발(정원외)	인문/자연계열	X						
수시	농어촌학생(정원외)	인문/자연계열	X						
수시	특성학교교졸업자(정원외)	인문/자연계열	X						
정시	일반학생	인문/자연계열	X						
정시	기회균형선발(정원외)	인문/자연계열	X						
정시	농어촌학생(정원외)	인문/자연계열	X						
정시	특성학교교졸업자(정원외)	인문/자연계열	X						

2. 전형 및 모집계열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

구분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법령 이행	교칙	선행학습 영향평가 및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관련 교칙이 있는가?	○
	위원회 구성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에 현직 고등학교 교원이 참여하였는가?	○
	결과 공개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는가? (https://ent.hs.ac.kr / 한신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 '입학도우미' 메뉴 > '공지사항' 메뉴)	○
영향평가 시행 범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모든 유형의 입학전형에 대하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자체평가		대학별고사 출제·검토 과정 참여자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는가?	○
결과 분석	분석 범위	교과 지식에 관련된 모든 문항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충실히 하였는가?	○
	작성의 충실성	교과 교육과정 관련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문항카드 등 양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	○
	현황표	문항별 적용 교과 현황표를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	○

- [표] 전형 및 모집계열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

구분	입학전형	모집계열(단위)	대학별고사 실시 여부 (○, X)	대학별고사 유형					교과 교육과정 관련 여부 (○, X)	영향평가 실시 결과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 고사	실기·실형 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기타		
수시	참인재	인문/자연계열	○		○				X	준수
수시	논술	인문/자연계열	○	○					○	준수
수시	체육실기	특수체육학	○			○			X	
정시	일반학생	특수체육학	○			○			X	
수시	학생부우수자	인문/자연계열	X							
수시	학교장추천	인문/자연계열	X							
수시	사회배려자	인문/자연계열	X							
수시	고른기회	인문/자연계열	X							
수시	기회균형선발	인문/자연계열	X							
수시	농어촌학생	인문/자연계열	X							
수시	특성화고교졸업자	인문/자연계열	X							
정시	일반학생	인문/자연계열	X							
정시	기회균형선발	인문/자연계열	X							
정시	농어촌학생	인문/자연계열	X							
정시	특성화고교졸업자	인문/자연계열	X							

- [표] 대학별고사에 사용된 문항별 적용 교과 현황

시험유형	입학 전형	모집 계열 (단위)	입학 모집요강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계열 및 교과								
						인문·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국어	사회	도덕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논술 등 필답고사	논술	인문계열	문학, 독서, 수학Ⅰ, 수학Ⅱ	1교시	1~9	○								
		자연계열	문학, 독서, 수학Ⅰ, 수학Ⅱ	2교시	1~6	○								
		인문계열	문학, 독서, 수학Ⅰ, 수학Ⅱ	1교시	10~15				○					
		자연계열	문학, 독서, 수학Ⅰ, 수학Ⅱ	2교시	7~15				○					

[첨부] 2025학년도 수시모집요강 제시 내용(p.35)

마. 논술고사 안내

1) 평가방법

구분	반영 비율	영역별 문항수		배점	고사시간	총점	답안지 형식
		국어	수학				
인문계열	60%	9	6	각 문항 8점	80분	120점+480점(기본점수) = 총 600점	노트 형식의 답안지 작성
자연계열	60%	6	9				

2) 출제범위 및 평가기준

구분	출제범위	평가기준
국어	문학, 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표현 문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충실한 서술
수학	수학Ⅰ, 수학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에 필요한 개념과 원리에 대한 정확한 서술 정확한 용어, 기호를 사용한 표현

1.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련 대학의 자체 규정 : 2015.1.16 규정 신설, 2022.3.21 개정 규정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방법·절차에 대한 학교 규칙을 규정했으며, 규정된 사항 제시함(한신대학교 규정_제5편 위원회_25.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학입학전형 자체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신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자체영향평가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체영향평가의 정의 및 적용범위) "자체영향평가"란 법 제10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점검·분석·영향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단, 학교교육 과정상의 체육·예술 교과(군) 실기고사는 예외(동법 제16조제3항의 적용배제)로 한다.

제 2 장 선행학습 영향 평가위원회

제3조(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설치) 선행학습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과 대학별고사의 개선을 위하여 선행학습 영향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입학·홍보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21.04.27> <개정 2022.03.21>

제5조(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입시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공시 마감기한까지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심의한다.

1.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위한 본 대학의 노력에 관한 사항
3.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분석에 관한 사항
4. 향후 대입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업무관리) 위원회와 관련된 업무는 입학·홍보본부 입학인재발굴팀에서 담당한다.<개정 2021.04.27> <개정 2022.03.21>

제9조(수당 등 지급)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료, 연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선행학습 영향평가

제10조(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① 자체영향평가는 해당 대학별고사가 종료된 이후에 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모집시기(수시 및 정시) 및 모집학년도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영향평가 결과의 공시 및 대학입학전형의 반영) 입학·홍보본부에서는 영향평가 결과의 내용을 해당 입시년도 3월 31일까지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03.21>

제12조(운영지침)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제1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4.27)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04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제4조 ①항, 제8조 개정. 직제개편으로 인한 명칭 개정)

부 칙(2022.03.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2년 02월 15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제4조 ①항, 제8조, 제11조 개정. 직제개편으로 인한 명칭 개정)

2.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위한 조직은 내부 4명, 외부 3명으로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함
 - ▲ 기능 : 우리대학이 효과적으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요인을 억제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대학의 준수 상황을 점검하는 기능을 함
 - ▲ 역할 : 대학별 고사를 시행함에 있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 운영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선행학습 유발요인은 없는지 평가하는 역할을 함
 - ▲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구성

구분	성명	소속	직위	참여여부	
위원장	지○○	입학·홍보본부	입학홍보본부장	○	
내부위원 (2명)	유○○	한국어문학	교수(논술고사 출제위원장)	○	
	윤○○	금융공학	교수(논술고사 출제위원장)	○	
외부위원 (3명)	외부입시전문가	유○○	1318대학진학연구소	소장	○
	고등학교 교사	한○○	오산고등학교(일반고)	현직 고교 교사 (인문계열)	○
	고등학교 교사	최○○	장안고등학교(일반고)	현직 고교 교사 (자연계열)	○
간사	류○○	입학인재발굴팀	입학인재발굴팀장	○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의2에 의거하여 반드시 외부위원 중 1명 이상을 현직 고등학교 교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 외부위원 구성 비율

총 외부위원 수	현직 고교 교사(일반고)	외부 입시전문가
3명	2명(66.6%)	1명(33.3%)

3. 대학별고사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절차

가. 대학별 고사(면접) 일정

구분	전형명	고사일
면접고사	참인재전형	2024. 10. 05(토)
논술고사	논술전형	2024. 12. 0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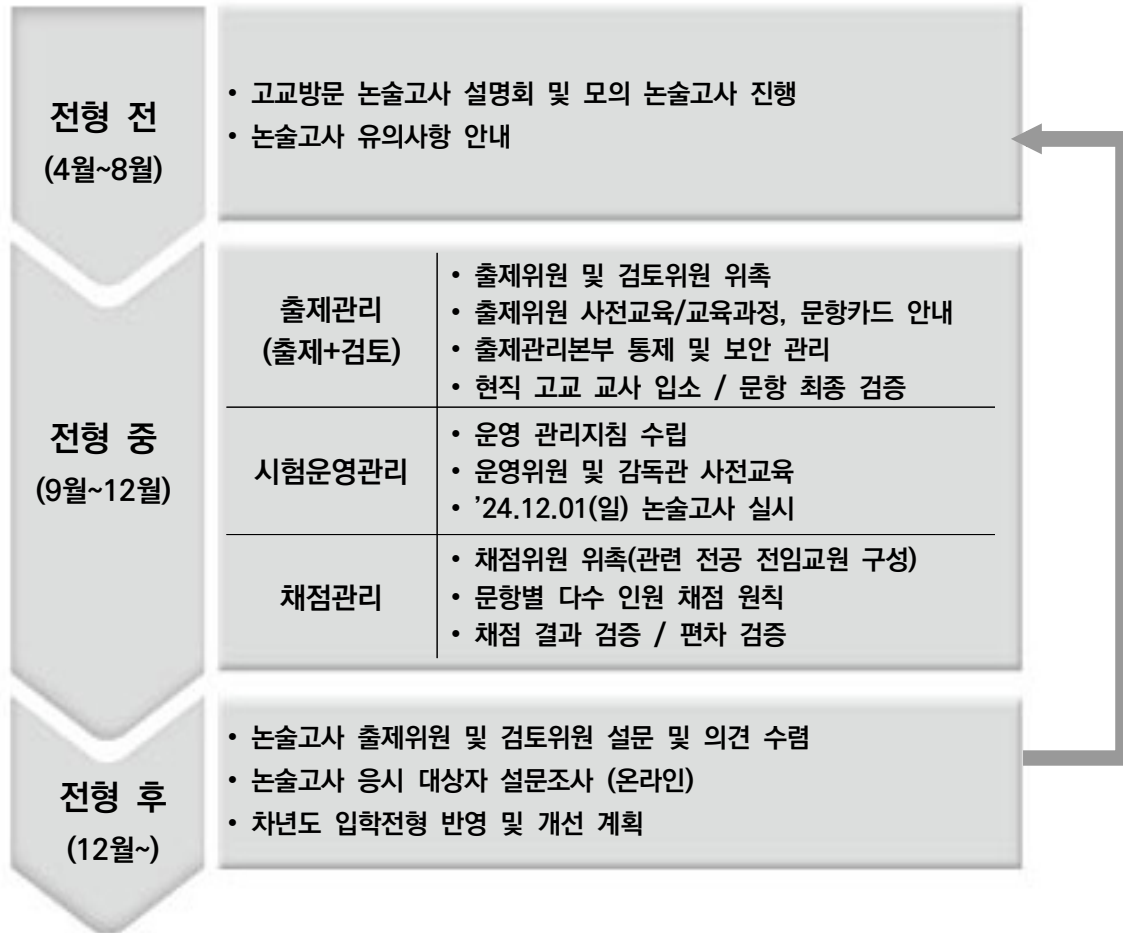
나.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 1) 내부위원(고사 시행 전~고사 시행 후) 사전 검증
- 2) 외부위원(고사 시행 후) 검토의견 수렴
- 3) 설문조사 시행
 - 조사대상 : 대학별고사(면접·논술) 실시전형 합격자 (본등록대상자 기준)
 - 조사기간 :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온라인 문서등록) 후 (2025. 01. 06(월) ~ 01. 17(금))
- 4)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분석 및 향후 대입전형 반영계획수립 : 2025. 03. 04(화) ~ 14(금)
- 5)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2025. 03. 04(화) ~ 21(금)
- 6)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최종점검 회의 : 2025. 03. 21(금)
- 7)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 공개
 - 공개일자 : 2025. 03. 28(금)
 - 공개방법 : 한신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탑재 및 대학입학전형지원시스템(ASSIST) 등록

III 대학별고사 준비 및 시행 과정 분석

1. 논술고사

우리대학 2025학년도 논술고사의 운영은 아래의 절차에 준하여 진행되었으며, 논술고사가 전형 이전, 전형 과정, 전형 이후 모든 과정에 걸쳐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에 부합하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울임



[논술고사 운영 프로세스]

가. 출제 전

① 고교 교육과정 분석 (출제 전 고교 교육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

1) 2025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시행

- 2024년 4~9월 중 신청고교를 직접 방문하여 모의고사 실시
- 전형 전, 모의 논술고사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본 논술고사 출제 시 반영함
- 2025학년도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논술고사 출제방향을 안내하고 개인별 채점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수험생 스스로 논술고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입시부담 경감과 사교육 유발 억제에 기여하고, 2025학년도 논술고사의 방향과 난이도 측정에 활용하고자 함

2) 2025학년도 모의 논술고사 운영

- 2024년 5월~8월 중 신청 고교(전국)를 직접 방문하여 실질적인 전형 안내 및 모의 논술고사 진행

구분	건수	월	방문 고교명
모의 논술고사 (고교 방문)	5	5월	(3일)동탄고등학교 (10일)세교고등학교 (13일)이이고등학교 (14일)대화고등학교 (31일)용인고등학교
	5	6월	(5일)죽전고등학교 (11일)이산고등학교 (12일)효양고등학교 (14일)현암고등학교 (17일)강일고등학교
	7	7월	(5일)상원고등학교 (8일)성일고등학교 (12일)영복여자고등학교 (16일)권선고등학교 (16일)성남고등학교 (17일)보정고등학교 (18일)속지고등학교
	2	8월	(5일)대원여자고등학교 (22일)반송고등학교
계	19		고교 모의 논술고사 19회

② 출제 검토위원회에 대한 고교 교육과정 사전 연수

가) 고교 교육과정 준수를 위한 노력 : 본교는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을 준수하기 위해 2015개정 교육과정 속하는 국어, 수학 교과서와 EBS 수능 연계교재(수능특강, 수능완성)를 토대로 출제 전 구비하여 논술고사 출제 장소에 제공하였음

국어		수학	
교과서	EBS 수능연계교재	교과서	EBS 수능연계교재
문학 독서	수능특강 문학 수능특강 독서 수능완성 독서·문학·화법·과작문 (화법·과작문은 출제범위 제외)	수학 수학II	수능특강 수학 수능특강 수학II 수능완성 수학·수학II·미적분 (미적분은 출제범위 제외)
각 3Set	각 3Set	각 3Set	각 3Set

※ 2025학년도 대학별 고사 적용 교육과정 안내

구분	교육과정 및 성취기준
국어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 과목명: '문학', '독서'
수학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 과목명: '수학 I', '수학 II'

▲ 2025학년도 신입학전형 수시모집 논술고사 문제 출제 방향
 (『2025학년도 논술고사 출제관리 지침서』 7~8page 내용)

1. 논술고사 시간 및 배점

▶ 전형요소별 배점

모집시기	전형명	모집단위	모집인원	전형방법
수시모집	논술	인문·자연계열	265명	학생부교과(40%) + 논술고사(60%) (일괄합산)

구분	반영비율	영역별 문항수		배점	고사시간	총점	답안지 형식
		국어	수학				
인문계열	60%	9	6	각 문항 8점	80분	120점+480점(기본점수) = 총 600점	노트 형식의 답안지 작성
자연계열	60%	6	9				

▶ 출제범위 및 평가기준

구분	출제범위	평가기준
국어	문학, 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표현 문항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충실한 서술
수학	수학 I, 수학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제에 필요한 개념과 원리에 대한 정확한 서술 정확한 용어, 기호를 사용한 표현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2. 문제 출제방향 및 영역

가. 출제방향(인문계열, 자연계열)

고교 교과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초계산능력 및 종합적 사고능력, 논리력, 이해력 등 수험생의 잠재된 학습 능력평가를 하고자 함.

나. 출제방법

- 1) 인문계열은 국어영역 9문항 + 수학영역 6문항, 자연계열은 국어영역 6문항 + 수학영역 9문항의 논술고사 문제를 80분 동안 답할 수 있게 출제한다..
- 2) 문제는 최근 출제되었던 논술고사 유형을 참고하여 가능한 한 출제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3) 문제는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에 의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이를 위반시 동법 제14조에 의거, 재정지원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
- 4) 지문이나 자료·도표 등을 제시할 수 있다.
- 5)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고등학교 내신성적 반영을 위한 시험과 서로 보완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출제하고, 동시에 고등학교 교육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도록 한다.
- 6) 출제는 인문 자연계열 고등학교 공통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답할 수 있는 난이도로 하되,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2015 교육과정)에 수록된 수준의 내용을 준거로** 친숙한 내용을 출제한다.
- 7) 문제가 너무 어렵거나 쉬울 경우 변별력이 낮아지므로 우리 대학을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비교적 중위권 능력자 집단임을 고려하여 기존 테스트 자료와 현장 간이 테스트자료를 통해 난이도를 확인·조정 후 **수험생이 쉽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중하”수준으로 출제한다.**

다. 출제영역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구분	과목
국어	문학, 독서
수학	수학 I, 수학 II

※ 과목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성취기준표 및 내용 체계는 별도 파일로 제공한다.

나. 출제 과정

① 출제·검토위원 중 고교 교원 참여비율

구분	총 인원	고교교원 참여인원	고교교원 참여비율
출제위원	6명	-	-
검토위원	2명	2명	100%
전체	8명	2명	25%

▲ 출제 및 문항 검토 과정에서 본교/타대학 교수, 현직 고교 교사 등 경험이 풍부한 교육과정 전문가 참여 대학 내의 논술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위원들을 중심으로 6명의 출제위원, 현직 고교 교사 검토위원 2명으로 출제 및 문항 검토를 수행함

▲ 2025학년도 논술고사 출제·검토위원 명단(출제본부 입소자)

전형 및 모집계열별 출제·검토위원		전체 위원	교수 위원	교사 위원 (일반고 교사위원)
논술전형 인문/자연계열	출제위원	6명	6명	-
	검토위원	2명	-	2명 (2명)

출제위원(국어) 유○○ 교수(한국어문학 교수, 전 논술고사 출제위원)
출제위원(국어) 김○○ 교수(한국어문학 교수)
출제위원(국어) 심○○ 교수(한신대학교 교수, 전 논술/적성고사 출제위원)
출제위원(수학) 윤○○ 교수(금융공학 교수, 전 수능출제위원, 전 논술/적성고사 출제본부장)
출제위원(수학) 유○○ 교수(빅데이터융합학 교수, 전 논술고사 출제위원)
출제위원(수학) 안○○ 교수(○○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 전 적성고사 출제위원)
검토위원(국어) 유○○ 교사(고교 현직교사)
검토위원(수학) 김○○ 교사(고교 현직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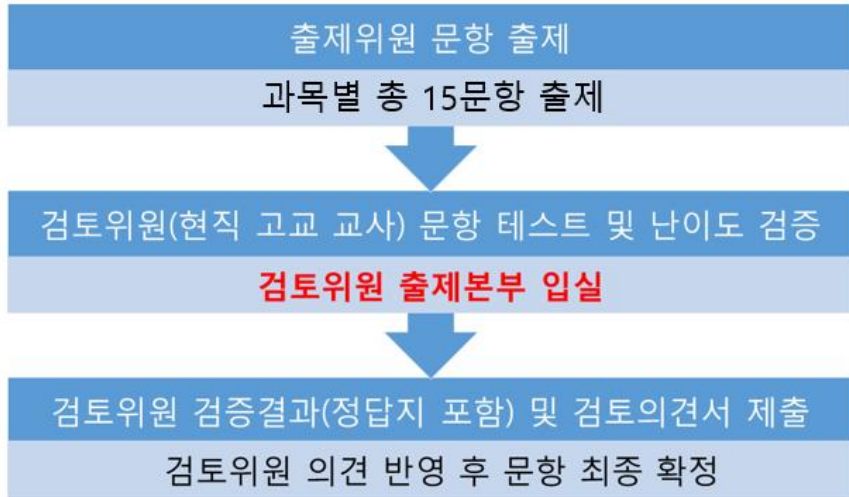
② 고교 교원의 출제검토과정에서의 권한 강화를 위한 조치

과목별(국어, 수학)별 현직 고교 교사가 출제본부에 직접 입실하여 출제 문항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하고, 난이도를 검증하여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를 철저히 파악함

다. 출제 후

① 출제 및 검토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 보완을 위한 개선 노력

- 가) 논술고사 출제문항을 현직 국어, 수학 담당교사에게 검증 의뢰하여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항의 전면적인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출제본부의 모범답안과 현직 고교 교사의 답안을 교차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음
- 나) 검토위원(고교 교사)을 대상으로 출제 내용의 문제점 보완을 위한 설문 및 의견 수렴 실시



과목	종합 의견 요약
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의 경우 인문, 사회, 예술, 과학의 다양한 영역의 글을 사용하고, 사실적 읽기, 비판적 읽기, 적용하며 읽기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두루 출제하고 있음. 특히 1교시는 인문, 사회, 예술 영역의 글, 2교시는 사회와 과학 영역의 글을 사용하여 응시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음. 도식화, 대비된 내용의 표로 전개 방식과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묻고 있으며, <보기>에 추가 내용을 제시해 제시문을 확장적으로 읽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묻고 있음. 이를 통해 볼 때 다양한 유형과 수준의 문항들로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생각함. • 문학의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친숙하게 다루는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문항들을 출제하고 있음. <보기>를 통해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과 작가의 특징을 제시해 줌으로써 응시자들의 감상을 도우면서도 다양한 맥락에 따른 이해를 측정하고 있음. 특히 1교시는 비슷한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와 소설을 묶어서 출제함으로써 두 작품을 엮어서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묻고 있음. 이를 통해 볼 때 감상적 읽기를 측정하기에 적절한 문항 구성이라고 생각함 • 제시된 시간 내에 읽을 수 있는 적절한 분량과 수준의 글을 활용하고 있으며, 성취 기준에 알맞게 문항을 구성하고 있음. 또한, 문항에서 글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방향을 안내하고 있고, 음절부터 어절까지 답안 작성을 위한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여 응시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음. 전체적으로 응시자들의 읽기 능력과 감상 능력을 평가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함.
수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별로 출제된 문항의 경우, EBS 교재를 바탕으로 수학 I 과 수학 II의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됨. 또한, 기본적인 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계산, 이해, 추론 등의 평가 기준에 맞게 구성되어 있으며, 지수와 로그의 단원부터 다항함수의 미분과 적분까지 단원별 문항의 수도 균등하게 출제됨 •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공교육을 충실히 학습한 학생이라면,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성취 수준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다고 보임.

논술고사 출제문제 검토위원 의견서(국어)

■ 문항별 검토결과

1교시			2교시		
번호	검토결과		번호	검토결과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여부	문항카드 작성의 적절성 여부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준수 여부	문항카드 작성의 적절성 여부
1	준수	적절함	1	준수	적절함
2	준수	적절함	2	준수	적절함
3	준수	적절함	3	준수	적절함
4	준수	적절함	4	준수	적절함
5	준수	적절함	5	준수	적절함
6	준수	적절함	6	준수	적절함
7	준수	적절함			
8	준수	적절함			
9	준수	적절함			

■ 종합의견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페이지를 추가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독서의 경우 인문, 사회, 예술, 과학의 다양한 영역의 글을 사용하고, 사실적 읽기, 비판적 읽기, 적용하며 읽기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을 두루 출제하고 있음. 특히 1교시는 인문, 사회, 예술 영역의 글, 2교시는 사회와 과학 영역의 글을 사용하여 응시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음. 도식화, 대비된 내용의 표로 전개 방식과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묻고 있으며, <보기>에 추가 내용을 제시해 제시문을 확장적으로 읽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묻고 있음. 이를 통해 볼 때 다양한 유형과 수준의 문항들로 적절하게 구성되었다고 생각함.

문학의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친숙하게 다루는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문항들을 출제하고 있음. <보기>를 통해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과 작가의 특징을 제시해 줌으로써 응시자들의 감상을 도우면서도 다양한 맥락에 따른 이해를 측정하고 있음. 특히 1교시는 비슷한 시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와 소설을 묶어서 출제함으로써 두 작품을 엮어서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묻고 있음. 이를 통해 볼 때 감상적 읽기를 측정하기에 적절한 적절한 문항 구성이라고 생각함.

제시된 시간 내에 읽을 수 있는 적절한 분량과 수준의 글을 활용하고 있으며, 성취 기준에 알맞게 문항을 구성하고 있음. 또한 문항에서 글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방향을 안내하고 있고, 음절부터 어절까지 답안 작성을 위한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여 응시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음. 전체적으로 응시자들의 읽기 능력과 감상 능력을 평가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함.

2024년 11월 30일

작성자 : 유○○ (서명)

논술고사 출제문제 검토위원 의견서(수학)

■ 문항별 검토결과

1교시			2교시		
번호	검토결과		번호	검토결과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 준수 여부	문항카드 작성의 적절성 여부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준수 여부	문항카드 작성의 적절성 여부
1	○	○	1	○	○
2	○	○	2	○	○
3	○	○	3	○	○
4	○	○	4	○	○
5	○	○	5	○	○
6	○	○	6	○	○
			7	○	○
			8	○	○
			9	○	○

■ 종합의견 [작성내용이 많은 경우 페이지를 추가해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계열별로 출제된 문항의 경우, EBS 교재를 바탕으로 수학 I 과 수학 II 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됨. 또한, 기본적인 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계산, 이해, 추론 등의 평가 기준에 맞게 구성되어 있으며, 지수와 로그의 단원부터 다항함수의 미분과 적분까지 단원별 문항의 수도 균등하게 출제됨.

특히,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공교육을 충실히 학습한 학생이라면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성취 수준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다고 보임.

2024년 11월 30일 작성자 : 김○○ (서명)

다) 출제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출제 내용의 문제점 보완을 위한 설문 및 의견 수렴 실시

국어 출제위원 의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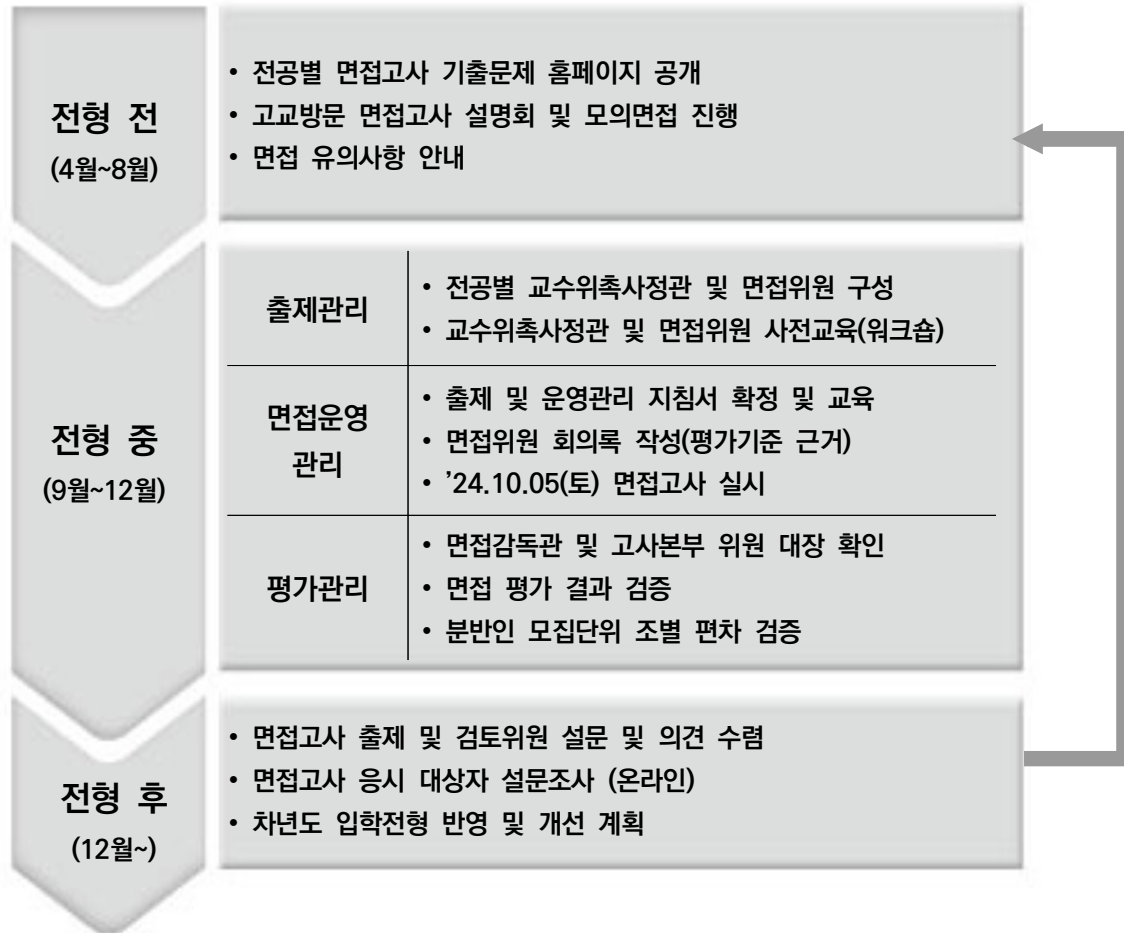
검토내용	조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항의 난이도는 평이한가? 2. 문항의 발문에 오류는 없는가? 3. 문항에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은 없는가? 4. 지문의 길이는 시험시간 동안 학생들이 소화하기에 적절한가? 5. 복수의 정답이 나올 가능성은 없는가? 6. 복수 정답의 배점은 어떻게 할 것인가? 	<p>출제위원 및 검토위원들과 좌측 기재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음</p> <p>윤독을 통해서 발문 및 맞춤법의 오류를 수정하였음</p> <p>복수의 정답을 예측하여 제시하고, 정답 인정, 부분 점수 인정 등의 기준을 마련하였음</p> <p>위의 검토를 통해서 전체적인 난이도를 '中級'으로 조정하였음</p>

수학 출제위원 의견서

검토내용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항의 난이도는 적절한가? ● 문항에 오류는 없는가? ● 문제의 풀이 시간은 적절한가? ● 다양한 풀이 방법은 없는가? ● 평가 기준은 적절한가? 	<p>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이 종합적으로 검토함</p> <p>문항의 오류를 찾기 위해 다양한 해법을 생각해 봄</p> <p>다양한 풀이 방법에 대한 채점 기준을 제시함</p> <p>전체적인 난이도를 전년도와 비슷하게 출제함</p>

2. 면접고사

우리대학 2025학년도 면접고사의 운영은 아래의 절차에 준하여 진행되었으며, 면접고사가 전형 이전, 전형 과정, 전형 이후 모든 과정에 걸쳐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및 수준에 부합하도록 철저한 노력을 기울임



[면접고사 운영 프로세스]

가. 전형 전

1) 면접 기출문제 등 면접고사 자료 홈페이지 안내

- 2025학년도 면접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면접고사 기출문제(최근 3개년)를 제공하여, 수험생 스스로 면접고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입시부담 경감과 사교육 유발 억제에 기여함
- 면접 기출문제를 포함한 대학별고사 분석자료(선행학습영향평가 자체평가 보고서) 전체를 연도별로 공개하여 대학별 고사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대학 제공 자료만으로도 충분히 입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함

모집요강	입시자료실	수시Q&A	지난 모집요강
------	--------------	-------	---------

입시자료실

한신대학교 수시모집 관련 자료 안내입니다.

전체 기출 Q 검색

6	[수시] 2024학년도 수시모집 참인재전형 면접 기출문제	🔗
	2024.05.30 • 조회수 2,064	
5	[수시] 2023학년도 수시모집 참인재 면접전형 면접 기출문제	🔗
	2023.03.03 • 조회수 2,444	
4	[수시] 2022학년도 수시모집 참인재교과면접전형 면접 기출문제	🔗
	2022.03.24 • 조회수 3,396	
3	[수시] 2022학년도 수시모집 참인재종합면접전형 면접 기출문제	🔗
	2022.03.24 • 조회수 3,081	
2	[수시] 2021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기출문제	🔗
	2021.07.17 • 조회수 4,980	

<면접 기출문제 공개>

전형계획	공지사항	면접·실기 가이드	입시자료 신청	성적산출	모의논술고사 설명회 신청	입학설명회
------	-------------	-----------	---------	------	------------------	-------

공지사항

한신대학교 입학홍보처 공지사항입니다.

전체 공통 수시 정시 편입학

전체 보고서 Q 검색

8	[공통] 2024학년도 한신대학교 선행학습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
	2024.03.28 • 조회수 958	
7	[공통] 2023학년도 한신대학교 선행학습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면접 기출문제 포함)	🔗
	2023.03.28 • 조회수 1,212	
6	[공통] 2022학년도 한신대학교 선행학습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면접 기출문제 포함)	🔗
	2022.03.30 • 조회수 1,252	
5	[공통] 2021학년도 한신대학교 선행학습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
	2021.03.31 • 조회수 1,906	

<선행학습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공개>

2) 2025학년도 고교방문 설명회 운영

- 2024년 4월~9월 중 신청 고교(전국)를 직접 방문하여 실질적인 전형 안내 및 면접 진행 절차 설명

구분	건수	월	방문 고교명
고교 입학설명회 (111)	11	4월	(12일)성안고등학교, 가좌고등학교, (15일)인천반도체고등학교, (16일)송산고등학교, (17일)고림고등학교, 군포중앙고등학교, (19일)송호고등학교, 안산강서고등학교, 원종고등학교, (24일)안산동산고등학교, (26일)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23	5월	(1일)부안여자고등학교, (2일)청운고등학교, (3일)가림고등학교, 이천양정여자고등학교, 고척고등학교, (9일)경화여자고등학교, (10일)나루고등학교, 신갈고등학교, (13일)대인고등학교, (14일)숙지고등학교, 배곧고등학교, (16일)정왕고등학교, (17일)광덕고등학교, (27일)부개여자고등학교, 수성고등학교, (28일)교동고등학교,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29일)신천고등학교, 매홀고등학교, 인천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 (31일)충훈고등학교, 처인고등학교, 일산국제컨벤션고등학교
	19	6월	(5일)당진고등학교, 문일여자고등학교, (7일)당곡고등학교, 보라고등학교, (10일)창의고등학교, (11일)덕이고등학교, (12일)세교고등학교, 영생고등학교, (13일)인제고등학교, 일신여자상업고등학교, (14일)금천고등학교, 운천고등학교, 서연고등학교, (17일)태전고등학교, (18일)미림여자고등학교, (19일)경북여자고등학교, 상동고등학교, 인하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26일)충남외국어고등학교
	27	7월	(2일)신일비즈니스고등학교, 천안월봉고등학교, (4일)부천공업고등학교, 천안쌍용고등학교, (5일)광문고등학교, (8일)양곡고등학교, 영락고등학교 (9일)수원철보고등학교, 서해고등학교, (10일)광성고등학교, 소사고등학교, 부광여자고등학교, (12일)광명고등학교, 인덕원고등학교, 인일여자고등학교, 곡정고등학교, (15일)원곡고등학교, 삼성고등학교, 학익고등학교, (16일)라온고등학교, (17일)부곡고등학교, 정현고등학교, 문일고등학교, (18일)조원고등학교, 관양고등학교, 도선고등학교, (22일)한강미디어고등학교
	28	8월	(7일)서인천고등학교, (13일)군포e비즈니스고등학교, (14일)양명고등학교, 광신고등학교, (16일)안화고등학교, 배화여자고등학교, 영등포고등학교, (19일)성일고등학교, 관악고등학교, 대영고등학교, (20일)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대일관광고등학교, (21일)김포외국어고등학교, 도농고등학교, (22일)근명고등학교, 인성여자고등학교, 광영고등학교, (23일)장안고등학교, 향남고등학교, 은행고등학교, (26일)경성고등학교, (27일)상현고등학교, (28일)동산고등학교, 이솔고등학교, 덕원여자고등학교, (30일)성문고등학교, 감일고등학교, 모락고등학교
	3	9월	(5일)성보고등학교, 위례고등학교, 흥덕고등학교
박람회 (26)	3	5월	(16일)단원고등학교, (17일)성포고등학교, (17일)다산고등학교
	4	6월	(9일)울산교육청박람회, (13일)동남고등학교, (15일)경기진협 진학교사 한마당, 인천시박람회
	9	7월	(13일)안산교육청박람회, (13~14일)수원교육청박람회, (15~16일)충북교육청박람회, (16~17일)충남교육청박람회, (19~20일)경기도교육청박람회, (19~20일)광주진로진학박람회, (20일)용인시박람회, 평택박람회, (25~27일)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코엑스)
	10	8월	(3일)평택시박람회, (10일)화성시박람회, (12일)오산고등학교, (17일)시흥시박람회, (17일)이천시박람회, (20일)고림고등학교, (21일)효양고등학교, (24일)의정부박람회, (31일)인천박람회, (31일)수원박람회
계	137	-	고교 입학설명회 111회 박람회 26회

3) 교수위측사정관 및 면접위원 교육 진행을 통한 전문성 강화

대상	교육명	참여율	교육 일시	참여 전형																							
교수위측사정관	사정관 역량 강화 온라인 교육(외부교육)	100%	2024. 07. 17(수) ~ 08. 19(월)	참인재전형																							
	▶ 2025학년도 교수위측사정관 온라인 교육 세부 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차시</th> <th>주제</th> <th>차시</th> <th>주제</th> </tr> </thead> <tbody> <tr> <td>1</td> <td>대입 정책의 이해: 2028 대입제도 개편안</td> <td>6</td> <td>일반고 운영 다양한 중점 과정 사례: SW중점</td> </tr> <tr> <td>2</td> <td>고교 교육과정의 이해: 2022 개정 교육과정</td> <td>7</td> <td>면접 역량 강화: 학교생활기록부 기반의 면접 문항 도출</td> </tr> <tr> <td>3</td> <td>일반고 운영 다양한 중점 과정 사례: 독일어 중점</td> <td>8</td> <td>미국의 대학입학제도 동향과 사례</td> </tr> <tr> <td>4</td> <td>일반고 운영 다양한 중점 과정 사례: 지속가능발전 융합중점과정</td> <td>9</td> <td>일본과 중국의 대학입학제도 동향과 사례</td> </tr> <tr> <td>5</td> <td>일반고 운영 다양한 중점 과정 사례: 과학중점</td> <td></td> <td></td> </tr> </tbody> </table>	차시	주제	차시	주제	1	대입 정책의 이해: 2028 대입제도 개편안	6	일반고 운영 다양한 중점 과정 사례: SW중점	2	고교 교육과정의 이해: 2022 개정 교육과정	7	면접 역량 강화: 학교생활기록부 기반의 면접 문항 도출	3	일반고 운영 다양한 중점 과정 사례: 독일어 중점	8	미국의 대학입학제도 동향과 사례	4	일반고 운영 다양한 중점 과정 사례: 지속가능발전 융합중점과정	9	일본과 중국의 대학입학제도 동향과 사례	5	일반고 운영 다양한 중점 과정 사례: 과학중점				
차시	주제	차시	주제																								
1	대입 정책의 이해: 2028 대입제도 개편안	6	일반고 운영 다양한 중점 과정 사례: SW중점																								
2	고교 교육과정의 이해: 2022 개정 교육과정	7	면접 역량 강화: 학교생활기록부 기반의 면접 문항 도출																								
3	일반고 운영 다양한 중점 과정 사례: 독일어 중점	8	미국의 대학입학제도 동향과 사례																								
4	일반고 운영 다양한 중점 과정 사례: 지속가능발전 융합중점과정	9	일본과 중국의 대학입학제도 동향과 사례																								
5	일반고 운영 다양한 중점 과정 사례: 과학중점																										
	사정관 워크숍(내부교육)	100%	2024. 10. 10(목) ~ 10. 11(금)	참인재전형																							
면접위원	면접위원 교육	100%	2024. 10. 05(토)	참인재전형																							



▲2025학년도 교수위측사정관 워크숍 - 학생부종합전형 이해(입학팀장)



▲2025학년도 교수위측사정관 워크숍 - 서류평가 방법 안내(입학사정관)

4) 면접평가에 대한 세부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을 사전 공지

평가영역		평가내용
인성	기본자세, 적극성, 자신감	면접에 임하는 기본자세와 최선을 다하려는 적극성, 열정, 자신감 등을 살펴봄
기초소양	가치관과 의사소통능력,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자신의 견해와 주장을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답변하는가를 살펴봄
전공적합성	전공학문에 대한 관심 및 적성, 학습수행능력정도	전공분야에 대한 기본이해도와 관심정도를 관찰하고 지원한 전공에 적응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살펴봄

나. 전형 중

- 1) **교과지식과 관련이 없는 인성면접** 형태로 진행
- 2) 면접문제 출제원칙을 사전에 공지함
 - ① 기초소양분야 1문항, 전공·적성분야 1문항 총 2문항을 출제함
 - ② 면접 실시 전, 전공 회의를 거쳐 전공에서 필요한 인재상, 출제 방향,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출제하고 회의록을 제출함
- 3) **수험생의 면접 부담감을 줄여주고 체계적으로 면접을 준비할 수 있도록 면접문항을 사전에 본교 입학 홈페이지(<http://ent.hs.ac.kr>)를 통하여 공개함**
 - ① **면접문항 공개: 2024. 09. 27(금) ~ 10. 05(토)**
- 4) 면접 자료는 **학생부 비교과요소만 활용**하며, 이외 서류는 면접 시 일체 반영되지 않음
- 5) 입학홍보본부장이 면접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면접 문항에 대한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원칙 및 대학별 고사 위반 사례에 대한 교육 진행

면접위원 유의사항
84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학별 고사)

근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대학별 고사에서 <u>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하는 것을 일체 금하고 있음</u>
사례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학별고사 위반 11개 대학(00대, 00대 등)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 통보(2018년 9월)
조치	00대학교, 00대학교 일부 모집정지 조치

▲ 2025학년도 면접위원 교육자료 (대외비자료이므로 일부만 공개)

※ 상기 교육자료와 더불어 “2025학년도 신입학전형 수시모집 면접 관리지침서”를 별도 제작하여 면접위원에게 사전 배포함

다. 전형 후

- 1) 참인재전형에 참여한 수험생 및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면접위원 포함)을 대상으로 면접 질문에 대한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준수 여부, 사교육 유발 정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설문 결과는 [IV. 문항 분석 및 평가] 참고)
- 2) 수험생의 면접 후기 정보(네이버 및 다음 카페, 페이스북 등)를 취합·분석하여 차년도 면접위원 교육자료에 반영함

IV 문항 분석 및 평가

1. 문항별 총괄표 (※세부사항은 “VI.부록 - 3.2025학년도 문항카드” 참조)

(1) 논술고사(국어)

평가대상	입학전형	계열	문항 번호	교과별 교육과정 과목명	교육과정 준수 여부	문항카드 페이지
논술고사	논술전형	인문계열	1	독서	준수	p. 72 ~ 75
			2	독서	준수	p. 76 ~ 78
			3	독서	준수	p. 79 ~ 81
			4	독서	준수	p. 82 ~ 83
			5	독서	준수	p. 84 ~ 86
			6	독서	준수	p. 87 ~ 89
			7	문학	준수	p. 90 ~ 93
			8	문학	준수	p. 94 ~ 96
			9	문학	준수	p. 97 ~ 99
		자연계열	1	독서	준수	p. 113 ~ 115
			2	독서	준수	p. 116 ~ 117
			3	독서	준수	p. 118 ~ 120
4	독서		준수	p. 121 ~ 123		
5	문학		준수	p. 124 ~ 127		
6	문학		준수	p. 128 ~ 129		

(2) 논술고사(수학)

평가대상	입학전형	계열	문항 번호	교과별 교육과정 과목명	교육과정 준수 여부	문항카드 페이지
논술고사	논술전형	인문계열	10	수학 I	준수	p. 100 ~ 101
			11	수학 II	준수	p. 102 ~ 103
			12	수학 II	준수	p. 104 ~ 105
			13	수학 II	준수	p. 106 ~ 107
			14	수학 I	준수	p. 108 ~ 109
			15	수학 I	준수	p. 110 ~ 112
		자연계열	7	수학 I	준수	p. 130 ~ 131
			8	수학 II	준수	p. 132 ~ 133
			9	수학 I	준수	p. 134 ~ 135
			10	수학 II	준수	p. 136 ~ 137
			11	수학 II	준수	p. 138 ~ 139
			12	수학 I	준수	p. 140 ~ 141
			13	수학 II	준수	p. 142 ~ 143
			14	수학 II	준수	p. 144 ~ 145
			15	수학 II	준수	p. 146 ~ 149

(3) 논술고사 과목별 출제 문항 수 분석

구분	국어		수학		전체 문항수
	문학	독서	수학 I	수학II	
1교시 (인문계열)	3 (20.0%)	6 (40.0%)	3 (20.0%)	3 (20.0%)	15 (100.0%)
2교시 (자연계열)	2 (13.3%)	4 (26.7%)	3 (20.0%)	6 (40.0%)	15 (100.0%)

(4) 면접고사

평가대상	입학전형	계열	문항 구분	문항 수	교과별 교육과정 과목명
면접고사	참인재	전 계열	기초소양(공통)	1	해당없음 (※교과지식과 관련 없는 인성면접)
			전공적성(모집단위별)	1	

-기초소양: 문제에 대한 이해력, 분석능력, 주장의 합리성, 문제해결의 창의성, 적극성, 자신감 및 정서적 안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교과형 문제풀이 형태가 아닌 지원자의 다양한 사고를 엿볼 수 있는 내용을 평가함

-전공적성: 전공에 대한 기본이해도, 입학 후 적응가능성과 미래의 성장가능성, 전공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및 열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평가함

2. 대학 자체 설문 분석 결과
 (1) 신입생 대상 설문조사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면접·논술) 신입생 설문조사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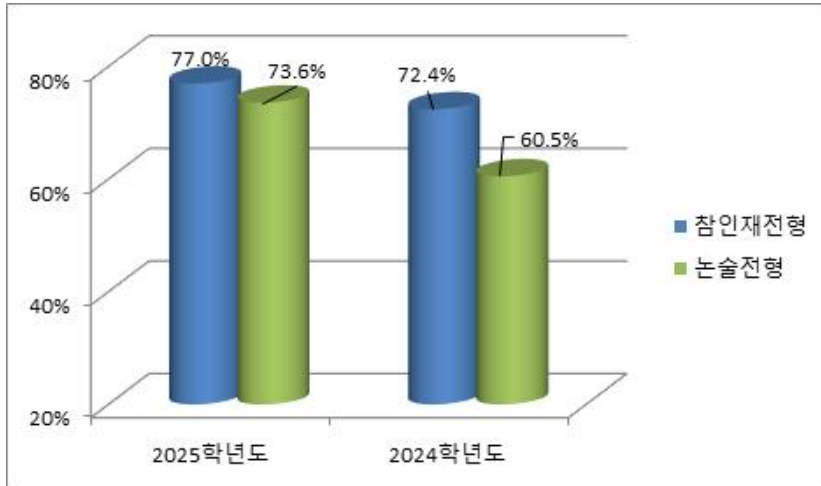
가. 2025학년도 면접실시전형과 논술고사실시전형 합격자 대상 선행학습 관련 설문조사 실시

구분	내용	비고
설문기간	2025.01.06.(월) ~ 01.17.(금)	2주간
설문대상	2025학년도 수시모집(참인재전형, 논술전형) 합격자	본등록 대상자 기준
설문방식	온라인 설문 (설문 URL을 제공하여 개별 접속)	설문 방법을 본교 홈페이지에 공지
설문지구성	<input type="checkbox"/> Part I : 기본정보(인적사항) 질문 (선택형)	3문항
	<input type="checkbox"/> Part II : 대학별 고사 관련 질문 (선택형)	5문항
	<input type="checkbox"/> Part III : 사교육 경험 질문 (선택형)	2문항
	<input type="checkbox"/> Part IV : 지원한 전형의 개선안 (서술형)	1문항

1) 설문은 2025학년도 면접실시전형, 논술고사실시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함

- 면접실시전형(참인재전형) 최종 응답률 현황 : **77.0%**(전년도 대비 **4.6%** 상승)
- 논술고사실시전형(논술전형) 최종 응답률 현황 : **73.6%**(전년도 대비 **13.1%** 상승)
- 전체 최종 응답률 현황 : **75.2%**(전년도 대비 **7.2%** 상승)

구분	전형명	2025학년도			2024학년도		
		대상자(명)	응답자(명)	응답률(%)	대상자(명)	응답자(명)	응답률(%)
면접	참인재전형	256	197	77.0	286	207	72.4
논술	논술전형	265	195	73.6	167	101	60.5
계		521	392	75.2	453	308	6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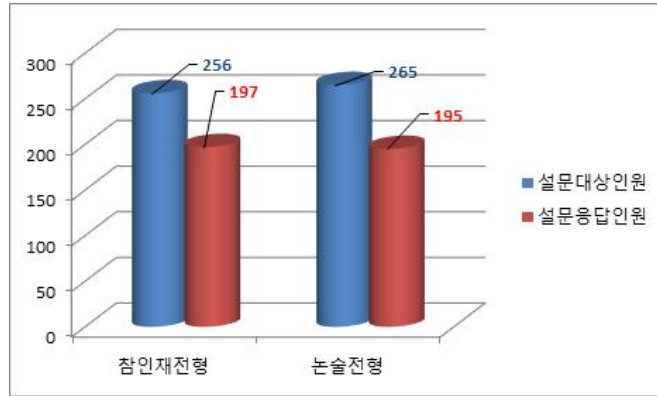


<전형별 응답률 현황>

- 상기 설문 응답인원은 최초 총 응답인원에서 모집단위별 명단 대조 후 중복응답자 및 미대상자 응답인원을 제외한 수치이며, 중복응답 및 미대상 응답자는 모든 설문 항목 통계량에서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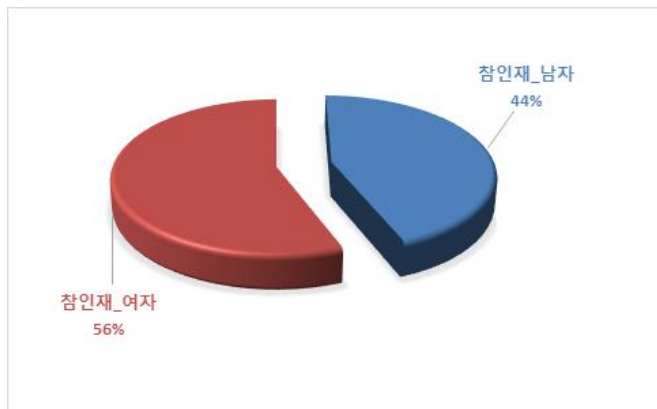
구분	전형명	최초 응답자(명)	중복 응답자(명)	미대상 응답자(명)	실제 응답자(명)
면접	참인재전형	197	0	0	197
논술	논술전형	197	2	0	195
계		394	2	0	392

2) 설문대상인원 중 참인재전형은 256명 중 197명(77.0%)이 설문에 응답하였고, 논술전형은 265명 중 195명 (73.6%)이 응답하였음. 전년도 대비 응답률이 모두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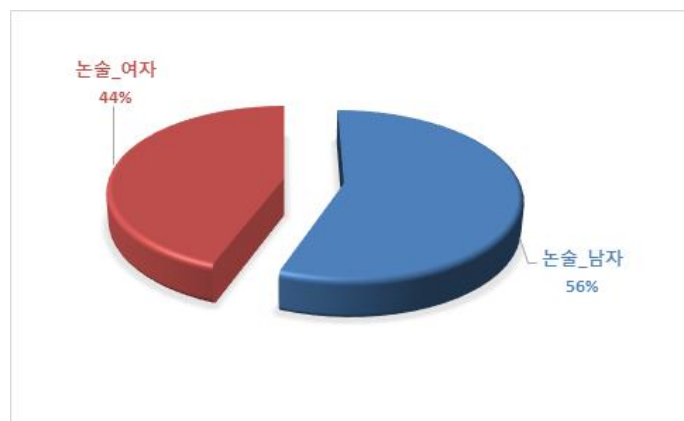
3) 응답자들의 성별을 살펴본 결과 참인재전형은 남자 87명(44.2%), 여자 110명(55.8%)이 응답하였음

성별	응답자수(명)	비율(%)
남자	87	44.2
여자	110	55.8
합계	197	100



4) 응답자들의 성별을 살펴본 결과 논술전형은 남자 109명(55.9%), 여자 86명(44.1%)이 응답하였음

성별	응답자수(명)	비율(%)
남자	109	55.9
여자	86	44.1
합계	19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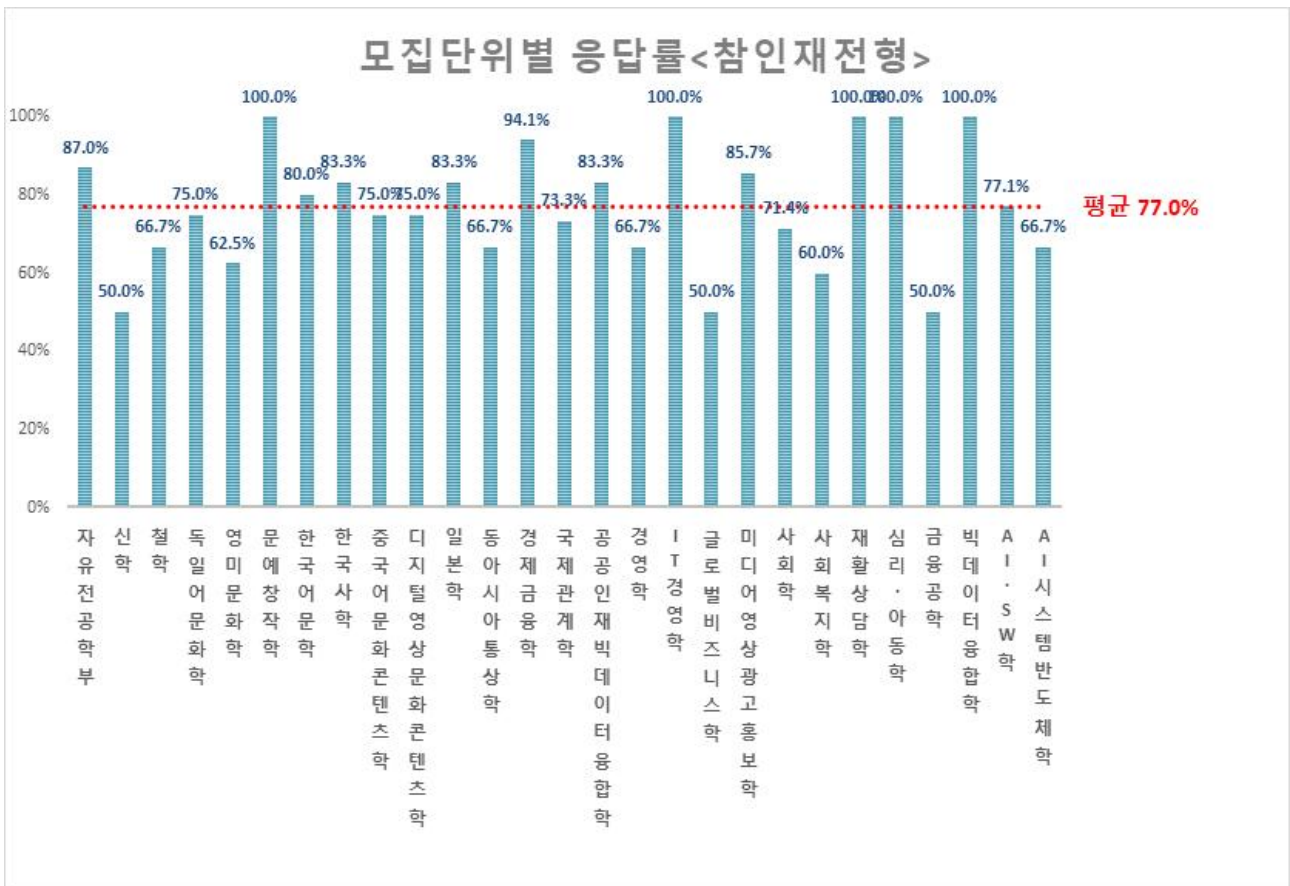


5) 모집단위별 응답자 분포

*참인재전형

모집단위(전공)	설문대상 인원	응답 인원	응답 비율(%)	모집단위(전공)	설문대상 인원	응답 인원	응답 비율(%)
자유전공학부	23	20	87.0	공공인재빅데이터융합학	6	5	83.3
신학	12	6	50.0	경영학	3	2	66.7
철학	12	8	66.7	IT경영학	4	4	100.0
독일어문화학	12	9	75.0	글로벌비즈니스학	4	2	50.0
영미문화학	8	5	62.5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	7	6	85.7
문예창작학	6	6	100.0	사회학	14	10	71.4
한국어문학	5	4	80.0	사회복지학	5	3	60.0
한국사학	6	5	83.3	재활상담학	5	5	100.0
중국어문화콘텐츠학	8	6	75.0	심리·아동학	6	6	100.0
디지털영상문화콘텐츠학	4	3	75.0	금융공학	6	3	50.0
일본학	6	5	83.3	빅데이터융합학	6	6	100.0
동아시아통상학	15	10	66.7	AI·SW학	35	27	77.1
경제금융학	17	16	94.1	AI시스템반도체학	6	4	66.7
국제관계학	15	11	73.3	합계	256	197	7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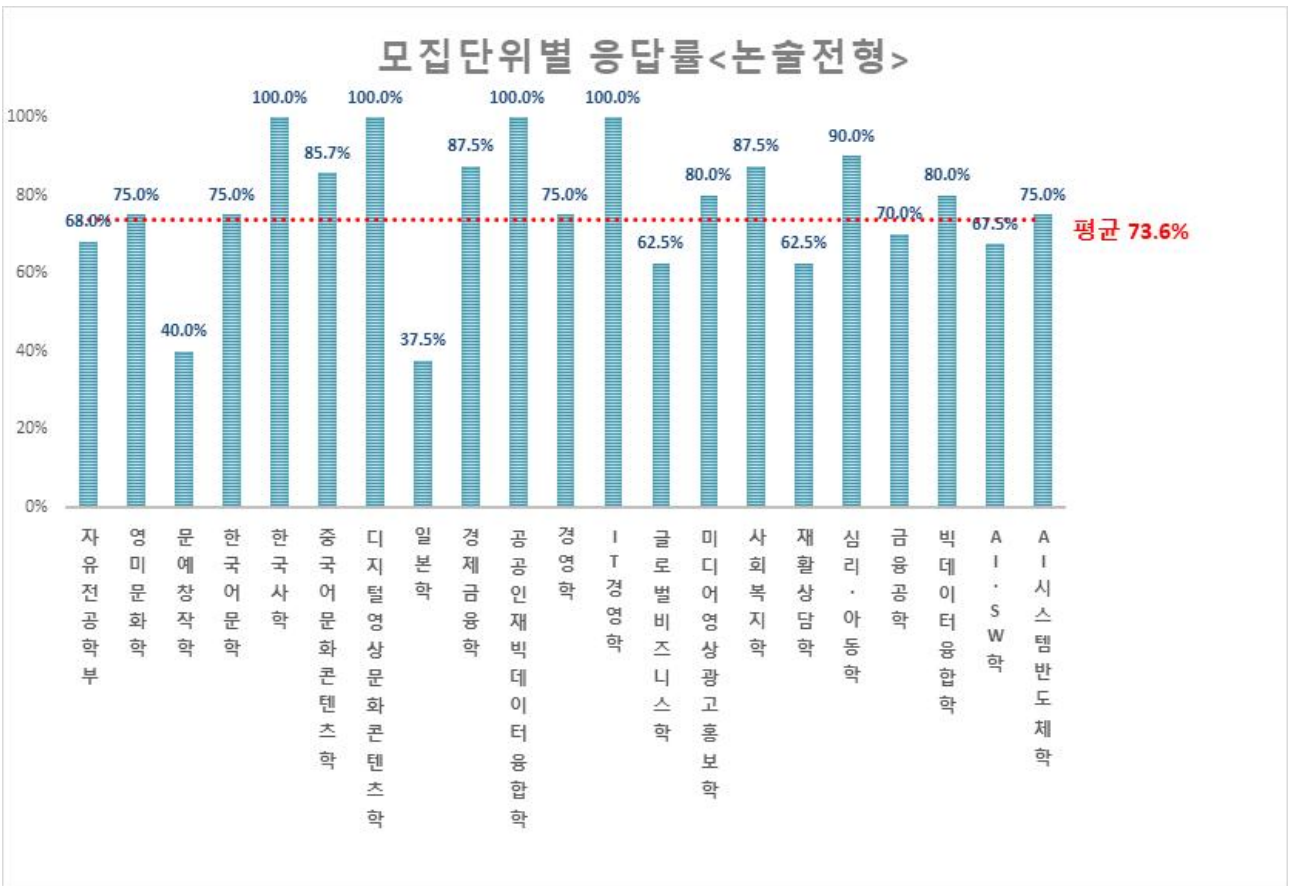
⇒ 전체 모집단위(27개 전공)에서 고르게 응답을 하였음.



***논술전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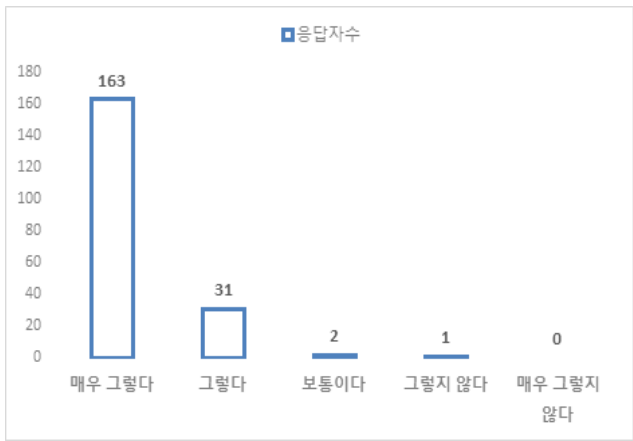
모집단위(전공)	설문대상 인원	응답 인원	응답 비율(%)	모집단위(전공)	설문대상 인원	응답 인원	응답 비율(%)
자유전공학부	25	17	68.0	IT경영학	7	7	100.0
영미문화학	8	6	75.0	글로벌비즈니스학	8	5	62.5
문예창작학	10	4	40.0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	10	8	80.0
한국어문학	8	6	75.0	사회복지학	8	7	87.5
한국사학	10	10	100.0	재활상담학	8	5	62.5
중국어문화콘텐츠학	7	6	85.7	심리·아동학	10	9	90.0
디지털영상문화콘텐츠학	4	4	100.0	금융공학	10	7	70.0
일본학	8	3	37.5	빅데이터융합학	10	8	80.0
경제금융학	8	7	87.5	AI·SW학	80	54	67.5
공공인재빅데이터융합학	10	10	100.0	AI시스템반도체학	8	6	75.0
경영학	8	6	75.0	합계	265	195	73.6

⇒ 전체 모집단위(21개 전공)에서 고르게 응답을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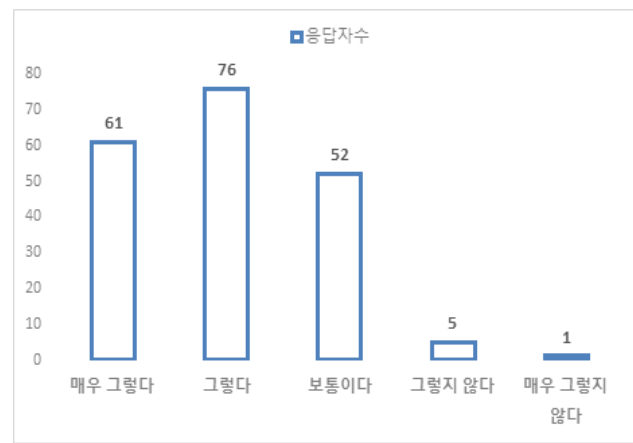
6) 면접일 이전 면접문항의 사전 공개가 면접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응답의 경우, 응답자 대부분이 '매우 그렇다', '그렇다'는 의견이 많았음. **긍정의 대답이 98.5%를 차지함.**

구분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매우 그렇다	163	82.7	159	76.8
그렇다	31	15.7	43	20.8
보통이다	2	1.0	4	1.9
그렇지 않다	1	0.5	1	0.4
매우 그렇지 않다	0	0.0	0	0.0
합계	197	100	20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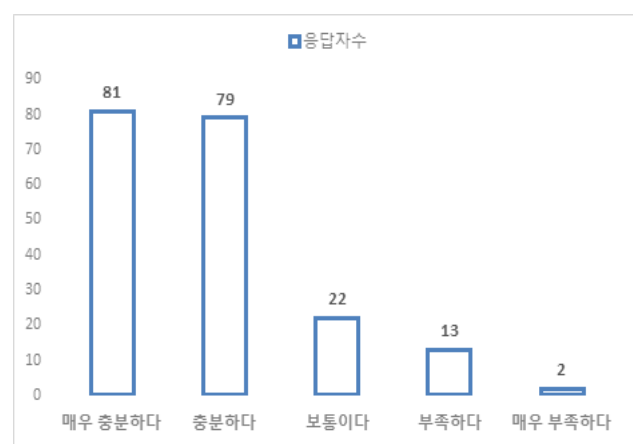
7) 논술모의고사 문제와 답안, 기출문제 공개가 논술고사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응답의 경우, '그렇다'(39.0%), '매우 그렇다'(31.3%) 순으로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음. **긍정의 대답이 70.3%를 차지함.**

구분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매우 그렇다	61	31.3	21	20.8
그렇다	76	39.0	46	45.5
보통이다	52	26.7	29	28.7
그렇지 않다	5	2.6	4	4.0
매우 그렇지 않다	1	0.5	1	1.0
합계	195	100	10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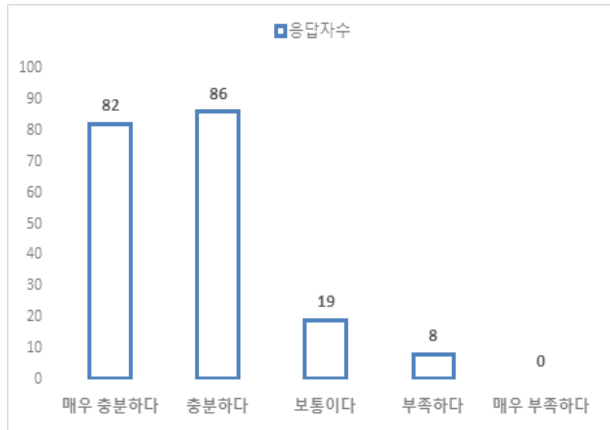
8) 면접고사의 시간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응답은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음. **긍정의 대답이 81.2%를 차지함.**

구분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매우 충분하다	81	41.1	90	43.5
충분하다	79	40.1	83	40.1
보통이다	22	11.2	20	9.7
부족하다	13	6.6	14	6.8
매우 부족하다	2	1.0	0	0.0
합계	197	100	20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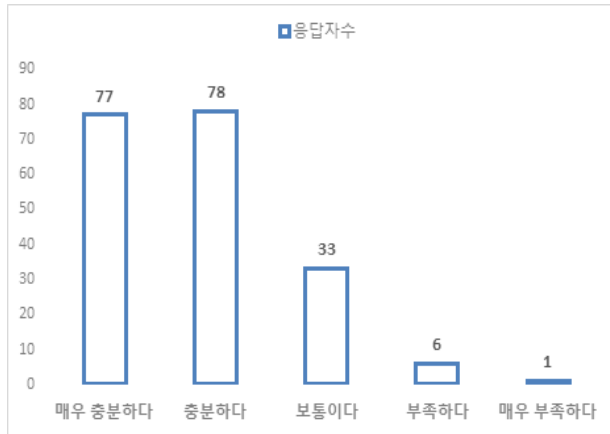
9-1) 논술고사(국어)의 시간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응답은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순으로 대체로 시간이 충분했다는 의견이 많았음. **긍정의 대답이 86.2%(전년도 대비 14% 상승)를 차지함.**

구분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매우 충분하다	82	42.1	33	32.7
충분하다	86	44.1	40	39.6
보통이다	19	9.7	18	17.8
부족하다	8	4.1	9	8.9
매우 부족하다	0	0.0	1	1.0
합계	195	100.0	10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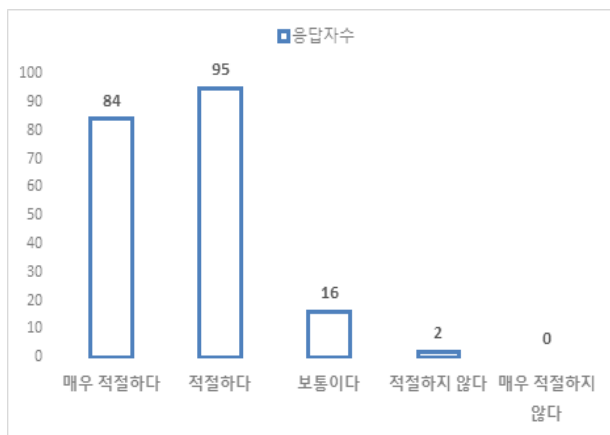
9-2) 논술고사(수학)의 시간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응답은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순으로 대체로 시간이 충분했다는 의견이 많았음. **긍정의 대답이 79.5%를 차지함.**

구분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매우 충분하다	77	39.5	33	32.7
충분하다	78	40.0	48	47.5
보통이다	33	16.9	16	15.8
부족하다	6	3.1	4	4.0
매우 부족하다	1	0.5	0	0.0
합계	195	100	101	100



10) 면접고사의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이나 범위에 적절한 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매우 적절하다'와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음. **적절하다는 응답이 90.9%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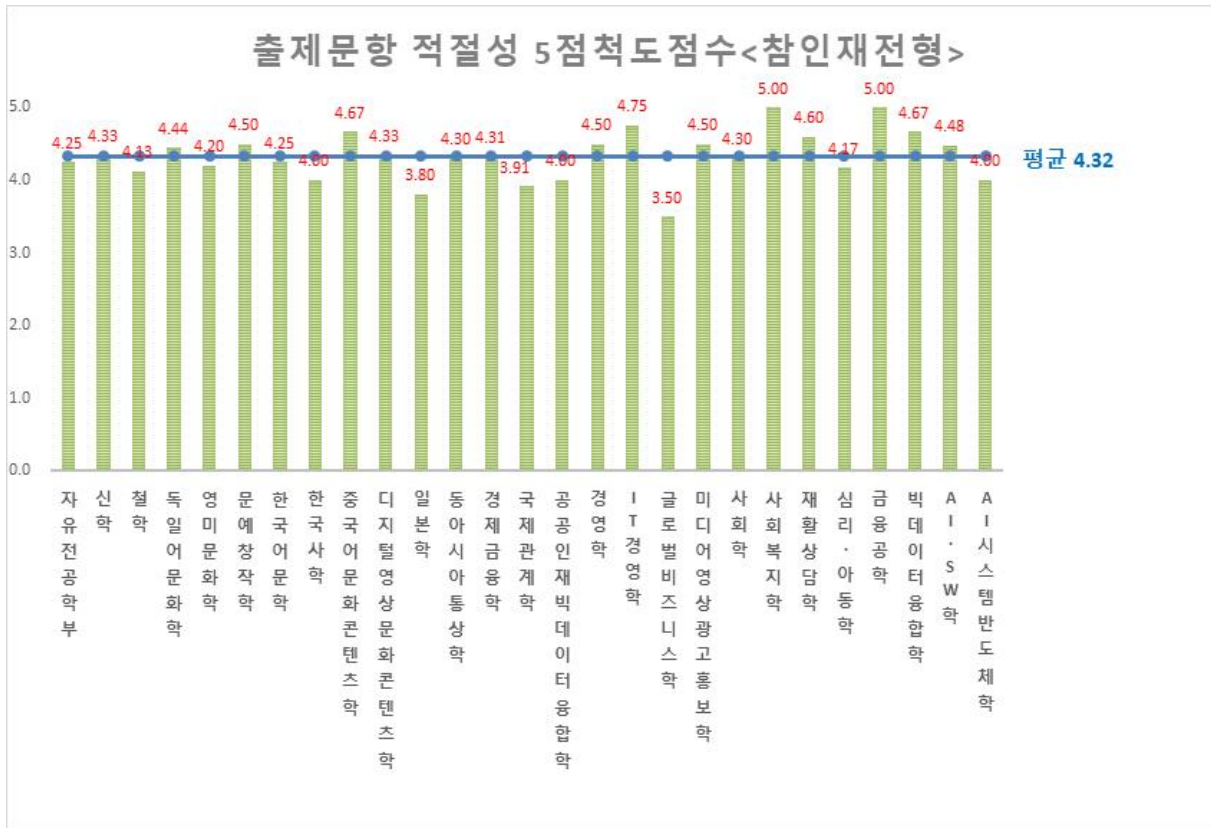
구분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매우 적절하다	84	42.6	77	37.2
적절하다	95	48.2	108	52.2
보통이다	16	8.1	20	9.7
적절하지 않다	2	1.0	2	1.0
매우 적절하지 않다	0	0.0	0	0.0
합계	197	100	207	100



10-1) 10번 문항(면접고사의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이나 범위에 적절한 지에 대한 응답)에 대하여 참인재전형 모집단위별로 5점 척도 환산점수를 분석해본 결과, **평균 4.32(5점 만점)의 높은 결과(전년도 대비 상승)를 보였고, 모집단위별로도 고르게 높은 점수 분포를 나타냄.**

모집단위	5점	4점	3점	2점	1점	합계	5점척도 환산점수
	매우적절	적절	보통	부적절	매우부적절		
자유전공학부	6	13	1			20	4.25
신학	2	4				6	4.33
철학	2	5	1			8	4.13
독일어문화학	4	5				9	4.44
영미문화학	2	2	1			5	4.20
문예창작학	4	1	1			6	4.50
한국어문학	2	1	1			4	4.25
한국사학	1	3	1			5	4.00
중국어문화콘텐츠학	4	2				6	4.67
디지털영상문화콘텐츠학	2		1			3	4.33
일본학	1	2	2			5	3.80
동아시아통상학	3	7				10	4.30
경제금융학	7	8		1		16	4.31
국제관계학	2	7	1	1		11	3.91
공공인재빅데이터융합학	1	3	1			5	4.00
경영학	1	1				2	4.50
IT경영학	3	1				4	4.75
글로벌비즈니스학		1	1			2	3.50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	3	3				6	4.50
사회학	3	7				10	4.30
사회복지학	3					3	5.00
재활상담학	4		1			5	4.60
심리·아동학	3	1	2			6	4.17
금융공학	3					3	5.00
빅데이터융합학	4	2				6	4.67
AI·SW학	13	14				27	4.48
AI시스템반도체학	1	2	1			4	4.00
총합계	84	95	16	2	0	197	4.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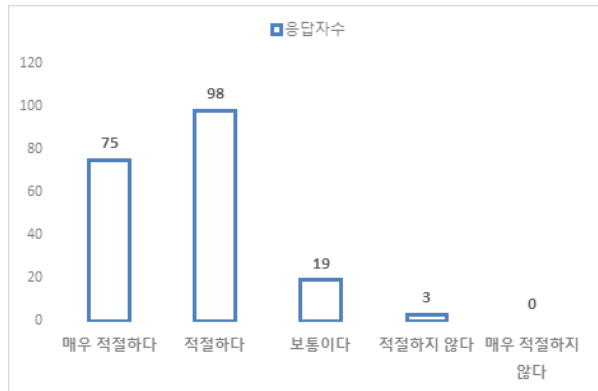
⇒ 전체 모집단위(27개 전공)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 분포를 보였음.



<참인재전형 - 모집단위별 출제문항 적절성 5점척도 점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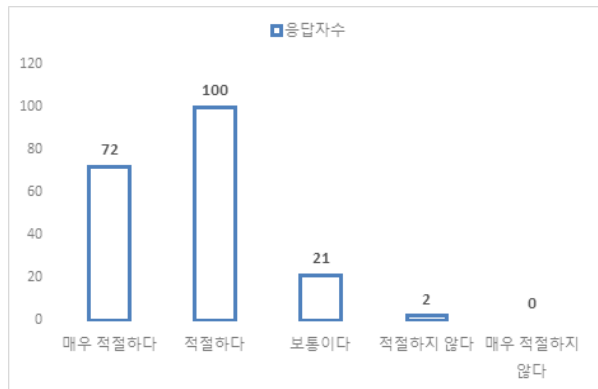
11-1) 논술고사(국어)의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이나 범위에 적절한 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매우 적절하다'와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음. 적절하다는 응답이 88.8%(전년도 대비 5.6% 상승)를 차지함.

구분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매우 적절하다	75	38.5	34	33.7
적절하다	98	50.3	50	49.5
보통이다	19	9.7	17	16.8
적절하지 않다	3	1.5	0	0.0
매우 적절하지 않다	0	0.0	0	0.0
합계	195	100	10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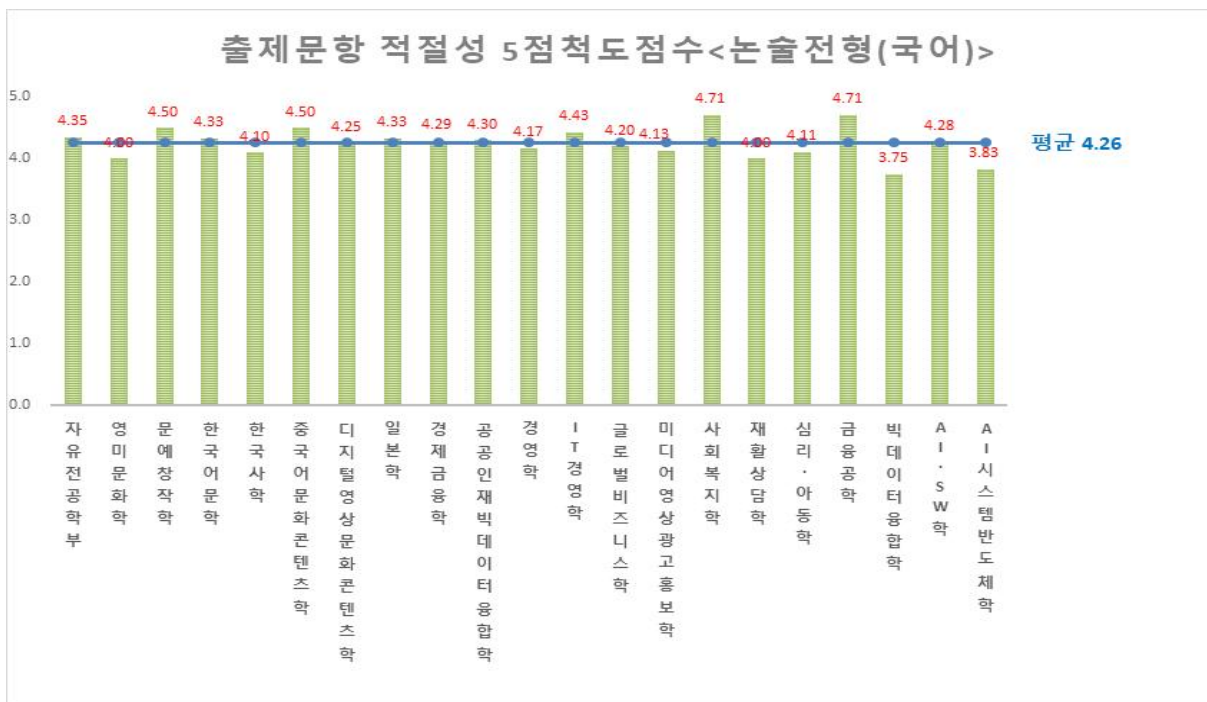
11-2) 논술고사(수학)의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이나 범위에 적절한 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매우 적절하다'와 '적절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음. 적절하다는 응답이 88.2%(전년도 대비 6.1% 상승)를 차지함.

구분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매우 적절하다	72	36.9	36	35.6
적절하다	100	51.3	47	46.5
보통이다	21	10.8	14	13.9
적절하지 않다	2	1.0	2	2.0
매우 적절하지 않다	0	0.0	2	2.0
합계	195	100	101	100



11-3) 11-1번 문항(논술고사(국어)의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이나 범위에 적절한 지에 대한 응답)에 대하여 논술전형 모집단위별로 5점 척도 환산점수를 분석해본 결과, **평균 4.26(5점 만점)의 높은 결과(전년도 대비 상승)를 보였고, 모집단위별로도 고르게 높은 점수 분포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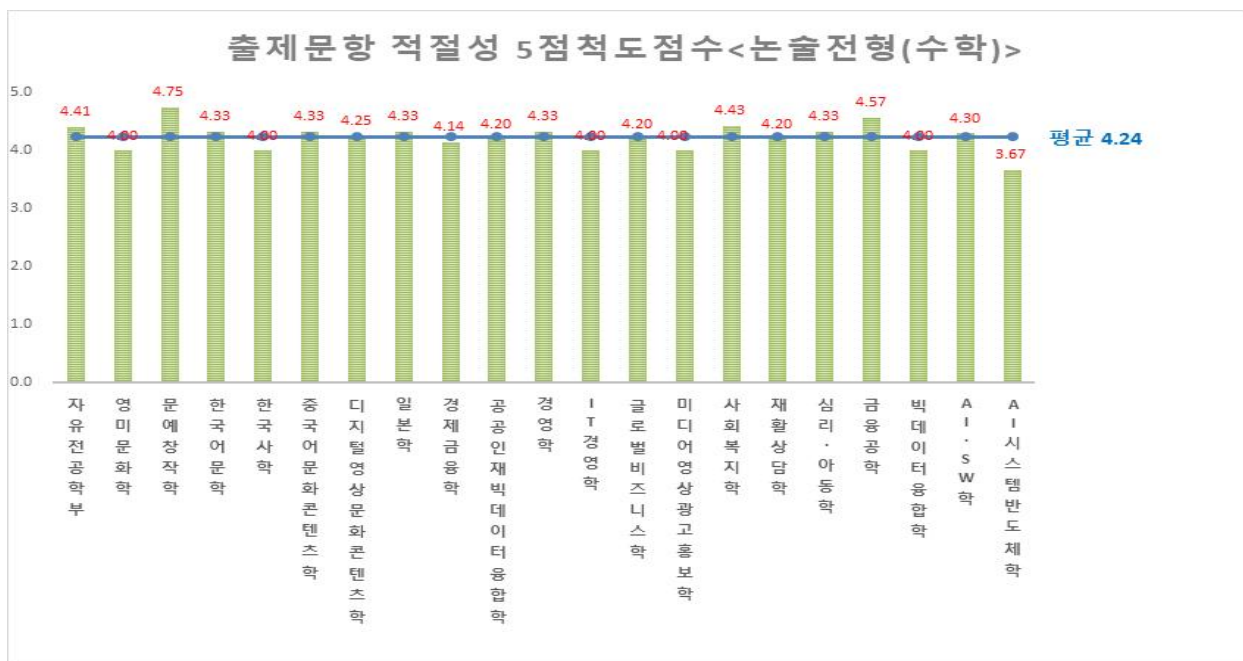
모집단위	5점	4점	3점	2점	1점	합계	5점척도 환산점수
	매우적절	적절	보통	부적절	매우부적절		
자유전공학부	6	11				17	4.35
영미문화학	2	2	2			6	4.00
문예창작학	2	2				4	4.50
한국어문학	2	4				6	4.33
한국사학	3	5	2			10	4.10
중국어문화콘텐츠학	3	3				6	4.50
디지털영상문화콘텐츠학	1	3				4	4.25
일본학	1	2				3	4.33
경제금융학	2	5				7	4.29
공공인재빅데이터융합학	4	5	1			10	4.30
경영학	3	2		1		6	4.17
IT경영학	3	4				7	4.43
글로벌비즈니스학	1	4				5	4.20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	2	5	1			8	4.13
사회복지학	5	2				7	4.71
재활상담학	1	3	1			5	4.00
심리·아동학	3	4	2			9	4.11
금융공학	5	2				7	4.71
빅데이터융합학	2	3	2	1		8	3.75
AI·SW학	23	24	6	1		54	4.28
AI시스템반도체학	1	3	2			6	3.83
총합계	75	98	19	3	0	195	4.26



<논술전형(국어) - 모집단위별 출제문항 적절성 5점척도 점수 분포>

11-4) 11-2번 문항(논술고사(수학)의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이나 범위에 적절한 지에 대한 응답)에 대하여 논술전형 모집단위별로 5점 척도 환산점수를 분석해본 결과, **평균 4.24(5점 만점)의 높은 결과(전년도 대비 상승)를 보였고, 모집단위별로도 고르게 높은 점수 분포를 나타냄.**

모집단위	5점	4점	3점	2점	1점	합계	5점척도 환산점수
	매우적절	적절	보통	부적절	매우부적절		
자유전공학부	7	10				17	4.41
영미문화학	2	2	2			6	4.00
문예창작학	3	1				4	4.75
한국어문학	3	2	1			6	4.33
한국사학	3	4	3			10	4.00
중국어문화콘텐츠학	2	4				6	4.33
디지털영상문화콘텐츠학	1	3				4	4.25
일본학	1	2				3	4.33
경제금융학	2	4	1			7	4.14
공공인재빅데이터융합학	3	6	1			10	4.20
경영학	3	2	1			6	4.33
IT경영학	2	3	2			7	4.00
글로벌비즈니스학	1	4				5	4.20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	1	6	1			8	4.00
사회복지학	4	2	1			7	4.43
재활상담학	1	4				5	4.20
심리·아동학	3	6				9	4.33
금융공학	4	3				7	4.57
빅데이터융합학	3	3	1	1		8	4.00
AI·SW학	22	27	4	1		54	4.30
AI시스템반도체학	1	2	3			6	3.67
총합계	72	100	21	2		195	4.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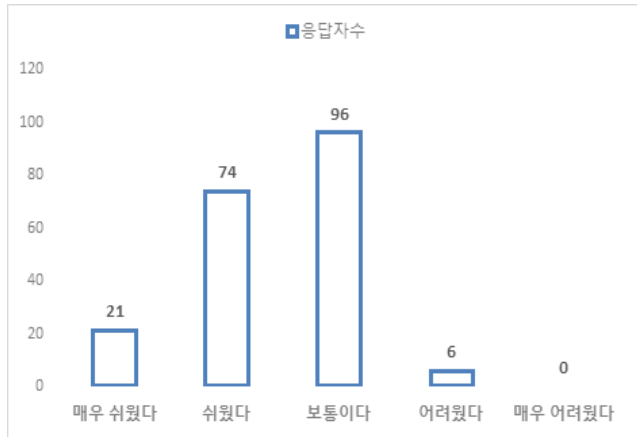
<논술전형(수학) - 모집단위별 출제문항 적절성 5점척도 점수 분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 및 범위에 대한 적절성 판단 5점 척도 결과 요약>

구분	2025학년도	2024학년도	비고
면접	4.32 / 5.00	4.26 / 5.00	전년도대비 0.06 상승
논술(국어)	4.26 / 5.00	4.18 / 5.00	전년도대비 0.08 상승
논술(수학)	4.24 / 5.00	4.15 / 5.00	전년도대비 0.09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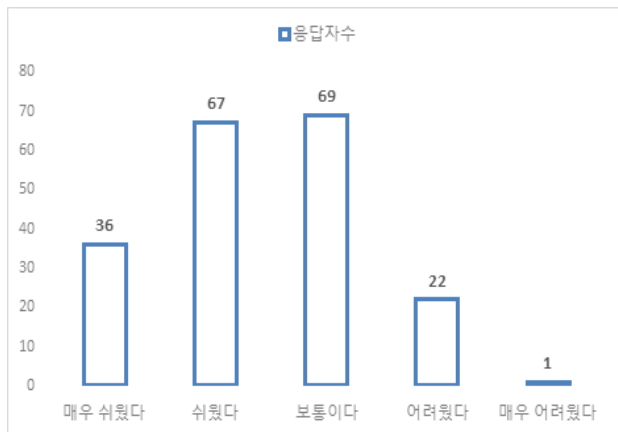
12) 면접고사의 문항의 난이도에 대한 응답으로는 중립적 응답(보통이다)이 가장 많았으나, 긍정의 응답(쉬웠다)이 부정의 응답(어려웠다)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긍정의 응답이 48.2%(전년도 대비 12.5% 상승), 부정의 응답이 3.0%(전년도 대비 5.7% 감소)를 차지하였음.**

구분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매우 쉬웠다	21	10.7	16	7.7%
쉬웠다	74	37.6	58	28.0%
보통이다	96	48.7	116	56.0%
어려웠다	6	3.0	16	7.7%
매우 어려웠다	0	0.0	1	1.0%
합계	197	100	20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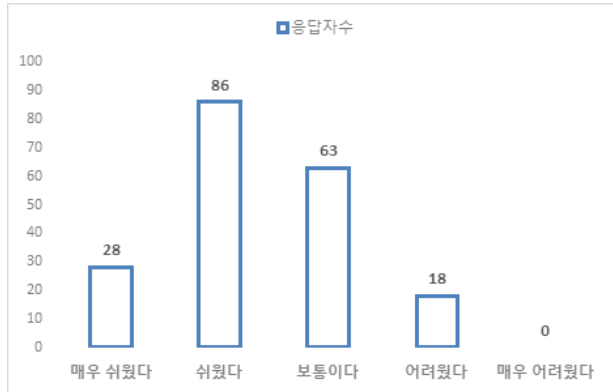
13-1) 논술고사(국어)의 문항의 난이도에 대한 응답으로는 중립적 응답(보통이다)이 가장 많았으나, 긍정의 응답(쉬웠다)이 부정의 응답(어려웠다)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긍정의 응답이 52.8%(전년도 대비 9.2% 상승), 부정의 응답이 11.8%(전년도 대비 8% 감소)를 차지하였음.**

구분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매우 쉬웠다	36	18.5%	16	15.8
쉬웠다	67	34.4%	28	27.7
보통이다	69	35.4%	37	36.6
어려웠다	22	11.3%	19	18.8
매우 어려웠다	1	0.5%	1	1.0
합계	195	100	10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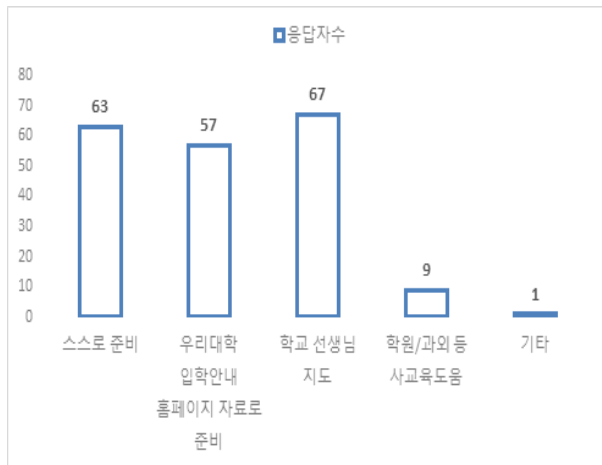
13-2) 논술고사(수학)의 문항의 난이도에 대한 응답으로는 '쉬웠다', '보통이다', '매우 쉬웠다' 순으로 대체로 어렵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음. **긍정의 응답이 58.5%(전년도 대비 1.1% 상승), 부정의 응답이 9.2%(전년도 대비 2.7% 감소)를 차지하였음.**

구분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매우 쉬웠다	28	14.4	18	17.8
쉬웠다	86	44.1	40	39.6
보통이다	63	32.3	31	30.7
어려웠다	18	9.2	12	11.9
매우 어려웠다	0	0.0	0	0.0
합계	195	100	10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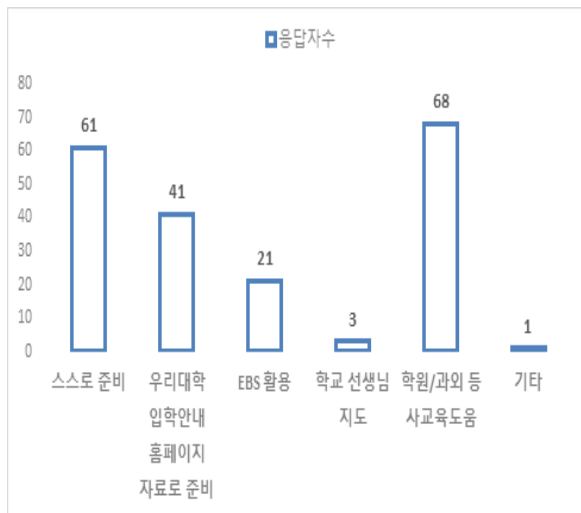
14) 면접고사를 위해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한 설문 문항의 응답으로 **학교 선생님의 지도(34.0%), 스스로 준비(32.0%), 우리대학 입학안내 공개자료 토대로 준비(28.9%) 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사교육 도움은 4.6%에 불과함. 이를 토대로 사교육 도움 없이도 스스로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음.

구분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스스로 준비	63	32.0	81	39.1
우리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 자료로 준비	57	28.9	59	28.5
학교 선생님 지도	67	34.0	54	26.1
학원/과외 등 사교육도움	9	4.6	9	4.3
기타	1	0.5	4	1.9
합계	197	100	207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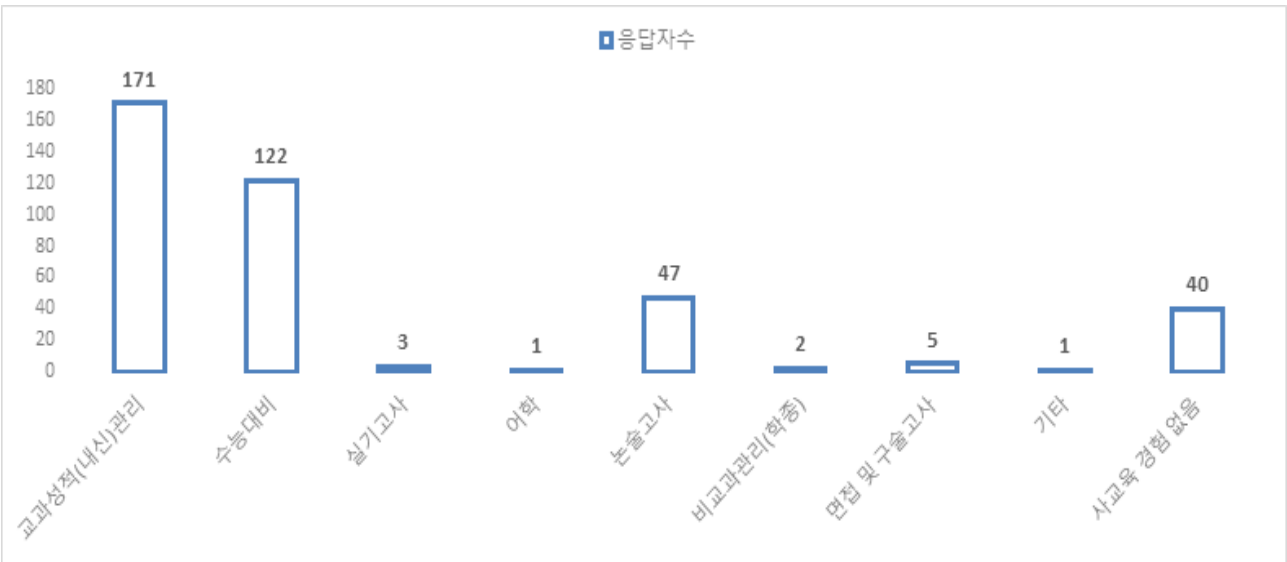
15) 논술고사를 위해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한 설문 문항의 응답으로는 **학원/과외 등 사교육 도움을 받아 준비한 학생(34.9%), 스스로 준비(31.3%), 우리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 자료로 준비(21.0%) 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사교육 도움 없이 스스로 준비한 응답이 52.3%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음.

구분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스스로 준비	61	31.3	30	29.7
우리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 자료로 준비	41	21.0	24	23.8
EBS 활용	21	10.8	9	8.9
학교 선생님 지도	3	1.5	0	0.0
학원/과외 등 사교육도움	68	34.9	38	37.6
기타	1	0.5	0	0.0
합계	195	100	10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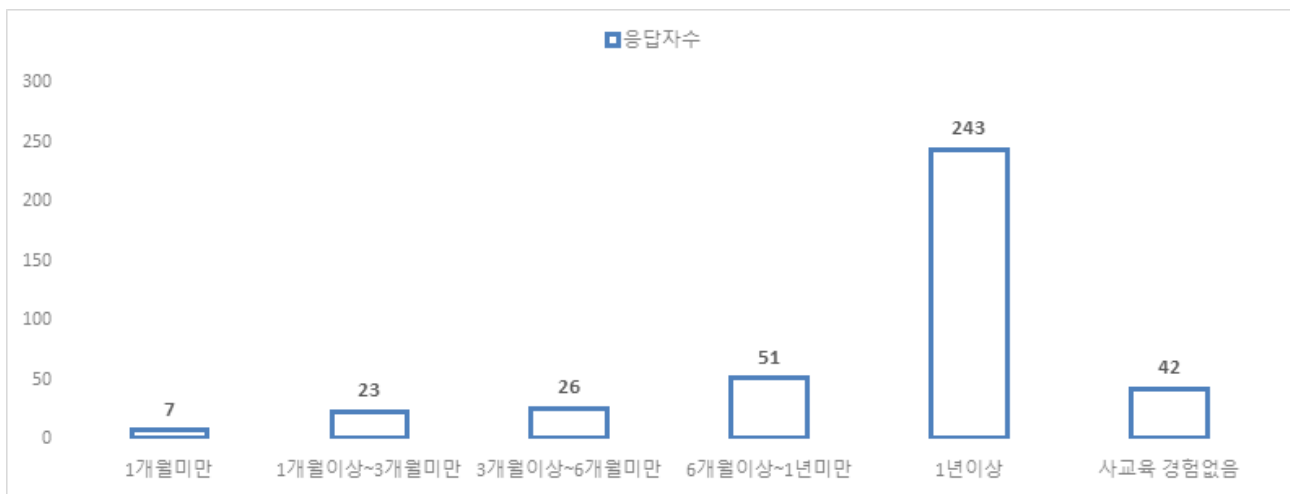
16) “고교 재학기간 사교육을 받았다면, 사교육을 받은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라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교과성적(내신)관리(43.6%), 수능대비(31.1%) 순으로 응답이 많았음. 면접전형에 응시한 학생들은 교과성적(내신)관리가 목적인 경우가 과반수 이상(67.5%)이었으며, 논술전형에 응시한 학생들은 수능대비가 목적인 경우가 과반수 이상(54.9%)을 차지하였음. 또한 상대적으로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보다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사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있음.

구분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전체		면접		논술		전체		면접		논술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교과성적(내신)관리	171	43.6	133	67.5	38	19.5	146	47.4	118	57.0	28	27.7
수능대비	122	31.1	15	7.6	107	54.9	77	25.0	23	11.1	54	53.5
실기	3	0.8	2	1.0	1	0.5	5	1.6	5	2.4	0	0.0
어학	1	0.3	1	0.5	0	0.0	1	0.3	1	0.5	0	0.0
논술	47	12.0	4	2.0	43	22.1	20	6.5	3	1.4	17	16.8
비교과관리(학생부종합)	2	0.5	2	1.0	0	0.0	2	0.6	2	1.0	0	0.0
면접/구술	5	1.3	4	2.0	1	0.5	3	1.0	3	1.4	0	0.0
기타	1	0.3	1	0.5	0	0.0	0	0.0	0	0.0	0	0.0
사교육 경험 없음	40	10.2	35	17.8	5	2.6	54	17.5	52	25.1	2	2.0
합계	392	100	197	100	195	100	308	100	207	100	101	100



17) “고교 재학기간 사교육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실시하였습니까?”라는 설문을 실시한 결과, 1년 이상(62.0%),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13.0%), 사교육 경험없음(10.7%) 순의 분포를 보임. 상기 16번 항목의 결과에서 보듯이 우리대학과 관련 있는 대학별고사에서는 사교육 경험이 적으나, 수능 및 교과 성적을 위해서 사교육을 여전히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구분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전체		면접		논술		전체		면접		논술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1개월미만	7	1.8	3	1.5	4	2.1	5	1.6	4	1.9	1	1.0
1개월이상~3개월미만	23	5.9	9	4.6	14	7.2	13	4.2	9	4.3	4	4.0
3개월이상~6개월미만	26	6.6	8	4.1	18	9.2	20	6.5	10	4.8	10	9.9
6개월이상~1년미만	51	13.0	17	8.6	34	17.4	43	14.0	23	11.1	20	19.8
1년이상	243	62.0	123	62.4	120	61.5	173	56.2	109	52.7	64	63.4
사교육 경험없음	42	10.7	37	18.8	5	2.6	54	17.5	52	25.1	2	2.0
합계	392	100	197	100	195	100	308	100	207	100	101	100



18) [추가질문] 면접 또는 논술고사를 응시하게 된 주 목적을 묻는 질문에는 아래와 같은 답변을 했음. 참인재 전형 응시자에게는 우리대학 입학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최근 입시결과(학생부 성적) 제공의 영향이 가장 컸음(50.8%). 논술전형 응시자의 경우 논술 준비에 부담이 없어서 지원한 학생들(37.4%)이 가장 많았음.

***참인재전형(면접)**

구분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지난해 입시결과(입학홈페이지 제공 자료)가 나의 위치(학생부 성적)와 적절해서	100	50.8	107	51.7
면접 일정이 타 대학과 겹치지 않아서	7	3.6	5	2.4
전형 방법이 적절해서(반영요소, 반영비율 등)	38	19.3	34	16.4
면접 준비에 부담이 없어서(면접문제 간소화와 사전공개)	45	22.8	40	19.3
서류 준비에 부담이 없어서(제출서류 없음)	3	1.5	11	5.3
기타	4	2.0	10	4.8
합계	197	100	207	100

***논술전형(논술고사)**

구분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응답자	비율(%)	응답자	비율(%)
지난해 입시결과(입학홈페이지 제공 자료)가 나의 위치(학생부 성적)와 적절해서	39	20.0	18	17.8
논술 일정이 타 대학과 겹치지 않아서	20	10.3	22	21.8
전형 방법이 적절해서(반영요소, 반영비율 등)	52	26.7	20	19.8
논술 준비에 부담이 없어서(논술모의고사, 기출문제 공개)	73	37.4	21	20.8
서류 준비에 부담이 없어서(제출서류 없음)	5	2.6	14	13.9
기타	6	3.1	6	5.9
합계	195	100	101	100

19) [추가질문] 서술형(자율기재) 항목 응답 분석

※ 면접/논술고사를 통해 느낀 점 또는 향후 우리대학 입학전형 관련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

① 논술고사 응시자 의견 - 총 46명 응답

고사 구분	내용 요약
논술고사	<p>1. 논술고사 난이도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체로 쉬운 편이었다는 의견 다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대학 논술보다 쉬웠다. ▶ 수학이 특히 쉬워 변별력이 낮다. ▶ 난이도를 조금 더 높이는 것이 좋겠다. ● 난이도가 적절했다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위권 수준의 학생들에게 적당했다. ▶ 수능과 내신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전형으로써 의미 있음 <p>2. 논술고사 운영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 환경 개선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 자리 지정이 안 되어 어수선했다 → 지정좌석제 필요 ▶ 핫팩 제공이 좋았다 → 계속 유지 필요 <p>3. 입학전형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 정보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 전형 합격자의 평균 점수, 평가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음 ▶ 상세한 가이드북 및 Q&A 운영 확대 필요 ● 수능 최저 기준 적용, 내신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신 반영 축소 or 수능 최저(한신대 수준) or 한국사 반영이 더 적절 ● 논술 전형 확대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전공학부를 논술로 더 확대 운영하자는 의견 <p>4. 종합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 난이도 적정 조정, 시험 운영의 개선, 전형 정보의 명확한 제공이 주요 개선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고사는 좋은 제도이며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음. ▶ 타 대학과 비교했을 때 다소 쉬운 편이라 변별력 강화를 위한 난이도 조정 필요. ▶ 논술 시험의 운영(자리 배치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다수. ▶ 입학전형에 대한 정보를 더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특히 논술 성적)

② 면접고사 응시자 의견 - 총 62명 응답

고사 구분	내용 요약
면접고사	<p>1. 일반적(긍정적) 피드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분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님들이 긴장을 풀어주려 노력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면접을 볼 수 있었음. ▶ 선배들이 면접 전 응원과 안내를 해줘서 도움이 됨. ▶ 미리 공개된 면접 질문 덕분에 대비하기 쉬웠음. ● 면접 경험 유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을 준비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전공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됨. ▶ 전공 관련 질문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어 지원자의 역량을 잘 평가할 수 있음. ● 한신대학교의 특성과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대학보다 면접이 빨리 진행되어 경험을 쌓기에 유리함. ▶ 참인재전형이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전형이라는 평가. <p>2. 개선이 필요한 부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방식 및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시간이 너무 짧아서 준비한 내용을 충분히 말하기 어려웠음. ▶ 3명이 함께 면접을 보면 부담이 크므로 개인 면접으로 변경하면 좋겠음. ▶ 질문이 사전에 공개되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지고 변별력이 낮아질 수 있음. ▶ 추가 질문(꼬리 질문)이 부족하여 면접자의 기량을 더 자세히 파악하기 어려움. ● 시설 및 환경 개선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사실의 분위기가 다소 삭막, 인테리어 개선 필요(벽지 교체, 의자 불편 등). ▶ 면접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 대기 공간 및 환경 개선 필요. ▶ 셔틀버스 운영 요청 및 대중교통 이용 불편 ● 입학 홍보 및 지원 관련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소개, 기념품 제공하면 좋겠음(학교 이미지 개선 효과 기대). <p>3. 종합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시간이 짧고 추가 질문이 부족하여 학생들이 충분히 자신의 역량을 보여주기가 어렵다는 점, 면접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주요 개선점으로 언급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 시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당 주어진 시간을 늘려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도록 ▶ 3인 면접 방식은 부적절, 개인 면접 또는 2인 면접으로 변경 검토. ▶ 추가 질문(꼬리 질문)을 적극 실시하여 학생들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

(2)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대상 설문조사

2025학년도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설문은 선행학습영향평가에 참여한 내부·외부평가위원 5명을 대상으로 실시

구분	설문대상인원	응답인원	응답율(%)
선행학습영향평가 내부·외부 평가위원	내부 평가위원	2	2
	외부 평가위원	3	3
계	5	5	100.0

2)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시험 실시 여부와 관련하여 '전혀 없다'는 응답이 100%

설문문항	구분	응답현황	전혀 없음	다소 있음	상당히 높음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 시험 실시 여부	참인재전형	응답인원(명)	5	0	0
		응답비율(%)	100.0	0.0	0.0

3)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는 논술고사 실시 여부와 관련하여 '전혀 없다'는 응답이 100%

설문문항	구분	응답현황	전혀 없음	다소 있음	상당히 높음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는 논술고사 실시 여부	논술전형	응답인원(명)	5	0	0
		응답비율(%)	100.0	0.0	0.0

4) 기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설문에 '전혀 없다'는 응답이 100%

설문문항	구분	응답현황	전혀 없음	다소 있음	상당히 높음
기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참인재전형	응답인원(명)	5	0	0
		응답비율(%)	100.0	0.0	0.0
	논술전형	응답인원(명)	5	0	0
		응답비율(%)	100.0	0.0	0.0

5)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시 개선할 사항에 대한 설문에 '전혀 없다'는 응답이 100%

설문문항	구분	응답현황	전혀 없음	다소 있음	상당히 높음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시 개선할 사항	참인재전형	응답인원(명)	5	0	0
		응답비율(%)	100.0	0.0	0.0
	논술전형	응답인원(명)	5	0	0
		응답비율(%)	100.0	0.0	0.0

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위반되는 출제문항에 대한 설문에 '전혀 없다'는 응답이 100%

설문문항	구분	응답현황	전혀 없음	다소 있음	상당히 높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위반되는 출제문항	참인재전형	응답인원(명)	5	0	0
		응답비율(%)	100.0	0.0	0.0
	논술전형	응답인원(명)	5	0	0
		응답비율(%)	100.0	0.0	0.0

7) 출제문항 수 및 난이도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에 '전혀 없다'는 응답이 100%

설문문항	구분	응답현황	전혀 없음	다소 있음	상당히 높음
출제문항 수 및 난이도 개선사항	참인재전형	응답인원(명)	5	0	0
		응답비율(%)	100.0	0.0	0.0
	논술전형	응답인원(명)	5	0	0
		응답비율(%)	100.0	0.0	0.0

8) 출제 문항 사전 공개 원칙의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에 '전혀 없다'는 응답이 100%

설문문항	구분	응답현황	전혀 없음	다소 있음	상당히 높음
출제 문항 사전 공개 원칙의 개선사항	참인재전형	응답인원(명)	5	0	0
		응답비율(%)	100.0	0.0	0.0
	논술전형	응답인원(명)	5	0	0
		응답비율(%)	100.0	0.0	0.0

9) 전형 운영 시기의 개선사항에 대한 설문에 '전혀 없다'는 응답이 대부분 ("다소있음" 응답은 면접일이 긴 연휴 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정 제의)

설문문항	구분	응답현황	전혀 없음	다소 있음	상당히 높음
전형 운영 시기의 개선사항	참인재전형	응답인원(명)	4	1	0
		응답비율(%)	80.0	20.0	0.0
	논술전형	응답인원(명)	5	0	0
		응답비율(%)	100.0	0.0	0.0

10) 선행학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내부·외부평가위원이 작성한 종합의견 내용은 아래와 같음

내부외부평가위원 작성 의견 - ①면접(참인재전형) 관련

- ▶ (내부위원 유○○) 특정한 교과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항이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전공 적합성을 묻는 형태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이나 범위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모집단위별 점수를 5점을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보이는 4.32점이라는 결과는 지난해 대비 상승한 것이며 모집단위별로도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어, 출제 문항의 난이도나 범위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난이도에 대해서는 중립적 응답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부정 응답보다는 긍정 응답이 높은 비중을 보인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해당 전형에 대해서는 학교 선생님의 지도와 학생 스스로 준비한 경우, 그리고 우리 대학의 자료를 통해서 공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집계되었다. 사교육이 해당 전형을 준비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2025년의 경우 전형일이 긴 연휴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 혹여 미응시 이탈자가 있을 우려가 있다. 숙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내부위원 윤○○) 문제 유형이나 수준이 고등학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쉽게 답할 수 있는 형태임
- ▶ (외부위원 유○○) 면접일 이전에 면접 문항을 사전 공개하는 것이 면접 대비에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98.5%나 되고, 면접고사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이나 범위에 적절했다는 응답이 90.9%이면서 적절성 판단도 5점 만점에 4.32점이 된다는 설문조사 결과로도 알 수 있듯이 한신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면접고사 문항은 대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출제에 있어서도 매우 적절했다고 사료됨. 더불어 사교육을 유발시킬 요인도 없었던 출제였다고 사료됨.
- ▶ (외부위원 한○○) 참인재 종합전형에 대한 설문조사 문항 중 면접 문항의 사전 공개가 면접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한 학생이 98.5%였고, 면접고사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준비 및 한신대 홈페이지 자료 참고 비율이 70.3%이고 사교육 도움은 4.6%에 불과했다. 또한 면접 문항의 공통 문제가 학교생활을 기반으로 대답하면 되는 질문이고, 각 학과들의 전공적성분야 질문 역시 한신대학교 홈페이지 학과 소개 자료를 살펴보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한 학생이라면 큰 문제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도 90.9% 정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주라고 응답 한 것으로 보아 사교육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 ▶ (외부위원 최○○) 인성 및 기초소양과 전공적합성 영역을 구분하여 사전에 각 영역에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는 적절한 수준의 문항을 공개했으며 특히, 검정고시 출신을 배려한 기초소양 문제까지 공개해 정상적인 고등학교 과정과 이해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사교육의 유발 요인 없이 답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 됨. 신입생 77%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사전 공개가 면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99%로 **면접 문항의 사전공개는 학생들의 부담감을 덜어 주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사료됨.** 면접 문항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이나 범위에 적절한지에 대한 응답의 환산점수가 4.32(5점 만점)으로 매우 높고 **모집 단위별로도 고르게 점수 분포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면접 문항이 매우 적절해 했다고 판단됨**

내부외부평가위원 작성 의견 - ②논술전형 관련

- ▶ (내부위원 유○○) 출제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에 적절했는지에 대한 응답에 그렇다는 응답이 국어와 수학에서 각각 88.8%, 82.8%로 집계되었다. **고교 교사의 검토와 자문을 통한 검증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난이도와 관련해서는 국어와 수학 모두 '쉬웠다'와 '매우 쉬웠다'에 해당하는 긍정 응답이 50%를 넘었고, '어려웠다'와 '매우 어려웠다'에 해당하는 부정 응답은 10%를 전후한 것으로 집계된 바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논술고사를 준비하면서 사교육의 도움을 받은 비율보다는 스스로 준비하거나 우리 대학에서 제공한 자료를 통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환경만으로도 충분히 준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 입시 결과 및 기출문제 등을 공개하는 것이 전형에 지원하도록 하는 주요한 요인인 만큼 **이같은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 ▶ (내부위원 윤○○) 국어, 수학 논술 문항이 고등학교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응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행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모두 출제됨**
- ▶ (외부위원 유○○) 2024학년도에 처음 도입하여 2025학년도에 두 번째로 시행한 한신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약식 논술로 출제 범위가 국어 영역은 '문학과 독서', 수학 영역은 '수학 I 과 수학 II'로 **교육과정의 일반선택과목과 수능시험의 공통과목에 해당하여 수험생들이 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이 없었을 것으로 사료됨.** 이는 설문조사에서 논술고사 시험이 충분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국어 영역 86.2%, 수학 영역 79.5%이었던 것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적절하게 출제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국어 영역 88.8%, 수학 영역 88.2%이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이에 2025학년도 한신대 논술고사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적절하게 출제되어 사교육을 유발시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다만, 난이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보통이거나 어려웠다는 응답이 국어 영역은 46.8%(2024학년도 56.4%), 수학 영역은 41.5%(2024학년도 42.6%)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난이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특히 국어 영역의 난이도를 보통이거나 어려웠다는 응답이 40% 이하가 되도록 조절했으면 함.
- ▶ (외부위원 한○○) 논술전형에 대한 설문조사 문항 중 모의고사 문제와 기출문제 공개가 논술고사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대답이 70.3%를 차지하였고, 논술고사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이나 범위에 적절한지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국어 86.2%, 수학 79.5%였다. 더불어 논술고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 적절성 판단 5점 척도 결과 국어 4.26, 수학 4.24로 매우 높았다. 또한 논술고사를 스스로 준비한 비율이 31.3%, 한신대 홈페이지의 자료 활용 비율이 21%로 높았고, 난이도 역시 '매우 쉬웠다', '쉬웠다', '보통이다' 라고 대답한 학생이 국어는 88.3%, 수학은 90.8%를 차지하였다. 또한 **전체적으로 논술 문항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내용 범위를 준수하고 있으며 그 난이도 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소화한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선행학습을 하거나 사교육을 받아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됨.**
- ▶ (외부위원 최○○) 논술 전형의 각 문항의 구성이 범위 내에서 적절한 구성과 난이도로 교과별 성취기준을 준수한 **변별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됨.** 설문조사 결과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이나 범위에 적절하다고 묻는 질문에 5점 척도 환산 점수 분석 결과 국어와 수학 모두 4.2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문항이 교육과정을 준수했음을 알 수 있음.** 논술 준비 과정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대학에서 제공한 모의 논술과 기출문제 공개 결과가 도움이 되었다 분석 결과를 볼 때 **유의미한 서비스 제공으로 차후에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V 차년도 입학전형 반영 및 개선 계획

1. 출제 및 검토 개선

- 1) 출제본부 내 문항카드 검증 완료 노력
- 2) 출제위원의 고교 교육과정 및 출제근거(성취기준)에 대한 숙지 및 이해 노력
- 3) 선행학습영향평가 지침 준수 노력 (매년 개정된 보고서 양식 작성 준수)

2. 출제 후 점검 강화

- 1) 문항별 난이도 검증 강화(계열 간 유불리 파악)
- 2) 출제 과목에 대한 편중 현상 검증
- 3) 신입생 설문조사(논술, 면접) 참여 독려로, 응답율 상승 및 신뢰성 확보 노력

3. 2026학년도 입학전형 반영 및 개선 계획 ⇒ **논술 및 면접 전형의 변화**

수험생들에게 입시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26학년도 입학전형을 개선하고, 각 전형(특히, 논술 및 면접)의 특징에 맞춰 다양한 수험생들이 자신의 강점을 잘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전형을 설계하고 보완함. (단, 학제 개편 또는 대교협 심의 결과 등에 의해 모집단위, 모집인원, 전형방법, 지원자격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추후 수시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①	주요 변경사항 ②	주요 변경사항 ③
수시모집 비중 확대	논술전형 교과 비중 축소	참인재전형 면접 비중 확대

- [표1] 모집 비율 조정

변경전(2025학년도)	변경후(2026학년도)	비고
수시모집 : 88.8% 정시모집 : 11.2%	수시모집 : 89.9% 정시모집 : 10.1%	수시모집 비중 확대

- [표2] 논술 전형 방법 변경

변경전(2025학년도)	변경후(2026학년도)	비고
논술고사 60% + 학생부(교과) 40%	논술고사 80% + 학생부(교과) 20%	논술 비중 확대 교과 비중 축소

- [표3] 참인재 전형 방법 변경

변경전(2025학년도)	변경후(2026학년도)	비고
서류평가 70% + 면접 30% (서류 : 학생부교과, 비교과)	학생부(교과) 60% + 면접 40% (학생부교과 : 교과90%+출석10%)	전형유형 변경(종합▶교과) 면접 비중 확대

1. 2025학년도 논술고사 문제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시험문제**[1교시 10:00 - 11:20]****[2교시 14:30 - 15:50]**

성명		수험번호			2	7	0	1	1				
-----------	--	-------------	--	--	----------	----------	----------	----------	----------	--	--	--	--

수험생 유의 사항

- 문제지는 총 14페이지입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지에 성명 및 수험번호를 검정색 필기구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는 검정색 볼펜만 사용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절대 교체할 수 없습니다.
- 답안지에는 수정액,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답안 수정 시 두 줄로 긋고 다시 작성합니다.
-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 작성을 할 수 없으며, 감독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부정 행위자로 간주하여 시험 결과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됩니다.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글로벌 평화 리더 양성

한신대학교

국어영역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세기 조선은 대내적으로 주자학의 사상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도덕 국가 이념이, 대외적으로는 중국 중심의 문화 의식에 의거하여 서구의 음침하고 해로운 기운으로부터 조선을 지켜야 한다는 위정척사(衛正斥邪) 사상에 입각한 쇄국 정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주자학에 입각한 당시 유림들이 중심이 된 위정척사론자들은 서구의 과학 기술 수용을 비판하였다. 위정척사론자들의 사상적 기반을 제시하였던 이항로(1792~1868)는 과학 기술 수용에 대해 강경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성리학적 세계관을 토대로 한 이기론을 바탕으로 강상 윤리*를 모르는 사학(邪學)*을 배척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리(理)를 중시하는 입장을 견지하여 리가 기(氣)에 대해 명령하는 상명하복의 위계적 질서가 잘 유지되어야 선(善)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서구의 과학 기술은 리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에 해당하는 현상에 천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고, 이는 제거해야 할 대상인 인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흐를 위험이 다분했다. 이에 따라 이항로는 이들과 더불어 화친(和親)을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조선의 현실 문제를 인식하고, 인류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였던 박은식(1859~1925)은 러시아와 일본을 비롯한 주위 제국주의 열강들의 한반도 쟁탈전이 더욱 노골화되던 20세기를, 세력이 우월한 나라가 열등한 나라에 대포와 거함을 선봉으로 삼아 밀어닥치는 시기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해 세력이 열세인 나라는 자신의 나라를 식민지로 바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여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청년이라면 마땅히 과학 기술에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은식은 과학적 실용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으므로 과학 기술이 학문의 중심에 있어야 하며 과학 기술에 대한 연구가 가장 시급한 공부임을 인정하였다. 그는 과학 기술을 풍요와 발전의 원천으로 이해하였으며, 문명 진화의 핵심이 과학 기술의 진화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객관적 사물에 대한 초경험적이고 추상적인 연구보다는 경험과 실증을 진리 탐구의 방법으로 제시하여 감각 작용과 실험 실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도 박은식은 과학 기술이 제국주의의 침략과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고 맹목적인 서구화는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를 경계하기 위해 인격을 수양할 철학이 필요하며 이는 과학 기술처럼 서구의 것을 가져와 수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중심으로 주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같은 그의 입장은 서구의 과학 기술을 수용하되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를 지키자는 동도서기(東道西器)론적 입장과 닮아 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주자학이 아닌 양명학이었다. 그는 밀려 들어오는 서구의 문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민중적인 이론 체계가 필요하며 그것이 양명학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주자학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행동할 수 있는 '간이직절(簡易直截)함'을 결여했다고 비판하였다. 양명학의 입장에서 주체성을 지키는 방편으로 그가 주목한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양지(良知)*였다. 그는 양지를, 끊임없이 흐르면서 현실의 문제와 조우하고 그러한 문제 속에서 항상 막히지 않는 앎이라고 생각했다. 즉 양지는 고정된 앎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여 현실과 현상에 따라 옳은 일을 추구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과학 기술에 대한 수용 역시 양지를 중심으로 한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식은 양지를 실현하여 대인(大人)이 되면 자신의 마음과 모든 사물 및 타자를 하나로 여기는 만물 일체의 단계로 이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양지가 타인에게까지 미침으로써, 도덕성이 타자에게까지 발현되는 것이다. 박은식은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민족은 물론 인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동(大同)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양명학을 중심으로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강상 윤리(綱常倫理): 유교 문화에서 사람이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사학(邪學): 조선 시대에, 주자학에 반대되거나 위배되는 학문을 이르는 말.

*양지(良知): 양명학에서 말하는 정신, 마음의 본체, 주체성, 타고난 지혜 등을 아우르는 개념.

1. <보기>는 이항로와 박은식의 대비되는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

— <보 기> —

구분	이항로	박은식
사상의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자학, 성리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명학
세계 인식 및 서구에 대한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화 중심의 사유 • 서구에 대한 쇄국 •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대화된 서구(제국주의)에 대한 인지 • 조건적 수용 • 동도서기
(②)에 대한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학(邪學) • 현상을 중요시하는 학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문의 중심이자 시급한 연구의 대상 • 경험과 실증을 중요시하는 학문
결론적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구와 화친을 논할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성을 지니고 서구 문물을 수용해야 한다.

2. <보기>는 박은식과 관련된 기록이다. <보기>의 ①에 대한 박은식의 직접적인 비판이 무엇인지 윗글에서 찾아 15자 이내로 쓰시오(단, 띄어쓰기로 인한 빈칸은 글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 <보 기> —

박은식은 청년기에 주자(朱子)를 큰 스승이자 성인(聖人)으로 생각해 그의 학문적 세계를 따라 수학하였다. 그러나 박은식은 후에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면서, 학문적 방향을 바꾸어 양명학을 수용하였다. 그러면서 조국의 현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했다. “세계의 바람과 조수는 이같이 흘러넘치고 학계의 빛나는 흐름이 저같이 발달하는데, ①옛 학문을 지키는 것을 숭상하여 새로운 변화를 막고 거부하더니, 마침내 결과가 여기에 이르렀다. 이는 그 해로움이 진시황(秦始皇)의 분서갱유(焚書坑儒)보다 더욱 심하다. ‘학술로써 천하를 죽였다.’라는 육象山(陸象山)의 말이 바로 이를 뜻함이 아니겠는가?”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선의 궁중에서 거행하던 의식에는 정재*가 수반되어야 했는데, 조선의 개국 초에는 의식에 걸맞는 정재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세종 대왕이 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제작한 정재 중 하나가 <봉래의>이다. <봉래의>는 조선조 최대의 가·무·악이 어우러진 종합 예술 작품으로, 「용비어천가」의 일부를 노랫말로 삼아 관현악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구성이었다.

<봉래의>는 ‘전인자’,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 ‘후인자’로 구성되어 있다. 전인자는 <봉래의>의 시작을 알리고 후인자는 <봉래의>의 마침을 알리는 관현악곡이다. <봉래의>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인데, 각각 서두, 본론, 돌장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이 세 악곡은 여민락, 취화평, 취풍형의 순서대로 연행되며, 좌우로 배열된 악공 및 의물*을 든 사람, 그리고 연향에 참여한 모든 기녀가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무용수들도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봉래의>의 노랫말인 「용비어천가」는 모두 125장으로 이루어진 서사시로, 처음부터 궁중 연향에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다. 「용비어천가」의 내용은 조상의 업적 가운데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사항만을 부각하여 조선 왕조 창업의 당위성을 제시한 1~16장, 왕조 창업이 마땅하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17~109장, 후대 왕이 지켜야 할 도리를 담고 있는 110~125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용비어천가」 125장 전체를 한자리에서 연주하기 어렵다는 제약 때문에 <봉래의>에서는 이 중 일부 악장만 선택하여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에 사용하였는데, 치화평과 취풍형에서는 국문 가사로, 여민락에서는 한문 가사로 불렀다. 각 악곡의 서두는 춤 없이 노래만 부르고, 본론은 무용수들이 각각 대형을 갖추고 춤을 추며 노래 부르고, 돌장에서는 무용수들이 춤을 추던 대형에서 다음 대형으로 이동하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봉래의>의 춤은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에 따라 한 가지 대형으로 춘다. 여민락은 대형을 형성하여 2명이 마주 보며 춤을 추고, 치화평은 동서남북에 무용수 2명이 각각 서 있고 무용수 2명이 차례로 돌아가며 북쪽에서 춤을 추고, 취풍형은 2명이 마주 보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늘어선 대형을 형성하여 춤을 춘다.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 모두 각각의 대형에서 무용수들이 북쪽을 향하여 춤추는 북향무, 서로 마주 보고 춤추는 대무, 서로 등을 향해 서서 춤추는 배무 등의 춤을 공통으로 추고, 각 대형으로의 전환은 무용수 전원이 원을 그리며 돌면서 춤추는 회무로 한다.

세종 대왕은 <봉래의>에 자신의 정치적 염원과 예술적 이상을 담았다. 「용비어천가」는 조선이 천명으로 건국되었으며 영속되어야 할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세종 대왕은 그 주제를 후대의 임금을 비롯해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가·무·악이 어우러진 <봉래의>를 제작한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봉래의>는 공사(公私) 연향, 조참*, 출궁이나 환궁할 때, 왕이 중국 황제의 조서나 칙서를 받으러 가고 올 때 등에 연행되었는데, 이때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 중 일부만 연행되기도 하였다. 세종 대왕 이후에도 <봉래의>는 궁중의 의례에서 연행되다가 중단되었고, 근대에 이르러 복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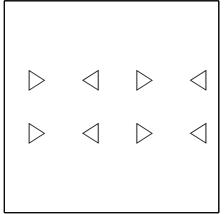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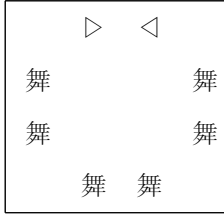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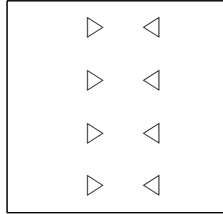
*정재: 고려와 조선의 궁중에서 공연되었던 기악, 노래, 춤이 어우러진 종합 예술.

*의물: 의식에서 상하를 구별하고,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쓰는 여러 가지 물건을 이르던 말.

*조참: 중앙에 있는 문무백관이 한 달에 네 번 정전(正殿)에 모여 임금에게 문안을 드리고 정사(政事)를 아뢰던 일.

3. 윗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도식화했을 때, ①에 해당하는 <봉래의>의 세부 구성과, ②에 해당하는 춤이 무엇인지 윗글에서 단어를 찾아 각각 쓰시오.

<보 기>

연행 순서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
세부 구성	서두	춤 없이 노래만 부름.		
	본론	무용수들이 대형을 갖추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름.		
	(①)	무용수들이 다음 대형으로 바뀌면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름.		
춤 대형				
「용비어천가」의 노랫말		한문	국문	

*▷◁: 무용수 2명이 마주 보고 서 있는 것을 의미함.
 *舞: 무용수.

4. <봉래의>와 「용비어천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용비어천가」의 주제적 특성을 설명한 문장을 윗글에서 찾아 첫 어절과 끝 어절을 각각 쓰시오.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흔히 애덤 스미스를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사유 재산과 기업의 자유를 옹호하는 자유방임론자라고 하나 그는 결코 당대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이를 찬미하는 소극적 자유방임론자가 아니었다. 공정성을 담보한 규율과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질서의 내용으로 독점의 철폐와 경쟁의 확립을 들었다. 그는 현실을 그대로 두면 독점과 노사 간 교섭력의 차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하였고, 독점을 줄이고 노사 간 교섭을 균등하게 하여 경쟁적 시장조건, 즉 자유방임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것을 강조하였다. 애덤 스미스는 이러한 조건의 성립을 전제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유방임을 주장하였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당시의 노동 시장에 대한 그의 견해에도 잘 나타난다.

애덤 스미스의 노동 시장론은 노동 시장이 경쟁적 시장이 되기 어렵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는 『국부론』에서 노동 시장에서 노사 간 교섭상 지위에는 구조적으로 비대등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노동 시장이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교섭상 지위가 대등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용자의 단결이 노동자의 단결보다 쉽기 때문에 교섭상 지위의 비대등성이 커져 노동 시장이 경쟁적 시장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경쟁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 조건이 열악해지는 것이다. 교섭상 지위의 비대등성이 존재하는 경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자의 단결은 노동 시장의 경쟁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결국 애덤 스미스의 관점에서 볼 때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는 노동자의 단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이 경쟁 촉진적인 면이 있었다.

산업화 초기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에서는 과잉 노동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임금의 수준은 최저 생계비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었다. 이 시기에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법이 필요했다. 애덤 스미스는 노동 시장에서 나타나는 교섭상 지위의 구조적 비대등성은 노동자들이 단결하여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제 성장을 통한 노동 수요의 지속적 확대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국민 경제가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의 단계로 들어가면 노동력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노동법의 시대는 끝나게 되고, 노동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산업 생산에 비해 노동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노동 시장의 여건이 사용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게 된 것이다. 노동자들 사이의 구직 경쟁 못지않게 사용자들 간의 구인 경쟁이 나타남으로써, 즉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에서 벗어나 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로 넘어감으로써, 노사 간의 교섭력이 대등해지기 시작했다. 또한 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에서는 임금의 변화율이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보다 더 커지게 되어 임금 탄력성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이란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을 임금의 변화율로 나눈 것이다. 보통 이 값이 0에서 1 사이일 때는 비탄력적이라고 하고,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한다. 탄력성이 무한대인 상태는 완전 탄력적이라고 한다.

5.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애덤 스미스의 견해를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①, ②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

————— <보 기> —————

애덤 스미스는 노사 간 교섭력의 균등함이 자유방임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노사 간 교섭 지위에는 구조적 (①)이/가 존재했다. 따라서 대등하지 못한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단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노동자가 단결한다고 해서 관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의 교섭권이 고용자의 교섭권과 대등해지기 위해서는 노동이 필요로 하는 시장이 계속해서 커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화와 관련하여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 등을 포괄하는 (②)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6. 윗글 ㉠의 결과로 노동자와 사용자의 교섭에서 ‘① 노동자의 지위’와 ‘② 임금 탄력성’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각각 <보기 1>, <보기 2>에서 찾아 쓰시오.

————— <보 기 1> —————

낮아진다, 변화 없다, 높아진다

————— <보 기 2> —————

완전 탄력적이 된다, 탄력적이 된다, 비탄력적이 된다

① 노동자의 지위: _____

② 임금 탄력성: _____

[7~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4·19가 나던 해 세밑* / 우리는 오후 다섯 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하얀 입김 뿜으며 /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리라 믿었던 것이다 /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
혜화동 로터리에서 대포*를 마시며 /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 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 /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흥내 낼 수 없는 노래를 /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다 /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되어 /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넥타이를 매고 다시 모였다 / 회비를 만 원씩 걷고
처자식들의 안부를 나누고 / 월급이 얼마인가 서로 물었다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며 /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 아무도 이전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적잖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졌다
몇이서는 포커를 하러 갔고 / 몇이서는 춤을 추러 갔고
몇이서는 허전하게 동송동 길을 걸었다 / 돌돌 말은 달력을 소중하게 옆에 끼고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온 곳 /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낯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고 /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아직도 남아 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며 /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부끄럽지 않은가 / 부끄럽지 않은가
바람의 속삭임 귓전으로 흘리며 / 우리는 짐짓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또 한 발짝 깊숙이 늙으로 발을 옮겼다

- 김광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세밑: 한 해의 마지막 때.

*대포: 술을 별 안주 없이 큰 그릇으로 마시는 일.

(나)

1964년 겨울을 서울에서 지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밤이 되면 거리에 나타나는 선술집—오뎅과 군참새와 세 가지 종류의 술 등을 팔고 있고, 얼어붙은 거리를 휩쓸며 부는 차가운 바람이 펄럭거리게 하는 포장을 들치고 안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서면 카바이트 불의 길쭉한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 염색한 군용 잠바를 입고 있는 중년 사내가 술을 따르고 안주를 구워 주고 있는 그러한 선술집에서,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우연히 만났다. 우리 세 사람이란 나와 도수 높은 안경을 쓴 안(安)이라는 대학원 학생과 정체는 알 수 없지만, 요컨대 가난뱅이라는 것만은 분명하여 그의 정체를 알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도 나지 않는 서른대여섯 살짜리 사내를 말한다.

먼저 말을 주고받게 된 것은 나와 대학원생이었는데, 뭐 그렇고 그런 자기소개가 서로 끝났을 때는 나는 그가 안씨라는 성을 가진 스물다섯 살짜리 대한민국 청년, 대학 구경을 해 보지 못한 나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전공을 가진 대학원생, 부잣집 장남이라는 걸 알았고, 그는 내가 스물다섯 살짜리 시골 출신, 고등학교는 나오고 육군 사관 학교를 지원했다가 실패하고 나서 군대에 갔다가 임질에 한

번 걸려 본 적이 있고 지금은 구청 병사계(兵事係)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이다.

자기소개들은 끝났지만 그러고 나서는 서로 할 얘기가 없었다. 잠시 동안은 조용히 술만 마셨는데 나는 새카맣게 구워진 군참새를 집을 때 할 말이 생겼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군참새에게 감사하고 나서 얘기를 시작했다.

[A “안 형,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 “아니오, 아직까진…….” 그가 말했다. “김 형은 파리를 사랑하세요?”

“예.”라고 나는 대답했다. “날 수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날 수 있는 것으로서 동시에 내 손에 붙잡힐 수 있는 것이니까요. 날 수 있는 것으로서 손안에 잡아 본 적이 있으세요?”

“가만 계셔 보세요.” 그는 안경 속에서 나를 멀거니 바라보며 잠시 동안 표정을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없어요, 나도 파리밖에는…….”

낮엔 이상스럽게도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길은 얼음이 녹아서 흙물로 가득했었는데 밤이 되면서부터 다시 기온이 내려가고 흙물은 우리의 발밑에서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다. 소가죽으로 지어진 내 검정 구두는 열고 있는 땅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찬 기운을 충분히 막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이런 술집이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한잔하고 싶은 생각이 든 사람이나 들어올 데지, 마시면서 곁에 선 사람과 무슨 얘기를 주고받을 만한 데는 되지 못하는 곳이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그 안경잡이가 때마침 나에게 기특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놈 그럴듯하다’고 생각되어 추위 때문에 저려 드는 내 발바닥에게 조금만 참으라고 부탁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화를 주고받던 ‘나’와 안은 외교원* 일을 하는 사내를 만난다. 사내는 ‘나’와 안에게 자신과 함께 있어 주기를 청하고, 세 사람은 중국집으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나눈다.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난 서적 월부 판매 외교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돈 사천 원을 주더군요. 난 두 분을 만나기 얼마 전까지도 세브란스 병원 울타리 곁에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누워 있을 시체실이 있는 건물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타리 곁에 앉아서 병원의 큰 굴뚝에서 나오는 희끄무레한 연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해부 실습하느라고 톱으로 머리를 가르고 칼로 배를 찢고 한단데 정말 그러겠지요?”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환이 단무지와 파가 담긴 접시를 갖다 놓고 나갔다.

“기분 나쁜 얘길 해서 미안합니다. 다만 누구에게라도 얘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의논해 보고 싶은데,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저녁에 다 써 버리고 싶은데요.”

“쓰십시오.” 안이 얼른 대답했다.

“이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함께 있어 주시겠어요?”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함께 있어 주십시오.”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승낙했다.

“멋있게 한번 써 봅시다.”라고 사내는 우리와 만난 후 처음으로 웃으면서 그러나 여전히 힘없는 음성으로 말했다.

중국집에서 거리로 나왔을 때는 우리는 모두 취해 있었고, 돈은 천 원이 없어졌고 사내는 한쪽 눈으로는 울고 다른 쪽 눈으로는 웃고 있었고, 안은 도망갈 궁리를 하기에다 지쳐 버렸다고 내게 말하고 있었고, 나는 “악센트 짙는 문제를 모두 틀려 버렸단 말야, 악센트 말야.”라고 중얼거리고 있었고, 거리는 영화 광고에서 본 식민지의 거리처럼 춥고 한산했고, 그러나 여전히 소주 광고는 부지런히, 약 광고는 게으름을 피우며 반짝이고 있었고, 전봇대의 아가씨는 ‘그저 그래요.’라고 웃고 있었다.

-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외교원(外交員): 은행이나 회사에서 교섭이나 권유, 선전, 판매를 위하여 고객을 방문하는 일이 주된 업무인 사원.

7. 윗글 (가)의 ㉠에 제시된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는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시적 화자가 현재의 삶을 반성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윗글 (가)의 시적 상황을 고려하여 그 이유를 10자 이내로 쓰시오(단, 띄어쓰기로 인한 빈칸은 글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8. <보기 1>은 윗글 (가)에 등장한 시어들이고, <보기 2>는 윗글 (나)를 해설하고 있는 글이다. <보기 2>의 ①의 모습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단어 하나를 윗글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 1>에서 찾아 쓰시오.

<보 기>
1)

겨울밤, 별뿔별, 기성세대, 넥타이, 월급, 포커, 달력, 늪

<보 기>
2)

이 작품은 4·19 혁명의 실패와 5·16 군사 정변 후 정치적, 사회적 부조리가 팽배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4·19 정신을 좌절시킨 군사 정부는 굴욕적인 외교를 거듭했고, 이에 항의하는 민주 인사들을 억압하였다. 또한 급격히 진행된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는 당대 시민들의 심리적 방황과 인간적 연대감의 상실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암울한 현실에서 사람들은 패배 의식, 무력감에 빠져 사회에 대한 짙은 회의를 나타냈다. 이는 ①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해지면서 내면적 교감이나 연대에 대한 당대의 시대적 요구가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9. <보기>는 윗글 (나)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①을 윗글 (나)의 [A]에서 찾아 첫 어절과 끝 어절을 각각 쓰시오.

<보 기>

김승옥의 소설에서 확인되는 사물 주어 구문들과, 특정 단어나 구절로 이어지는 문장의 연쇄 그리고 ①의인이나 활유를 활용해 자신의 몸을 타자화하는 문장들은, 단지 수사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조차 소외되는 현대 개인의 모습, 나아가 개인 간의 단절과 의사소통의 불능이라는 소설적 주제와도 연결된다.

수 학 영 역

10. 함수 $y = \log_{\frac{1}{4}} x$ 의 그래프를 x 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후, x 축의 방향으로 2만큼, y 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점 $(a, 2)$ 를 지날 때, 상수 a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11. $\int_0^3 x|x-2|dx$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12. 함수

$$f(x) = \begin{cases} \frac{x^3-1}{ax^2-a} & (x > 1) \\ \frac{3}{8} & (x \leq 1) \end{cases}$$

이 $x=1$ 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양수 a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13. 삼차함수 $f(x) = ax^3 + 3x^2 + 3ax + 1$ 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 의 최솟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14. 수열 $\{a_n\}$ 이 모든 자연수 n 에 대하여 $a_n + a_{n+8} = 5$ 를 만족시킨다.

$\sum_{n=1}^4 a_{2n} = 1$ 일 때, $\sum_{n=1}^{36} a_{2n}$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15. $-2 \leq x \leq 4$ 일 때, 방정식 $|\sin \pi x|^2 - \cos^2 \pi x = 0$ 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 시험문제

[1교시 10:00 - 11:20]

[2교시 14:30 - 15:50]

성명		수험번호			2	7	0	1	1		
----	--	------	--	--	---	---	---	---	---	--	--

수험생 유의 사항

- 문제지는 총 14페이지입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제지에 성명 및 수험번호를 검정색 필기구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답안지는 검정색 볼펜만 사용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절대 교체할 수 없습니다.
- 답안지에는 수정액,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답안 수정 시 두 줄로 긋고 다시 작성합니다.
-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 작성을 할 수 없으며, 감독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부정 행위자로 간주하여 시험 결과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됩니다.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는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글로벌 평화 리더 양성

한신대학교

국어 영역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타인으로부터 예금 계좌 대여나 예금 인출 심부름 제안을 받게 된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이스 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스 피싱 범죄에서는 대개 타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아 돈을 가로채는데 이때 타인 명의 예금 계좌를 사용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보이스 피싱 범죄자를 ‘갑(甲)’, 피해자를 ‘을(乙)’이라고 하고, ‘을’이 돈을 입금하는 계좌의 명의인을 ‘병(丙)’이라고 가정할 때, 첫 번째 방법은 ‘갑’이 ‘병’ 몰래 ‘병’ 명의의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병’이 개설한 예금 계좌를 ‘갑’이 빌려서 사용하는 예금 계좌 대여이다. ‘병’이 자신의 예금 통장과 도장을 ‘갑’에게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 예금 계좌 대여로 인정된다. 세 번째 방법은 ‘병’이 ‘갑’의 부탁을 받고 ‘병’ 자신의 예금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해서 ‘갑’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다. 이들 중 첫 번째 경우에는 ‘병’이 처벌될 가능성이 없지만 두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에는 ‘병’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그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하는데, 구성 요건이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미리 정해 둔 것을 뜻한다. 처벌 대상 행위는 미리 법률로 정해져야 하며 이것을 ‘죄형 법정주의’라고 한다. 보이스 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가로채는 행위는 형법에 규정된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예금 계좌의 대여나 개설과 관련한 구성 요건은 금융 실명제법에 규정되어 있다. 금융 실명제법에 의하면 타인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금융 실명제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예금 계좌의 명의인과 실제로 그 예금 계좌를 사용하여 금융 거래를 하는 사람이 일치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예금 계좌의 대여, 즉 ‘병’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 계좌를 ‘갑’에게 빌려주어 ‘갑’이 사용하게 하는 것도 독립된 구성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달리 예금 계좌의 명의인이 타인의 부탁을 받고 스스로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은 금융 실명제법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이런 행위가 타인의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이면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다. 형법에는 타인에게 범죄 행위를 하라고 부추긴 교사범이나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도와준 방조범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조문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교사범과 방조범을 통틀어 공범이라고 하고, 교사범이 부추긴 범죄나 방조범이 도와준 범죄를 저지른 자를 정범이라고 한다. 범죄 중에는 성질상 적어도 두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다. 이러한 범죄 유형 가운데 하나가 필요적 공범이다. 이 경우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은 모두 그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된다. 예를 들어 뇌물 수수 범죄에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뇌물을 받은 사람, 적어도 두 사람이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으므로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고, 그 두 사람은 모두 정범으로 처벌된다.

교사범은 범죄가 발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이미 범죄 행위를하기로 결심한 정범을 도와준 것에 불과한 방조범보다 더 나쁘다. 따라서 교사범은 정범과 같은 형벌을 받는 데 비해 방조범은 정범보다 가벼운 형벌을 받는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 실행이라는 요건 이외에도, 방조 행위와 방조의 고의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첫 번째 요건인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죄 행위를 하기 쉽게 해 주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범행 도구를 제공하는 등의 물질적 방조뿐 아니라 이미 범행을 결심한 정범을 격려하는 정신적 방조도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 요건인 ‘방조의 고의’는 두 가지 고의로 구성된다. 우선 정범이 저지르려고 하는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인 정범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방조범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라는 것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1. <보기>는 윗글의 ㉠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①은 다섯 음절, ②는 여섯 음절로 쓸 것).

— <보 기> —

㉠은 ‘갑’이 ‘병’에게서 ‘병’의 예금 계좌를 빌려 사용한 경우이므로 예금 계좌 대여 범죄에 해당한다. 예금 계좌 대여 범죄는 최소 두 명, 즉 계좌를 대여해 준 자와 대여받은 자가 존재하여야만 성립하므로 (①)에 해당하고, ‘병’은 정범으로 처벌받는다. 이때 ‘병’은 예금 계좌의 명의인과 예금 계좌의 사용자가 달라지게 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법률 중에서 (②)에 규정된 범죄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처벌될 수 있다.

2. <보기>는 어느 마을에서 일어난 절도 사건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

— <보 기> —

어느 마을의 곡식 창고에 돈이 될 만한 곡식이 가득 있는 것을 안 A는 B에게 이 정보를 주고 곡식 창고를 털도록 지시했다. A의 말을 들은 B는 곡식 창고를 털기로 결심하고, C의 도움을 얻어 곡식을 운반할 트럭을 구했다. 범행 당일 B는 곡식 창고의 곡식을 모두 훔치는 데 성공했다.

이 사건에서 B는 정범이고 A와 C는 공범인데, A는 B에게 절도를 부추긴 (①)이고, C는 B에게 절도한 곡식의 운반에 필요한 트럭을 제공하여 (②) 방조를 한 방조범이다.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남세균은 조류 중 지구상에 최초로 존재하였으며, 약 35억 년 전의 지층에서 화석으로 발견되었다. 남세균은 지구에서 햇빛을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 탄소를 산소와 영양분으로 만든 광합성 생물로, 산소가 거의 없던 과거 지구의 대기는 남세균으로 인해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었다. 남세균으로 만들어진 산소는 지구 대기 중에서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과 만나 오존을 형성하였고, 이렇게 만들어진 오존은 20~25km 상공에서 오존층을 형성하였다.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하면 산소 원자를 방출하는데, 산소 원자는 다른 산소 분자와 결합하면서 열을 방출한다. 즉 지구 대기 상층부에 형성된 오존층은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에게 해로울 수 있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동시에 지구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결국 남세균으로 인해 과거 지구 대기에 산소가 생겨나면서 산소가 필요한 호기성 생물이 탄생할 수 있었고, 오존층이 형성되어 지표면에 닿는 자외선이 약해지면서 물속이 아닌 육지에서도 생명체가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남세균은 지구상에서 오래전부터 존재한 만큼 환경 변화에 뛰어난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 일부 남세균은 대기 중의 질소를 유기 질소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질소 고정 능력이 있어, 양분이 되는 질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 또한 생존에 불리한 환경에서는 포자를 형성해 물속 퇴적층에 가라앉아 있다가, 생존에 좋은 환경이 되면 다시 포자가 발아하여 성장하기도 한다. 남세균은 세포 내에 공기 주머니를 갖고 있어 상하로 수직 이동을 하는데, 이를 통해 성장에 필요한 햇빛이나 양분이 많은 곳으로 이동한다.

(나)

녹조 현상은 강이나 호수에 남세균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물의 색깔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남세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영양물질과 수온 및 일사량, 물의 흐름이 있다.

도심에서 나오는 하수, 각종 농축산 시설 등에서 배출하는 폐수,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비료 등에는 질소나 인과 같은 여러 영양물질이 들어 있다. 이런 영양물질은 남세균의 증식에 필수적이며, 남세균이 영양물질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증식하게 되면 녹조 현상이 발생한다.

수온은 남세균의 성장을 좌우하는 요인이며, 햇빛은 남세균의 광합성을 위해 필수적 요소이다. 녹조 현상의 원인이 되는 남세균은 20~30℃의 수온에서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며,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잘 자란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온이 높아지고 일사량이 증가하는 여름철에 남세균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또한 물의 흐름이 약하거나 정체되어 있으면 남세균이 더 많이 증식할 수 있다. 물의 흐름이 빠르면 물 표면에 떠다니는 남세균이 하류로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한곳에서 대량으로 증식하기 어렵다. 수심이 깊고 흐름이 정체된 강이나 호수에서는 여름철에 성층 현상이 나타난다. 성층 현상이란 따뜻하고 밀도가 낮은 물이 위에 놓이고 차갑고 밀도가 높은 물이 아래에 놓여 밀도 차에 의해 수층이 분리되어 물이 수직으로 잘 이동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성층 현상이 일어나 물이 잘 섞이지 않으면 수면의 온도가 더욱 올라가게 되어 남세균이 성장하기 더 좋은 여건이 만들어진다.

남세균은 수생태계에서 생산자의 역할을 하지만, 남세균이 과다하게 증식하여 녹조 현상이 일어나면 수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남세균이 과다하게 증식하면 물속으로 들어가는 햇빛을 차단하여 물속의 수생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물속의 생물들이 산소 부족으로 폐사하기도 하고, 폐사한 생물들이 부패하면서 악취와 독소가 발생해 수생태계가 점점 파괴된다.

3. <보기>는 남세균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 (가)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

<보
기>

지구의 대기에 산소의 농도를 증가시킨 남세균은 호기성 생물을 탄생시켰다. 또한 남세균으로 인해 지구의 대기에 (①)이/가 형성되어 지표면에 닿는 자외선이 약해지면서 수중뿐 아니라 육지에서도 생명체가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남세균은 질소 고정 능력을 통해 질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생존에 필요한 환경이 악화될 경우 (②)을/를 형성하였다가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성장할 수 있으며, 공기 주머니를 통해 수직 이동을 하는 등 환경 변화에 뛰어난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

4. 윗글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 1>의 환경에 대해 <보기 2>와 같이 가정하였을 때, <보기 2>의 ①, ②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 (나)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

<보 기 1>

- A 강 주변에는 인구 밀집 지역이 없으며, 폐수 처리 시설이 미흡한 다수의 축산 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 B 호수 인근에는 과수 농원이 많아, 비가 오면 땅에 있는 질소나 인 등의 비료 성분이 B 호수로 유입된다.

<보 기 2>

- A 강 주변에 있는 축산 시설의 폐수 처리 장치를 개선한다면, 남세균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 수심이 깊은 A 강 하류에 댐을 만든다면, 날씨가 더운 계절에 (①) 현상이 발생하여 남세균이 잘 성장할 것이다.
- B 호수에 비가 내린 뒤에도 물의 온도, 물의 흐름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②)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민도식이 나서서 험악해진 분위기를 간신히 가라앉혔다.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한 건 처음부터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거야. 경영자 독단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가지고 결정했다는 인상을 대내외에 풍길 필요가 있었던 거야. 이제 길은 두 가지뿐야. 나머지 절반을 찾아서 마저 몸에 꿰든가, 아니면 기왕 우리 몸에 입혀진 절반을 아예 벗어 버리든가 각자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야. 저기 좀 보라고. 저 사람이 아까부터 우릴 비웃고 있어. 제복 얘기 앞으로는 그만하기로 하지.”

생산부 공원 복장을 한 사내가 엇비슷한 자세로 이쪽을 돌아다보며 야릇한 웃음을 입가에 물고 있었다. 그를 보더니 장상태가 화를 벌컥 내면서 큰 소리로 미스 윤을 불렀다.

“이봐, 저기 앉은 저 사람 내가 좀 보잔다구 전해!”

눈이 휘둥그레진 미스 윤이 종종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가기 전에 그쪽에서 자진해서 먼저 일어섰다. 그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장의 목소리가 컸던 것이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여전히 웃음기를 입에 문 얼굴이 장을 정면으로 상대했다.

“당신 뭐야? 뭘데 어제부터 남의 얘길 엿듣고 비웃지, 비웃길?”

“비웃음으로 보셨다면 용서하십시오. 엿듣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들릴 정도로 선생님들 말씀이 컸습니다. 말씀 내용이 동림 산업에 계신 분들 같아서 저도 모르게 관심이 컸나 봅니다.”

“오오라, 그리고 보니 당신도 동림 가족의 일원이 분명하군. 부서가 어디야?”

“생산부 제1 공장입니다. 거기서 잡역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 “권입니다.”

“이름이 권이다? 그럼 성까지 아주 짝을 채워 보게.” / “성이 권입니다.”

만만한 상대를 만난 장은 권 씨를 노리갯감으로 삼아 화풀이할 작정임을 분명히 하면서 동료들에게 은밀히 눈짓을 보냈다. 함께 놀이에 끼어들라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도식이 보기엔 첫눈에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참을성 좋게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것은 생산부 공원들이 본사의 사무직을 대할 때 일반적으로 갖는 비굴한 표정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적대감도 아닌 그것은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임이 분명했다. 두툼한 입술과 커다란 눈이 얼핏 눈에 띄는 특징이었다. 장상태하고 비교해서 둘이 서로 어금어금할* 정도로 작은 체구였다. 실제 나이는 장보다 두세 살쯤 위일 것 같은데 적어도 이삼십 년은 더 세상을 살아 냈을 법한 관록 같은 게 엿보이는 얼굴이었고, 그것이 교양이라는 것하고도 연결되어 잡역부라던 자기소개가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짜를 채우기 싫다 이거지? 좋았어. 그런데 자네가 하는 잡역일하고 무슨 상관인 거야? 우리 얘기에 이틀 동안이나 관심을 갖지?”

“물론 상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에선 작업 중에 팔이 뭉텅 잘려져 나간 사람이 있고 그 팔값을 찾아 주려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선 몸에 걸치는 옷 때문에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려는 분들도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장상태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리는 것 같았다. 장이 어물거리는 사이에 우기환이 나섰다. 우 역시 장처럼 권 씨의 나이를 전혀 셈해 주지 않는 말투였다.

“팔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옷도 중요해. 옷을 지키려는 건 다시 말해서 팔을 찾으려는 거나 마찬가지로 일이야. 팔이 옷에 우선한다 생각하고 우릴 비웃었다면 당신은 분명히 털털어진 사람이야.”

“그래서 다방에 앉아서 투쟁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지?”

우의 응원에 힘입어 전열을 가다듬고 난 장이 입꼬리를 비틀면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옷도 중요하고 팔도 중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을 찾으려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자세만큼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들한테 팔이 있듯이 옷은 우리들도 필요하니까요. 이제 또 들어가 봐야죠.”

팔과 옷을 한참 주고받던 권 씨가 장과 우를 향해 차례로 목례를 보낸 다음 핑하니 다방을 나가 버렸다.

[A
]

[중략 부분 줄거리] 회사 창업 기념일 행사를 앞두고 모든 직원들의 제복을 맞추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만, 민도식과 우기환 둘은 이를 거부하기로 의기투합한다. 이에 두 사람은 사장과 면담을 하게 되는데, 사장은 두 사람을 다독이면서 회사의 뜻에 따라 줄 것을 요구한다.

사장실로 들어서기 무섭게 권 씨는 민도식을 향해 눈자위를 하얗게 부릅떠 보였다. 우기환의 돌연한 행동에 초벌 놀랐던 도식은 권 씨의 험악한 표정에 재벌 놀라면서 엉거주춤 궁둥이를 들었다. 빨리 자리를 비켜 달라는 권 씨의 무언의 협박이 빗발치고 있었다.

“죄송해요, 사장님. 한사코 안 된다는데두 부득부득 우기면서 이 사람이…….”

뒤쫓아 들어온 여비서를 손짓으로 내보낸 다음 사장이 말했다. / “어서 오게, 권 군.”

자기보다 더 ㉠사정이 절박한 사람을 위해서 민도식은 사장실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잘 생각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게.”

도어가 채 닫히기 전에 사장의 꺾꺾한 목소리가 도식의 등 뒤에 따라붙는다.

“장 선생 집에 전화 걸었더니 부인이 받데요. 새로 맞춘 유니폼 입구 아침 일찍 출근했다구요.”

아내의 바가지 굵는 소리로 창업 기념일의 아침은 시작되었다. 체육 대회가 열리는 제1 공장까지 가자면 다른 날보다 더 일찍 나서야 되는데도 여전히 멍기적거리고만 있는 남편 곁에서 아내는 시종 근심스런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제복 때문에 총각 사원 하나가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을 아내는 믿지 않았다.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강제로 모가지가 잘린 거라고 굳게 믿었다.

“까짓것 난 필요 없어. 거기 아니면 밥 빌어먹을 데 없는 줄 알아? 세상엔 아직도 유니폼 안 입는 회사가 수두룩하단 말야!”

[B
]

거듭되는 재촉에 이렇게 큰소리로 대거리는 했지만 결국 민도식은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고 말았다.

시내를 멀리 벗어나서 교외에 널찍하게 자리 잡은 제1 공장 앞에 당도했을 때는 벌써 개회식이 시작된 뒤였다. 공장 정문 철책 너머로 검정 곤색 일색의 운동장을 넘어다보는 순간 민도식은 갑자기 숨이 턱 막혀 옴을 느꼈다. 새로 맞춘 제복으로 단장한 남녀 전 사원이 각 부서별로 군대처럼 질서 정연하게 도열해 서서 연단에 선 지휘자의 손끝을 우러러보며 사가(社歌)를 제창하기 직전의 예비 운동으로 목청을 가다듬는 헛기침들을 하고 있었다. 이윽고 공장 일대를 한바탕 들었다 놓는 우렁찬 노래가 터지기 시작했다. 노래 부르는 사원들 모두가 작당해서 지각한 사람을 야유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검정 곤색의 제복들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사복 차림으로 꿈무늬에 따라붙으려는 유일한 사람을 완강히 거부하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세상 전체가 온통 제복투성이인 가운데 저 혼자만 외톨리로 떨어져 있는 셈이었다. 자기 한 사람쯤 불참한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체육 대회 개회식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민도식을 무척 화나면서도 그지없이 외롭게 만들었다. 정문으로 들어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돌아서서 나오지도 못한 채 그는 일단 멈춘 자리에 불박여 버린 듯 언제까지고 움직일 줄을 몰랐다.

- 윤희길, 「날개 또는 수갑」

*어금어금하다: 표준어로는 '어금버금하다'. 서로 엇비슷하여 정도나 수준에 큰 차이가 없다.

5. 윗글의 ㉠에 나타난 ‘절박한 사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윗글의 [A]에 근거해서 10자 이내로 쓰시오(단, 띄어쓰기로 인한 빈칸은 글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6. <보기>는 윗글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의 [B]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

<보
기>

1970년대 국가 권력은 국가 발전의 명목으로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며 개인의 희생, 규율과 복종을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 권력은 정치적 정당성을 가장하여 국민을 획일화시키면서 통제하기 위한 각종 의례나 행사의 시행, 장발이나 미니스커트 단속, ‘공연 활동 정화’를 위한 공연윤리위원회 설치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를 동원하였다. 이런 제도적 장치들은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것은 물론, 국가 권력에 의한 개인의 통제를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었다. 소설은 제목을 통해 (①)을/를 ‘날개’에, (②)을/를 ‘수갑’에 비유하면서 1970년대의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수 학 영 역

7. $\log_9 a + \log_9 b = \frac{7}{2}$ 을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a, b 의 모든 순서쌍 (a, b) 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8. $\lim_{x \rightarrow 3} \frac{\sqrt{2x-a} - x}{x-3} = b$ 일 때, 두 상수 a, b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9. 등차수열 $\{a_n\}$ 이 $a_1 = 36$ 이고 $|a_{10}| = |a_{28}|$ 일 때, $a_m = -10$ 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m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10. 0이 아닌 상수 a 에 대하여 함수 $f(x)$ 가 다음과 같다.

$$f(x) = \begin{cases} x & (x > 0) \\ x+a & (x \leq 0) \end{c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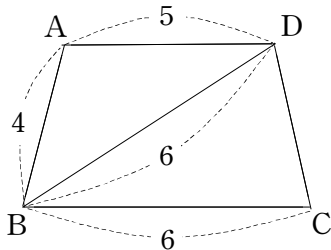
함수 $g(x) = \{f(x)-1\} \{f(x)+2\}$ 가 $x=0$ 에서 연속일 때, a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11. 다항함수 $f(x)$ 가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lim_{h \rightarrow 0} \frac{f(x-2h) - f(x)}{h} = 4x^2 + ax$$

를 만족시킨다. $f'(1) = 0$ 이고 $f(3) = -8$ 일 때, 함수 $f(x)$ 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단, a 는 상수)

12. 그림과 같이 $\overline{AB} = 4$, $\overline{AD} = 5$, $\overline{BD} = \overline{BC} = 6$ 인 사다리꼴 $ABCD$ 가 있다.



다음은 사다리꼴 $ABCD$ 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다. (가), (나), (다), (라), (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삼각형 ABD 에서 $\angle ADB = \theta$ 라 하면, 삼각형 ABD 에서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cos\theta = \boxed{\text{(가)}}$ 이므로, $\sin\theta = \boxed{\text{(나)}}$ 이다.

따라서 삼각형 ABD 의 넓이는 $\boxed{\text{(다)}}$ 이다.

사각형 $ABCD$ 가 사다리꼴이므로 $\angle DBC = \theta$ 이고 삼각형 BCD 의 넓이는 $\boxed{\text{(라)}}$ 이다.

따라서 사다리꼴 $ABCD$ 의 넓이는 $\boxed{\text{(마)}}$ 이다.

13. 다항함수 $f(x)$ 가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int_1^x tf(t)dt = x^3 + ax^2 + bx$$

를 만족시킬 때, $f(b)$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단, a, b 는 상수이다.)

14.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삼차함수 $f(x)$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 (가) $f(-1) = 0$ 이고 함수 $|f(x)|$ 는 $x = a$ ($a \neq -1$)에서만 미분가능하지 않다. (단, a 는 상수)
(나) 함수 $f(x)$ 의 극솟값은 -4 이다.

함수 $f(x)$ 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15. 함수 $f(x) = x^3 + x - 1$ 의 역함수를 $g(x)$ 라 하자.

두 곡선 $y = f(x)$, $y = g(x)$ 와 두 직선 $x = -1$, $y = -1$ 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2. 2025학년도 참인재전형 면접문제

기초소양분야	
공 통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말해보시오. ※검정고시 출신자는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준하는 기간의 경험과 활동을 통해 느낀 점을 말해보시오.
전공적성분야	
자유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자유전공학부의 특성이 자신의 진로와 미래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시오.
신학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인류사회에 신학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그것이 자신의 비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혀주세요.
철학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문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범지구적 감염병의 영향으로 학교와 직장도 비대면 수업과 업무수행이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비대면사회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장점을 발전시키고 단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 보시오.
독일어문화학	독일어문화학에 입학 후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대학생활 계획에 대해 말해주세요.
영미문화학	영미문화학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으며, 배운 내용이 자신의 꿈 실현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조리 있게 말해 보세요.
문예창작학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을 한 권 고르고 그 이유를 말해 보시오.
한국어문학	한국 문학 작품을 통해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할 때 어떤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십시오.
한국사학	한국사학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한국사학이 어떤 학문이며 자기 자신과 우리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말해보시오.
중국어문화콘텐츠학	중국어 배우려는 이유와 우리 전공 졸업 후 이를 자신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오.
디지털영상문화콘텐츠학	디지털영상문화콘텐츠학전공에서 무엇을 배우기를 기대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그런 배움으로 쌓은 전문성을 졸업 후에 어떻게 발휘하고 싶은지 미래 비전을 이야기해 보시오.
일본학	2024년 7월 유네스코는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했는데, 강제동원의 인정 여부를 놓고 한국의 정치권은 양분되었습니다. 외교부는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야당은 “역사를 망각한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도광산 전시실의 전시 내용을 둘러싸고, 한국 내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로 빚어진 제반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보시오.
동아시아통상학	동아시아통상학 전공을 지원하게 된 이유와 동아시아 통상 전공에서 배우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경제금융학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란이 분분합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기술해보시오.

전공적성분야

국제관계학	이른바 “건국절”, “뉴라이트” 인사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그리고 일제하 조선인 국적문제 등 우리 사회에서 친일파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는데 이의 해결방안은?
공공인재 빅데이터 융합학	공공정책에서 시와 빅데이터의 중요성과 활용사례에 대해 말해보시오.
경영학	좋은 기업이란 어떤 기업인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IT경영학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생성형 AI, Big Data, Cloud computing 등의 핵심기술이 주요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업경영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활용된 사례를 제시하고, 기업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하세요. 또한 학생 본인은 IT경영학을 전공하면서 사회진출을 위한 개인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설명하시오.
글로벌 비즈니스학	글로벌비즈니스학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ESG 경영에 대하여 설명해보시오.
미디어영상 광고홍보학	지원하는 전공 분야에 적합한 본인의 자질과 강점에 대해 말해보시오.
사회학	우리 사회에는 남녀 갈등, 빈부갈등, 세대갈등, 지역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어느 갈등이 가장 먼저 해소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방법 등을 제시하시오.
사회복지학	우리나라는 국민의 사회보장을 위해 다양한 복지제도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복지사각지대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복지사각지대와 관련 있는 사건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 보시오.
재활상담학	“재활상담학 전공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재활상담학 전공 졸업 후 이루고 싶은 진로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본인의 준비나 계획”을 말해보시오.
심리·아동학	현대사회에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 생각하며, 그것에 대해 심리학자 또는 아동학자로서의 해답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말해보시오.
금융공학	금융공학을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하고, 다음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금융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빅데이터 융합학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서로 융합되고 있고 실제 여러 기업과 정부에서 이렇게 융합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마케팅 또는 정부 정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빅데이터융합 활용 사례를 한 가지 말해보시오.
AI·SW학	소프트웨어,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데이터사이언스, 인공지능(AI), XR콘텐츠, 디지털 라이프케어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한 후, (1) 선택한 분야에 대해 기본 개념을 간략히 설명하고, (2) 선택한 분야가 앞으로 우리 현실세계에 어떻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3) 그리고 AI·SW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연구/개발되어야 하는 기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답해보시오.
시스템 반도체학	Si반도체가 가져올 산업 혁신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3. 2025학년도 논술고사 문항카드

[한신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 계열(국어) / 1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고등학교 독서 과목
	핵심개념 및 용어	이항로, 박은식, 주자학, 양명학, 위정척사, 동도서기, 과학 기술
예상 소요 시간	4분	

2. 문항 및 자료

<지문>

19세기 조선은 대내적으로 주자학의 사상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도덕 국가 이념이, 대외적으로는 중국 중심의 문화 의식에 의거하여 서구의 음침하고 해로운 기운으로부터 조선을 지켜야 한다는 위정척사(衛正斥邪) 사상에 입각한 쇄국 정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주자학에 입각한 당시 유림들이 중심이 된 위정척사론자들은 서구의 과학 기술 수용을 비판하였다. 위정척사론자들의 사상적 기반을 제시하였던 이항로(1792~1868)는 과학 기술 수용에 대해 강경하게 비판하였다. 그는 성리학적 세계관을 토대로 한 이기론을 바탕으로 강상 윤리*를 모르는 사학(邪學)*을 배척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는 리(理)를 중시하는 입장을 견지하여 리가 기(氣)에 대해 명령하는 상명하복의 위계적 질서가 잘 유지되어야 선(善)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서구의 과학 기술은 리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에 해당하는 현상에 천착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고, 이는 제거해야 할 대상인 인육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흐를 위험이 다분했다. 이에 따라 이항로는 이들과 더불어 화친(和親)을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조선의 현실 문제를 인식하고, 인류가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였던 박은식(1859~1925)은 러시아와 일본을 비롯한 주위 제국주의 열강들의 한반도 쟁탈전이 더욱 노골화되던 20세기를, 세력이 우월한 나라가 열등한 나라에 대포와 거함을 선봉으로 삼아 밀어닥치는 시기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이로 인해 세력이 열세인 나라는 자신의 나라를 식민지로 바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여 과학 기술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청년이라면 마땅히 과학 기술에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은식은 과학적 실용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으므로 과학 기술이 학문의 중심에 있어야 하며 과학 기술에 대한 연구가 가장 시급한 공부임을 인정하였다. 그는 과학 기술을 풍요와 발전의 원천으로 이해하였으며, 문명 진화의 핵심이 과학 기술의 진화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객관적 사물에 대한 초경험적이고 추상적인 연구보다는 경험과 실증을 진리 탐구의 방법으로 제시하여 감각 작용과 실험 실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도 박은식은 과학 기술이 제국주의의 침략과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고 맹목적인 서구화는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를 경계하기 위해 인격을 수양할 철학이 필요하며 이는 과학 기술처럼 서구의 것을 가져와 수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중심으로 주체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같은 그의 입장은 서구의 과학 기술을 수용하되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를 지키자는 동도서기(東道西器)론적 입장과 닮아 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주자학이 아닌 양명학이었다. 그는 밀려 들어오는 서구의 문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민중적인 이론 체계가 필요하며 그것이 양명학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주자학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행동할 수 있는 '간이직절(簡易直截)'함을 결여했다고 비판하였다. 양명학의 입장에서 주체성을 지키는 방편으로 그가 주목한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양지(良知)*'였다. 그는 양지를, 끊임없이 흐르면서 현실의 문제와 조우하고 그러한 문제 속에서 항상 막히지 않는 앎이라고 생각했다. 즉 양지는 고정된 앎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여 현실과 현상에 따라 옳은 일을 추구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과학 기술에 대한 수용 역시 양지를 중심으로 한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식은 양지를 실현하여 대인(大人)이 되면 자신의 마음과 모든 사물 및 타자를 하나로 여기는 만물 일체의 단계로 이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양지가 타인에게까지 미침으로써, 도덕성이 타자에게까지 발현되는 것이다. 박은식은 이를 바탕으로 국가와 민족은 물론 인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동(大同)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양명학을 중심으로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강상 윤리(綱常倫理): 유교 문화에서 사람이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

*사학(邪學): 조선 시대에, 주자학에 반대되거나 위배되는 학문을 이르던 말.

*양지(良知): 양명학에서 말하는 정신, 마음의 본체, 주체성, 타고난 지혜 등을 아우르는 개념.

<문항>

1. <보기>는 이항로와 박은식의 대비되는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

〈 보 기 〉

구분	이항로	박은식
사상의 기반	• 주자학, 성리학	• 양명학
세계 인식 및 서구에 대한 입장	• 중화 중심의 사유 • 서구에 대한 쇄국 • (①)	• 근대화된 서구(제국주의)에 대한 인지 • 조건적 수용 • 동도서기
(②)에 대한 관점	• 사학(邪學) • 현상을 중요시하는 학문	• 학문의 중심이자 시급한 연구의 대상 • 경험과 실증을 중요시하는 학문
결론적 입장	• 서구와 화친을 논할 수 없다.	• 주체성을 지니고 서구 문물을 수용해야 한다.

3. 출제 의도

- 글의 전반적인 내용과 주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한다.
- 글의 전개 과정의 논리적 필연성을 이해하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 핵심적인 용어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성취 기준 2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독서	고형진 외	동아출판	2019	48-62, 114-121		○
고등학교 독서	한철우 외	비상교육	2019	40-50, 102-111		○
고등학교 독서	이삼형 외	지학사	2019	54-63, 118-125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25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독서	김태석 외	한국교육방송공사	2024	71-72		○

5. 문항 해설

이 구한말에서 개화기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이항로와 박은식의 주장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항로는 위정척사론자들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한 학자로 주자학의 입장에서 서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반면 그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등장한 박은식은 동양의 도를 지키며 서구를 수용하자는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동양의 도를 지키는 방법으로 주자학이 아닌 양명학을 수용하였고, 양명학의 주요 개념인 ‘양지’를 통해서 세상을 개혁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문항은 두 학자의 대비적인 입장을 논리적 흐름에 따라 이해하면서 적절한 핵심 용어를 파악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새로운 대상이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핵심화한 용어를 찾아내고, 또 거꾸로 구체적인 상황을 포괄할 수 있는 용어를 찾아내는 것을 문항에서 요구하였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p>※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2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제대로 찾지 못했을 경우 - 괄호 넣기에서 앞뒤 문맥과 호응하지 못했을 경우 - 글자 수 제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 발문이 요구하는 2가지 조건 중 1개만 어겼을 경우 - 윗글에서 찾으라는 지시를 어겼을 경우(학생이 임의로 답안 작성) <p>* 위의 조건들이 중복되더라도 1회만 감점(-2점)</p> <p>* 위의 감점 기준은 이하 문항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됨.</p> <p>①, ②를 각각 4점으로 배점</p> <p>① - 위정척사 / 위정척사론 - 위정척사를 포괄하면 정답으로 인정</p> <p>② - 과학 / 과학기술 - '서구의 과학기술'과 같이 과학기술을 설명하는 것이면 정답으로 인정</p> <p>'과학기술의 ○○'과 같이 ○○에 방점이 있다면, 2점 인정</p>	8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① - 위정척사, 위정척사론
- ② - 과학, 과학기술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 계열(국어) / 2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고등학교 독서 과목
	핵심개념 및 용어	주자학, 박은식, 간이직절
예상 소요 시간	4분	

2. 문항 및 자료

<지문>

인문 계열(국어) 1번과 동일.

<문항>

2. <보기>는 박은식과 관련된 기록이다. <보기>의 ①에 대한 박은식의 직접적인 비판이 무엇인지 윗글에서 찾아 15자 이내로 쓰시오(단, 띄어쓰기로 인한 빈칸은 글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 보 기 >

박은식은 청년기에 주자(朱子)를 큰 스승이자 성인(聖人)으로 생각해 그의 학문적 세계를 따라 수학하였다. 그러나 박은식은 후에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면서, 학문적 방향을 바꾸어 양명학을 수용하였다. 그러면서 조국의 현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하기도 했다. “세계의 바람과 조수는 이같이 흘러넘치고 학계의 빛나는 흐름이 저같이 발달하는데, ①옛 학문을 지키는 것을 숭상하여 새로운 변화를 막고 거부하더니, 마침내 결과가 여기에 이르렀다. 이는 그 해로움이 진시황(秦始皇)의 분서갱유(焚書坑儒)보다 더욱 심하다. ‘학술로써 천하를 죽였다.’라는 육象山(陸象山)의 말이 바로 이를 뜻함이 아니겠는가?”

3. 출제 의도

- 글의 전반적인 내용과 주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한다.
- 보조문의 내용을 통하여, 문항에서 요구하는 바를 본문에서 찾아낼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 ‘어절’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2-01]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성취 기준 2	[12독서03-01]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독서	고형진 외	동아출판	2019	62-73, 114-121		○
고등학교 독서	한철우 외	비상교육	2019	50-67, 102-111		○
고등학교 독서	이삼형 외	지학사	2019	64-73, 118-125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25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독서	김태석 외	한국교육방송공사	2024	71-72		

5. 문항 해설

보기의 ①이 가리키는 대상은 주자학이다. 실제 박은식은 다양한 사상적 전환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이 문항의 본문에서 제시된 내용은 박은식이 이항로로 대표되는 기존의 사상가들과 달리 양명학을 택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자학이 지닌 한계를 지적·비판한다. 구체적으로는 4문단에서 박은식이 주체성을 지키며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양명학을 선택하며 주자학을 비판한다는 내용이 기술된다. “그는 주자학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행동할 수 있는 ‘간이직절(簡易直截)’함을 결여했다고 비판하며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렵고 복잡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p>간이직절함을 결여 간이직절함을 결여함 간이직절함을 결여했다. 간이직절함을 결여했다고 비판했다. 쉽게 받아들이고 행동하기 어렵다.</p> <p>이 문항에서 요구한 답안은 “간이직절함을 결여했다.”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간이직절함의 결여”라는 내용을 포괄하며 15자 이내 라면 8점으로 인정한다. “쉽게 받아들이고 행동한다”가 간이직절함을 본문에서 풀어 설명한 내용이므로 이를 비판한 “쉽게 받아들이고 행동하기 어렵다.”역시 정답으로 인정한다. “간이직절함의 결여”를 키워드로 삼았지만 ※에 해당하면 2점 감점. 그 외 주자학 일반에 대한 내용(ex. ‘초경험적이고, 추상적이다’), 성리학의 특징을 제시한 경우는 0점 처리함.</p>	8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간이직절함을 결여
간이직절함을 결여함
간이직절함을 결여했다.
간이직절함을 결여했다고 비판했다.
쉽게 받아들이고 행동하기 어렵다.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 계열(국어) / 3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고등학교 독서 과목
	핵심개념 및 용어	<봉래의>, 「용비어천가」, 정재, 서두, 본론, 돌장, 북무, 대무, 회무
예상 소요 시간	4분	

2. 문항 및 자료

<지문>

조선의 궁중에서 거행하던 의식에는 정재*가 수반되어야 했는데, 조선의 개국 초에는 의식에 걸맞는 정재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세종 대왕이 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제작한 정재 중 하나가 <봉래의>이다. <봉래의>는 조선조 최대의 가·무·악이 어우러진 종합 예술 작품으로, 「용비어천가」의 일부 장을 노랫말로 삼아 관현악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구성이었다.

<봉래의>는 '전인자',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 '후인자'로 구성되어 있다. 전인자는 <봉래의>의 시작을 알리고 후인자는 <봉래의>의 마침을 알리는 관현악곡이다. <봉래의>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인데, 각각 서두, 본론, 돌장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이 세 악곡은 여민락, 취화평, 취풍형의 순서대로 연행되며, 좌우로 배열된 악공 및 의물*을 든 사람, 그리고 연향에 참여한 모든 기녀가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무용수들도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봉래의>의 노랫말인 「용비어천가」는 모두 125장으로 이루어진 서사시로, 처음부터 궁중 연향에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다. 「용비어천가」의 내용은 조상의 업적 가운데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사항만을 부각하여 조선 왕조 창업의 당위성을 제시한 1~16장, 왕조 창업이 마땅하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17~109장, 후대 왕이 지켜야 할 도리를 담고 있는 110~125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용비어천가」 125장 전체를 한자리에서 연주하기 어렵다는 제약 때문에 <봉래의>에서는 이 중 일부 악장만 선택하여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에 사용하였는데, 치화평과 취풍형에서는 국문 가사로, 여민락에서는 한문 가사로 불렀다. 각 악곡의 서두는 춤 없이 노래만 부르고, 본론은 무용수들이 각각 대형을 갖추고 춤을 추며 노래 부르고, 돌장에서는 무용수들이 춤을 추던 대형에서 다음 대형으로 이동하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다.

<봉래의>의 춤은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에 따라 한 가지 대형으로 춘다. 여민락은 대형을 형성하여 2명이 마주 보며 춤을 추고, 치화평은 동서남북에 무용수 2명이 각각 서 있고 무용수 2명이 차례로 돌아가며 북쪽에서 춤을 추고, 취풍형은 2명이 마주 보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늘어선 대형을 형성하여 춤을 춘다.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 모두 각각의 대형에서 무용수들이 북쪽을 향하여 춤추는 북향무, 서로 마주 보고 춤추는 대무, 서로 등을 향해 서서 춤추는 배무 등의 춤을 공통으로 추고, 각 대형으로의 전환은 무용수 전원이 원을 그리며 돌면서 춤추는 회무로 한다.

세종 대왕은 <봉래의>에 자신의 정치적 염원과 예술적 이상을 담았다. 「용비어천가」는 조선이 천명으로 건국되었으며 영속되어야 할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세종 대왕은 그 주제를 후대의 임금을 비롯해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가·무·악이 어우러진 <봉래의>를 제작한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봉래의>는 공사(公私) 연향, 조참*, 출궁이나 환궁할 때, 왕이 중국 황제의 조서나 칙서를 받으러 가고 올 때 등에 연행되었는데, 이때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 중 일부만 연행되기도 하였다. 세종 대왕 이후에도 <봉래의>는 궁중의 의례에서 연행되다가 중단되었고, 근대에 이르러 복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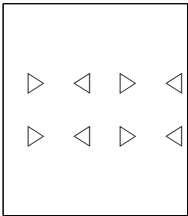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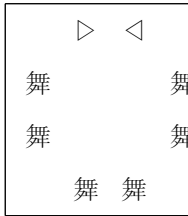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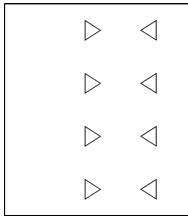
*정재: 고려와 조선의 궁중에서 공연되었던 기악, 노래, 춤이 어우러진 종합 예술.

*의물: 의식에서 상하를 구별하고,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 쓰는 여러 가지 물건을 이르던 말.
 *조참: 중앙에 있는 문무백관이 한 달에 네 번 정전(正殿)에 모여 임금에게 문안을 드리고 정사(政事)를 아뢰던 일.

<문항>

3. 윗글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도식화했을 때, ①에 해당하는 <봉래의>의 세부 구성과, ②에 해당하는 춤이 무엇인지 윗글에서 단어를 찾아 각각 쓰시오.

<보 기>

연행 순서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
세부 구성	서두	춤 없이 노래만 부름.		
	본론	무용수들이 대형을 갖추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름.		
	(①)	무용수들이 다음 대형으로 바꾸면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름.		
춤 대형				
「용비어천가」의 노랫말		한문	국문	

*▷◁: 무용수 2명이 마주 보고 서 있는 것을 의미함.
 *舞: 무용수.

3. 출제 의도

-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한다.
- 글의 요지를 핵심적인 단어로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 글의 독해 능력과 문해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성취 기준 2	[12독서03-01]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독서	고형진 외	동아출판	2019	46-71, 132-143		○
고등학교 독서	한철우 외	비상교육	2019	40-49, 142-159		○
고등학교 독서	이삼형 외	지학사	2019	52-61, 134-149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25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독서	김태석 외	한국교육방송공사	2024	88-89		○

5. 문항 해설

이 문항은 지문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파악했는지를 묻는 것이다. 세종 대왕이 만든 정재인 <봉래의>는 ‘전인자’,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 ‘후인자’로 구성되어 있고, 핵심이 되는 부분은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각각 한 가지 대형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대형의 전환은 구성 중 돌장에서 이뤄지며, 그 춤은 회무로 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또한 정재에서 부르는 노래는 「용비어천가」인데 한문과 한글로 된 노랫말로 연행되다. 이 같은 내용을 시각화하여 제시한 것이 <보기>에 제시된 표이다. 표에 만든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채워 넣는 것으로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p>①, ②를 각각 4점으로 배점</p> <p>① 돌장 (4점)</p> <p>② 회무 (4점)</p> <p>회무를 설명하는 “무용수 전원이 원을 그리며 돌면서 추는”이라는 내용을 답안으로 썼다면 2점 감점(ex. 원을 그리는).</p> <p>3단락의 내용에 근거할 때 ①에 들어갈 <봉래의>의 구성 단계는 ‘돌장’에 해당한다. 4장에서는 여민락, 치화평, 취풍형에서 무기(舞妓)들이 추는 여러 가지 춤에 대해 설명하는데, “각 대형으로의 전환은 무용수 전원이 원을 그리며 돌면서 춤추는 회무로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②는 회무이다.</p> <p>단어로 쓰라는 문항의 요구를 어기고 회무의 구체적인 모습을 설명한 “무용수 전원이 원을 그리며 돌면서 추는”이라는 내용을 답안으로 작성하면 2점을 감점한다.</p> <p>②에 복수의 답 (ex 대무, 회무)을 썼다면 오답처리.</p> <p>③을 자의적으로 만들어 썼다면 해당 부분은 채점하지 않음.</p>	8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① 돌장
 - ② 회무
- 무용수 전원이 원을 그리며 돌면서 추는 춤(-2)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 계열(국어) / 4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고등학교 독서 과목
	핵심개념 및 용어	「용비어천가」, 봉래의, 주제
예상 소요 시간	4분	

2. 문항 및 자료

<지문>

인문 계열(국어) 3번과 동일.

<문항>

4. <봉래의>와 「용비어천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용비어천가」의 주제적 특성을 설명한 문장을 윗글에서 찾아 첫 어절과 끝 어절을 각각 쓰시오.

3. 출제 의도

- 지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했는지를 점검한다.
- 서로 다른 두 대상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전개하는 문단에서,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점검한다.
- 어절, 음절, 문장 등 기초적인 지식의 습득 정도를 확인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성취 기준 1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성취 기준 2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관련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독서	고형진 외	동아출판	2019	46-71, 132-143		○
고등학교 독서	한철우 외	비상교육	2019	40-49, 142-159		○
고등학교 독서	이삼형 외	지학사	2019	52-61, 134-149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25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독서	김태석 외	한국교육방송공사	2024	88-89		○

5. 문항 해설

<봉래의>와 「용비어천가」는 모두 세종이 만든 것이다. 세종은 국가 성립기에 공식적인 의례에서 연행될 정재가 필요하다는 문체의식에서 <봉래의>를 만들었고, 「용비어천가」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노랫말로 삼는 노래이다. 또한 「용비어천가」는 악장으로 궁중에서의 연행을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기도 하다. <봉래의>와 「용비어천가」는 조선 왕조의 정당성과 위엄을 알린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용비어천가」의 주제는 5단락에서 “「용비어천가」는 조선이 천명으로 건국되었으며 영속되어야 할 할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용비어천가」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p>- 「용비어천가」는, 만들어졌다.(8점) “「용비어천가」는 조선이 천명으로 건국되었으며 영속되어야 할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 이 문장에서 첫 어절과 끝 어절 중 하나를 어기면 2점 감점.</p> <p>- 「용비어천가」의, 있다.(4점) “「용비어천가」의 내용은 조상의 업적 가운데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사항만을 부각하여 조선 왕조 창업의 당위성을 제시한 1~16장, 왕조 창업이 마땅하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17~109장, 후대 왕이 지켜야 할 도리를 담고 있는 110~125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문장에서 첫 어절과 끝 어절 중 하나를 어기면 2점 감점.</p> <p>낫표와 문장 부호는 채점에 영향 없음.</p>	8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용비어천가」는, 만들어졌다.(8점)

「용비어천가」의, 있다(4점)

“「용비어천가」는 조선이 천명으로 건국되었으며 영속되어야 할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 이 문장에서 첫 어절과 끝 어절 중 하나를 어기면 2점 감점.

“「용비어천가」의 내용은 조상의 업적 가운데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사항만을 부각하여 조선 왕조 창업의 당위성을 제시한 1~16장, 왕조 창업이 마땅하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17~109장, 후대 왕이 지켜야 할 도리를 담고 있는 110~125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문장에서 첫 어절과 끝 어절 중 하나를 어기면 2점 감점.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 계열(국어) / 5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고등학교 독서 과목
	핵심개념 및 용어	애덤 스미스, 교섭상 지위, 비대등성, 경제 성장, 노동 시장
예상 소요 시간	5분	

2. 문항 및 자료

<지문>

흔히 애덤 스미스를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사유 재산과 기업의 자유를 옹호하는 자유방임론자라고 하나 그는 결코 당대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이를 찬미하는 소극적 자유방임론자가 아니었다. 공정성을 담보한 규율과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이러한 질서의 내용으로 독점의 철폐와 경쟁의 확립을 들었다. 그는 현실을 그대로 두면 독점과 노사 간 교섭력의 차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하였고, 독점을 줄이고 노사 간 교섭을 균등하게 하여 경쟁적 시장조건, 즉 자유방임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것을 강조하였다. 애덤 스미스는 이러한 조건의 성립을 전제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유방임을 주장하였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당시의 노동 시장에 대한 그의 견해도 잘 나타난다.

애덤 스미스의 노동 시장론은 노동 시장이 경쟁적 시장이 되기 어렵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는 『국부론』에서 노동 시장에서 노사 간 교섭상 지위에는 구조적으로 비대등성이 있음을 지적한다. 노동 시장이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 간의 교섭상 지위가 대등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사용자의 단결이 노동자의 단결보다 쉽기 때문에 교섭상 지위의 비대등성이 커져 노동 시장이 경쟁적 시장이 되지 못한다. 그리고 경쟁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 조건이 열악해지는 것이다. 교섭상 지위의 비대등성이 존재하는 경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자의 단결은 노동 시장의 경쟁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결국 애덤 스미스의 관점에서 볼 때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는 노동자의 단결을 위한 노동조합의 역할이 경쟁 촉진적인 면이 있었다.

산업화 초기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에서는 과잉 노동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임금의 수준은 최저 생계비 수준을 벗어나기 힘들었다. 이 시기에는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동법이 필요했다. 애덤 스미스는 노동 시장에서 나타나는 교섭상 지위의 구조적 비대등성은 노동자들이 단결하여도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제 성장을 통한 노동 수요의 지속적 확대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국민 경제가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의 단계로 들어가면 노동력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 노동법의 시대는 끝나게 되고, 노동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산업 생산에 비해 노동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노동 시장의 여건이 사용자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게 된 것이다. 노동자들 사이의 구직 경쟁 못지않게 사용자들 간의 구인 경쟁이 나타남으로써, 즉 ①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에서 벗어나 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로 넘어감으로써, 노사 간의 교섭력이 대등해지기 시작했다. 또한 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에서는 임금의 변화율이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보다 더 커지게 되어 임금 탄력성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노동 공급의 임금 탄력성이란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을 임금의 변화율로 나눈 것이다. 보통 이 값이 0에서 1 사이일 때는 비탄력적이라고 하고,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한다. 탄력성이 무한대인 상태는 완전 탄력적이라고 한다.

<문항>

5.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애덤 스미스의 견해를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①, ②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

〈보 기〉

애덤 스미스는 노사 간 교섭력의 균등함이 자유방임 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노사 간 교섭 지위에는 구조적 (①)이/가 존재했다. 따라서 대등하지 못한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노동자의 단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노동자가 단결한다고 해서 관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의 교섭권이 고용자의 교섭권과 대등해지기 위해서는 노동이 필요로 하는 시장이 계속해서 커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화와 관련하여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소비 등을 포괄하는 (②)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3. 출제 의도

- 글의 전반적인 내용과 주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한다.
- 글의 전개 과정의 논리적 필연성을 이해하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 핵심적인 용어를 추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 글의 독해 능력과 문해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2-01]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성취 기준 2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독서	고형진 외	동아출판	2019	96-107, 122-133		○
고등학교 독서	한철우 외	비상교육	2019	76-83, 112-121		○
고등학교 독서	이삼형 외	지학사	2019	90-97, 126-135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25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독서	김태석 외	한국교육방송공사	2024	152-153		○

5. 문항 해설

제시된 지문은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노동시장론에 대한 것이다. 노동시장론은 애덤 스미스가 생각한 자유방임주의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이다. 초기 산업화 사회의 노동시장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일자리와 임금을 둘러싼 교섭을 벌일 때 구저적 비대등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이 비대등한 관계를 비대등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단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동자들의 단결을 통해서 사용자와의 교섭상의 비대등함을 일정하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산업화의 활성화로 인한 경제 성장, 그 결과로 이뤄진 큰 노동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소 복잡하고, 난삽한 형태의 지문을 문항에 제시된 <보기>의 형태로 요약하고 핵심적인 개념인 구조적 비대등성과 경제 성장 등의 키워드를 찾도록 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②를 각각 4점으로 배점 ① 비대등성 (4점) ② 경제 성장 (4점) / 국민경제 (2점) 이 외에는 오답으로 처리함 띄어쓰기는 채점과 관련 없음	8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① 비대등성 (4점)
- ② 경제 성장 (4점) / 국민경제 (2점)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 계열(국어) / 6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고등학교 독서 과목
	핵심개념 및 용어	그린버그, 평면성, 환영주의
예상 소요 시간	4분	

2. 문항 및 자료

<지문>

인문 계열(국어) 5번과 동일.

<문항>

6. 윗글 ㉠의 결과로 노동자와 사용자의 교섭에서 '㉠ 노동자의 지위'와 '㉡ 임금 탄력성'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각각 <보기 1>, <보기 2>에서 찾아 쓰시오.

————— <보 기 1> —————

낮아진다, 변화 없다, 높아진다

————— <보 기 2> —————

완전 탄력적이 된다, 탄력적이 된다, 비탄력적이 된다

① 노동자의 지위: _____

② 임금 탄력성: _____

3. 출제 의도

- 글의 전반적인 내용과 주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한다.
- 글의 전개 과정의 논리적 필연성을 이해하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 글의 내용을 종합하여 추론적 사고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성취 기준 2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독서	고형진 외	동아출판	2019	62-73 114-121		○
고등학교 독서	한철우 외	비상교육	2019	50-67, 102-111		○
고등학교 독서	이삼형 외	지학사	2019	64-73, 118-125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25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독서	김태석 외	한국교육방송공사	2024	152-153		○

5. 문항 해설

지문에 제시된 ㉠은 “무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에서 벗어나 제한적 노동 공급의 단계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무제한적 노동 공급 단계는 일자리에 비해 노동력의 제공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노동시장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서 사용자가 유리한 입장에 놓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한적 노동 공급 단계가 되었다는 것은 일자리의 양이 많아져서 노동자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교섭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전환되었다는 의미이다. 주어진 문장을 통해 이면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결국 ㉠에 따르면 노동자의 교섭상의 지위는 이전보다 높아지게 된다.

또한 노동 공급량은 거의 변화가 없고, 구인자가 많아진 노동 시장에서 임금의 변화율이 커진다는 추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을 임금의 변화율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출하는 임금 탄력성은 비탄력적이 된다.

<보기 1>은 ①노동자의 교섭 상의 지위 변화와 관련된 세 개의 서술어, <보기 2>는 ②임금 탄력성의 변화와 관련된 세 개의 서술어를 제시하여 선택하도록 하였다.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과 ②를 각각 4점으로 배점 ① - 높아진다. (4점) ② - 비탄력적이 된다. / 비탄력적 / 비탄력 (4점) 둘을 섞어서 답안을 쓴 경우(ex ① 높아지고 비탄력적이 된다.)는 오답 처리함. 보기에서 골라 쓰지 않은 경우(ex ② 완전비탄력적)와 같은 경우 오답 처리함. 띄어쓰기와 문장부호는 채점과 관련없음	8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① - 높아진다. (4점)
 - ② - 비탄력적이 된다. / 비탄력적 / 비탄력 (4점)
- 둘을 섞어서 답안을 쓴 경우(ex ① 높아지고 비탄력적이 된다.)는 오답처리함.
 보기에서 골라 쓰지 않은 경우(ex ② 완전비탄력적)와 같은 경우 오답처리함.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 계열(국어) / 7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고등학교 문학 과목
	핵심개념 및 용어	시의 구조, 시적 화자와 상황, 문학을 통한 타자 이해와 상호 소통
예상 소요 시간	4분	

2. 문항 및 자료

<지문>

(가)

4·19가 나던 해 세밑* / 우리는 오후 다섯 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하얀 입김 뿜으며 /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리라 믿었던 것이다 /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
혜화동 로터리에서 대포*를 마시며 /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 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 /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흥내 낼 수 없는 노래를 /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
별뚝별이 되어 떨어졌다 /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되어 /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넥타이를 매고 다시 모였다 / 회비를 만 원씩 걷고
처자식들의 안부를 나누고 / 월급이 얼마인가 서로 물었다
치솟는 물가를 걱정하며 / 즐겁게 세상을 개탄하고
익숙하게 목소리를 낮추어 / 떠도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모두가 살기 위해 살고 있었다 / 아무도 이전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적잖은 술과 비싼 안주를 남긴 채 / 우리는 달라진 전화번호를 적고 헤어졌다
몇이서는 포커를 하러 갔고 / 몇이서는 춤을 추러 갔고
몇이서는 허전하게 동승동 길을 걸었다 / 돌돌 말은 달력을 소중하게 옆에 끼고
오랜 방황 끝에 되돌아온 곳 / 우리의 옛사랑이 피 흘린 곳에
낯선 건물들 수상하게 들어섰고 /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아직도 남아 있는 몇 개의 마른 잎 흔들며 / 우리의 고개를 떨구게 했다
부끄럽지 않은가 / 부끄럽지 않은가
바람의 속삭임 귓전으로 흘러며 / 우리는 짐짓 중년기의 건강을 이야기했고
또 한 발짝 깊숙이 늙으로 발을 옮겼다

- 김광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세밑: 한 해의 마지막 때.

*대포: 술을 별 안주 없이 큰 그릇으로 마시는 일.

(나)

1964년 겨울을 서울에서 지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밤이 되면 거리에 나타나는 선술집—오뎅과 군참새와 세 가지 종류의 술 등을 팔고 있고, 얼어붙은 거리를 휩쓸며 부는 차가운 바람이 펄럭거리게 하는 포장을 들치고 안으로 들어서게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서면 카바이드 불의 길쭉한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고, 염색한 군용 잠바를 입고 있는 중년 사내가 술을 따르고 안주를 구워 주고 있는 그러한 선술집에서,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우연히 만났다. 우리 세 사람이란 나와 도수 높은 안경을 쓴 안(安)이라는 대학원 학생과 정체는 알 수 없지만, 요컨대 가난뱅이라는 것만은 분명하여 그의 정체를 알고 싶다는 생각은 조금도 나지 않는 서른대여섯 살짜리 사내를 말한다.

먼저 말을 주고받게 된 것은 나와 대학원생이었는데, 뭐 그렇고 그런 자기소개가 서로 끝났을 때는 나는 그가 안씨라는 성을 가진 스물다섯 살짜리 대한민국 청년, 대학 구경을 해 보지 못한 나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는 전공을 가진 대학원생, 부잣집 장남이라는 걸 알았고, 그는 내가 스물다섯 살짜리 시골 출신, 고등학교는 나오고 육군 사관 학교를 지원했다가 실패하고 나서 군대에 갔다가 임질에 한번 걸려 본 적이 있고 지금은 구청 병사계(兵事係)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이다.

자기소개들은 끝났지만 그리고 나서는 서로 할 얘기가 없었다. 잠시 동안은 조용히 술만 마셨는데 나는 새카맣게 구워진 군참새를 집을 때 할 말이 생겼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군참새에게 감사하고 나서 얘기를 시작했다.

[A “안 형, 파리를 사랑하십니까?”

] “아니오, 아직까진…….” 그가 말했다. “김 형은 파리를 사랑하세요?”

“예.”라고 나는 대답했다. “날 수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날 수 있는 것으로서 동시에 내 손에 붙잡힐 수 있는 것이니까요. 날 수 있는 것으로서 손안에 잡아 본 적이 있으세요?”

“가만 계셔 보세요.” 그는 안경 속에서 나를 멀거니 바라보며 잠시 동안 표정을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없어요, 나도 파리밖에는…….”

낮엔 이상스럽게도 날씨가 따뜻했기 때문에 길은 얼음이 녹아서 흙물로 가득했었는데 밤이 되면서부터 다시 기온이 내려가고 흙물은 우리의 발밑에서 다시 얼어붙기 시작했다. 소가죽으로 지어진 내 검정 구두는 열고 있는 땅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찬 기운을 충분히 막아 내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이런 술집이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한잔하고 싶은 생각이 든 사람이나 들어올 데지, 마시면서 곁에 선 사람과 무슨 얘기를 주고받을 만한 데는 되지 못하는 곳이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그 안경잡이가 때마침 나에게 기특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놈 그럴듯하다’고 생각되어 추위 때문에 저려 드는 내 발바닥에게 조금만 참으라고 부탁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화를 주고받던 ‘나’와 안은 외교원* 일을 하는 사내를 만난다. 사내는 ‘나’와 안에게 자신과 함께 있어 주기를 청하고, 세 사람은 중국집으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나눈다.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난 서적 월부 판매 외교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돈 사천 원을 주더군요. 난 두 분을 만나기 얼마 전까지도 세브란스 병원 율타리 곁에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누워 있을 시체실이 있는 건물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율타리 곁에 앉아서 병원의 큰 골목에서 나오는 희끄무레한 연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해부 실습하느라고 톱으로 머리를 가르고 칼로 배를 찢고 한데 정말 그러겠지요?”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사환이 단무지와 파가 담긴 접시를 갖다 놓고 나갔다.

“기분 나쁜 얘길 해서 미안합니다. 다만 누구에게라도 얘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의논해 보고 싶은데,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오늘 저녁에 다 써 버리고 싶은데요.”

“쓰십시오.” 안이 얼른 대답했다.

“이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함께 있어 주시겠어요?”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함께 있어 주십시오.” 사내가 말했다. 우리는 승낙했다.

“멋있게 한번 써 봅시다.”라고 사내는 우리와 만난 후 처음으로 웃으면서 그러나 여전히 힘없는 음성으

로 말했다.

중국집에서 거리로 나왔을 때는 우리는 모두 취해 있었고, 돈은 천 원이 없어졌고 사내는 한쪽 눈으로는 울고 다른 쪽 눈으로는 웃고 있었고, 안은 도망갈 궁리를 하기도 지쳐 버렸다고 내게 말하고 있었고, 나는 “악센트 짙는 문제를 모두 틀려 버렸단 말야, 악센트 말야.”라고 중얼거리고 있었고, 거리는 영화 광고에서 본 식민지의 거리처럼 좁고 한산했고, 그러나 여전히 소주 광고는 부지런히, 약 광고는 게으름을 피우며 반짝이고 있었고, 전봇대의 아가씨는 ‘그저 그래요.’라고 웃고 있었다.

-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외교원(外交員): 은행이나 회사에서 교섭이나 권유, 선전, 판매를 위하여 고객을 방문하는 일이 주된 업무인 사원.

<문항>

7. 윗글 (가)의 ㉠에 제시된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는 플라타너스 가로수들’은 시적 화자가 현재의 삶을 반성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윗글 (가)의 시적 상황을 고려하여 그 이유를 10자 이내로 쓰시오(단, 띄어쓰기로 인한 빈칸은 글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3. 출제 의도

- 시를 읽고 전체적으로 이해하여 시의 주제가 무엇인지 이해하는지를 확인한다.
- 시상의 전개가 어떤 방법으로 구조화되었는지를 이해한다.
- 시의 화자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성찰함을 확인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기준 1	[12문학02-01] 문학 작품은 시적 화자와 상황,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성취기준 2	[12문학04-01]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상호 소통하는 태도를 지닌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문학	정호웅 외	천재교육	2019	40-69		○
고등학교 문학	한철우 외	비상교육	2019	12-19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25학년도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문학	김태석 외	한국교육방송공사	2024	283		×

5. 문항 해설

김광규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는 1979년에 발표되었다. 이 시는 크게 과거와 현재, 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난 해를 배경으로 열정과 이상을 지녔던 젊은 날에 대한 회고가 시의 전반부를 형성하고 있다면, 후반부는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다만 ‘살기 위해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을 보여준다. 젊은 날의 꿈과 열정, 이상이 ‘별뿔별’처럼 사라진 채, ‘기성세대’이자 소시민으로 변해버린 시적 화자가 다시 과거의 공간으로 되돌아가 여전히 변하지 않은 ‘플라타너스 가로수’를 보면서 이제는 현실에 안주하고 아무 고민과 생각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삶과 생활을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는 작품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플라타너스는 변하지 않아서 / 나(우리)는 변해서 (8점) 주체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플라타너스’로 보고 ‘변하지 않아서’와 같은 경우도 정답으로 인정. - 채점에 핵심은 ‘변했다/변하지 않았다’에 있는 것임. - 그 외 ‘똑같다’, ‘변모하지 않았다’ 등도 정답으로 인정. - 시에 제시된 구절을 그대로 쓴 경우 오답처리 (ex.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여전히 제자리에 서서’,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혁명이 두려워졌다’)	8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변하지 않아서, 나(우리)는 변해서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 계열(국어) / 8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고등학교 문학 과목
	핵심개념 및 용어	시와 소설의 상호소통, 문학과 사회
예상 소요 시간	4분	

2. 문항 및 자료

<지문>

7번 문제와 동일

<문항>

8. <보기 1>은 윗글 (가)에 등장한 시어들이고, <보기 2>는 윗글 (나)를 해설하고 있는 글이다. <보기 2>의 ①의 모습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단어 하나를 윗글 (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 1>에서 찾아 쓰시오.

〈보 기〉

1)

겨울밤, 별뿔별, 기성세대, 넥타이, 월급, 포커, 달력, 늪

〈보 기〉

2)

이 작품은 4·19 혁명의 실패와 5·16 군사 정변 후 정치적, 사회적 부조리가 팽배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4·19 정신을 좌절시킨 군사 정부는 굴욕적인 외교를 거듭했고, 이에 항의하는 민주 인사들을 억압하였다. 또한 급격히 진행된 근대화, 산업화, 도시화는 당대 시민들의 심리적 방황과 인간적 연대감의 상실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암울한 현실에서 사람들은 패배 의식, 무력감에 빠져 사회에 대한 짙은 회의를 나타냈다. 이는 ①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해지면서 내면적 교감이나 연대에 대한 당대의 시대적 요구가 외면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출제 의도

- 문학이 결국 인간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다는 전제 아래 시나 소설 속의 인물과 그 삶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여러 상황을 이해하고 상호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다양한 표현 방법 중 하나인, 비유나 상징을 정확히 이해하는지 확인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기준 1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성취기준 2	[12문학03-04]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문학	방민호 외	미래N	2019	59-74		○
고등학교 문학	한철우 외	비상교육	2019	86-103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25학년도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문학	김태석 외	한국교육방송공사	2024	184-185		×
2025학년도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문학	김태석 외	한국교육방송공사	2024	283		×

5. 문항 해설

<보기 2>의 밑줄 친 ① 부분은 소설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그 시대는 인간 관계의 단절, 타인에 대한 무관심, 연대에 대한 열망의 좌절 등 암울한 현실에 대한 패배 의식이나 무력감이 팽배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가)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는 ‘늪’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p>이 문항의 정답은 현재라는 시점, 부정적 현실, 무기력한 주체, 비유적 표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어여야 한다.</p> <p>4점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이 가운데, 두 가지를 충족한다는 점에서 부분 점수를 인정할 수 있다.</p> <p>별똥별은 현재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사라질 젊은 날의 이상과 열정에 대한 비유라는 점에서 2점만을 인정한다.</p> <p>늪 - 8점 겨울밤, 기성세대, 벅타이, 월급, 달력 - 4점 별똥별 - 2점 포커 - 0점</p> <p>- 복수의 답을 작성한 경우(ex. 늪, 기성세대 - 배점이 높은 것을 정답으로 인정하고, 문항의 요구를 어긴 것으로 간주하여 2점 감점)</p>	8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늪 - 8점

겨울밤, 기성세대, 넥타이, 월급, 달력 - 4점

별똥별 - 2점

포커 - 0점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 계열(국어) / 9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고등학교 문학 과목
	핵심개념 및 용어	비유와 상징, 내용과 형식
예상 소요 시간	6분	

2. 문항 및 자료

<지문>

7, 8번 문제와 동일

<문항>

9. <보기>는 윗글 (나)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①을 윗글 (나)의 [A]에서 찾아 첫 어절과 끝 어절을 각각 쓰시오.

<보
기>

김승옥의 소설에서 확인되는 사물 주어 구문들과, 특정 단어나 구절로 이어지는 문장의 연쇄 그리고 ①의인이나 활유를 활용해 자신의 몸을 타자화하는 문장들은, 단지 수사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부터조차 소외되는 현대 개인의 모습, 나아가 개인 간의 단절과 의사소통의 불능이라는 소설적 주제와도 연결된다.

3. 출제 의도

-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여러 상황을 이해하고 상호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문학이 말의 예술임을 인지하고 문학 작품 이해의 출발점이 되는 작품 속 어휘의 사전적 의미와 문맥적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소설이 당대의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고 역으로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지 확인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 기준 1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성취 기준 2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문학	정호웅 외	천재교육	2019	14-39		○
고등학교 문학	방민호 외	미래N	2019	27-48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25학년도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문학	김태석 외	한국교육방송공사	2024	184-185		×

5. 문항 해설

어떤 대상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그와 유사한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인 비유는 사물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기도 한다. 의인이나 활유는 무생물을 마치 생물처럼 표현함으로써 참신함과 새로운 관점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또한 자신의 몸을 타자화하는 소설의 독특한 문장은 ‘자기 소외’라는 소설적 주제와 긴밀히 연결되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한층 명료하게 만들어 준다. 이처럼 작품의 형식과 내용은 긴밀히 조응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p>이 문항은 문학의 비유 방법인 의인이나 활유를 정확히 이해하는지(4점), 그리고 형식과 내용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잘 이해하는지(4점)를 묻고 있다. 따라서 두 가지가 정확히 결합된 문장을 (나)의 A에서 찾아야 한다. 4점에 해당하는 문장은 이 가운데 전자만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분 점수만을 인정한다.</p> <p>‘그런, 부탁했다’ 8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그 안경잡이가 때마침 나에게 기특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놈 그럴듯하다’고 생각되어 추위 때문에 저려 드는 내 발바닥에게 조금만 참으라고 부탁했다.” -> 이 문장에서 첫 어절과 끝 어절 중 하나를 어기면 2점 감점. (ex. ‘내, 부탁했다’, ‘나는, 부탁했다’, ‘(그) 안경잡이가 부탁했다’)</p> <p>‘소가죽으로, 있었다’ 4점 “소가죽으로 지어진 내 검정 구두는 열고 있는 땅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찬 기운을 충분히 막아 내지 못하고 있었다.” -> 이 문장에서 첫 어절과 끝 어절 중 하나를 어기면 2점 감점. (ex. ‘검정구두는, 있었다.’) 낫표와 문장 부호는 채점에 영향 없음. 위 문장을 벗어나면 0점. 두 문장 이상으로 늘어져서 위 문장을 포함하면, 2점 감점</p>	8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그런, 부탁했다’ 8점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그 안경잡이가 때마침 나에게 기특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놈 그럴듯하다’고 생각되어 추위 때문에 저려 드는 내 발바닥에게 조금만 참으라고 부탁했다.” -> 이 문장에서 첫 어절과 끝 어절 중 하나를 어기면 2점 감점.

(ex. ‘내, 부탁했다’, ‘나는, 부탁했다’, ‘(그) 안경잡이가 부탁했다’)

‘소가죽으로, 있었다’ 4점

“소가죽으로 지어진 내 검정 구두는 얼고 있는 땅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찬 기운을 충분히 막아 내지 못하고 있었다.” -> 이 문장에서 첫 어절과 끝 어절 중 하나를 어기면 2점 감점.

(ex. ‘검정구두는, 있었다.’)

낫표와 문장 부호는 채점에 영향 없음. 위 문장을 벗어나면 0점. 두 문장 이상으로 늘어져서 위 문장을 포함하면, 2점 감점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수학) / 10번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
	핵심개념 및 용어	로그함수
예상 소요 시간	4분	

2. 문항 및 자료

10. 함수 $y = \log_{\frac{1}{4}} x$ 의 그래프를 x 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후, x 축의 방향으로 2만큼, y 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점 $(a, 2)$ 를 지날 때, 상수 a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3. 출제 의도

로그함수의 성질을 이해한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p>[수학 I] - (1)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 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p> <p>[12수학 I 01-06]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뜻을 안다.</p> <p>[12수학 I 01-08]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p>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I	박교식 외	동아출판	2018	24
기타	EBS 수능특강 수학 I	EBS 교육방송 편집부	한국교육방송공사	2024	31

5. 문항 해설

함수 $y = \log_{\frac{1}{4}} x$ 의 그래프를 x 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함수는 $y = -\log_{\frac{1}{4}} x$ 이고 이 그래프를 x 축의 방향으로 2만큼, y 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킨 함수는

$$y = -\log_{\frac{1}{4}}(x-2) + 1 \text{ (또는 } y = \log_4(x-2) + 1 \text{)이다.}$$

이 함수가 점 $(a, 2)$ 를 지나므로

$$2 = -\log_{\frac{1}{4}}(a-2) + 1 = \log_4(a-2) + 1$$

$$\log_4(a-2) = 1, \quad a-2 = 4 \text{ 이므로 } a = 6$$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y = -\log_{\frac{1}{4}}(x-2) + 1 = \log_4(x-2) + 1$ 을 구하면 (또는 $y = \frac{1}{2}\log_2(x-2) + 1$)	4점
	식 $2 = -\log_{\frac{1}{4}}(a-2) + 1$ 을 구하면 (또는 $2 = \frac{1}{2}\log_2(x-2) + 1$ 또는 $2 = \log_4(a-2) + 1$)	2점
	$a = 6$ 을 구하면	2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a = 6$$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수학) / 11번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II
	핵심개념 및 용어	정적분
예상 소요 시간	4분	

2. 문항 및 자료

11. $\int_0^3 x|x-2|dx$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3. 출제 의도

정적분을 계산할 수 있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수학II] - (3) 적분 - ㉔ 정적분 [12수학II 03-03] 정적분의 뜻을 안다. [12수학II 03-04] 다항함수의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II	박교식 외	동아출판	2018	126
기타	EBS 수능특강 수학 II	EBS 교육방송 편집부	한국교육방송공사	2023	74

5. 문항 해설

$$\begin{aligned}
 \int_0^3 x|x-2|dx &= \int_0^2 -x(x-2)dx + \int_2^3 x(x-2)dx \\
 &= \int_0^2 (-x^2 + 2x)dx + \int_2^3 (x^2 - 2x)dx \\
 &= \left[-\frac{1}{3}x^3 + x^2\right]_0^2 + \left[\frac{1}{3}x^3 - x^2\right]_2^3
 \end{aligned}$$

$$= \left(-\frac{8}{3} + 4\right) + \left(\frac{19}{3} - 5\right)$$

$$= \frac{8}{3}$$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int_0^3 x x-2 dx = \int_0^2 -x(x-2)dx + \int_2^3 x(x-2)dx$ (절대값을 나누면 2점, 구간을 나누어 계산하면 2점)	4점
	$= \int_0^2 (-x^2 + 2x)dx + \int_2^3 (x^2 - 2x)dx$ $= \left[-\frac{1}{3}x^3 + x^2\right]_0^2 + \left[\frac{1}{3}x^3 - x^2\right]_2^3$ (원시함수로 적분을 올바르게 계산하면)	2점
	$\frac{8}{3}$ 을 구하면	2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frac{8}{3}$$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수학) / 12번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I
	핵심개념 및 용어	연속함수의 성질
예상 소요 시간	5분	

2. 문항 및 자료

12. 함수

$$f(x) = \begin{cases} \frac{x^3 - 1}{ax^2 - a} & (x > 1) \\ \frac{3}{8} & (x \leq 1) \end{cases}$$

이 $x=1$ 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양수 a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3. 출제 의도

연속함수의 성질을 이해한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수학II] - (1) 함수의 극한과 연속 - ㉔ 함수의 연속 [12수학II01-03] 함수의 연속의 뜻을 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II	박교식 외	동아출판	2018	32
기타	EBS 수능특강 수학II	EBS 교육방송 편집부	한국교육방송공사	2023	19

5. 문항 해설

$$\lim_{x \rightarrow 1^-} f(x) = \lim_{x \rightarrow 1^+} f(x) = f(1) \text{ 이어야 하고}$$

$$\lim_{x \rightarrow 1^+} f(x) = \lim_{x \rightarrow 1^+} \frac{x^3 - 1}{a(x^2 - 1)} = \lim_{x \rightarrow 1^+} \frac{x^2 + x + 1}{a(x + 1)} = \frac{3}{2a} \text{이므로}$$

$$\frac{3}{2a} = \frac{3}{8}$$

즉, $a = 4$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lim_{x \rightarrow 1^+} f(x) = \frac{3}{2a}$ 를 구하면	4점
	식 $\frac{3}{2a} = \frac{3}{8}$ 을 세우면	2점
	$a = 4$ 를 구하면	2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lim_{x \rightarrow 1^-} f(x) = \lim_{x \rightarrow 1^+} f(x) = f(1) \text{이어야 하고}$$

$$\lim_{x \rightarrow 1^+} f(x) = \lim_{x \rightarrow 1^+} \frac{x^3 - 1}{a(x^2 - 1)} = \lim_{x \rightarrow 1^+} \frac{x^2 + x + 1}{a(x + 1)} = \frac{3}{2a} \text{이므로}$$

$$\frac{3}{2a} = \frac{3}{8}$$

즉, $a = 4$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수학) / 13번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I
	핵심개념 및 용어	도함수의 활용
예상 소요 시간	5분	

2. 문항 및 자료

13. 삼차함수 $f(x) = ax^3 + 3x^2 + 3ax + 1$ 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실수 a 의 최솟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3. 출제 의도

도함수와 증가함수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최솟값을 구할 수 있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p>[수학II] - (2) 미분 - ③ 도함수의 활용 [12수학II02-08]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p>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II	박교식 외	동아출판	2018	81
기타	EBS 수능특강 수학 II	EBS 교육방송 편집부	한국교육방송공사	2024	53

5. 문항 해설

함수 $f(x) = ax^3 + 3x^2 + 3ax + 1$ 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기 위해서는 $a > 0$ 이고

$f'(x) = 3ax^2 + 6x + 3a \geq 0$ 이어야 하므로,

2차 방정식 $3ax^2 + 6x + 3a = 0$ 의 판별식을 D 라 하면

$\frac{D}{4} = 9 - 9a^2 \leq 0$ 이어야 한다.

$a^2 \geq 1$, 즉 $a \geq 1$ 또는 $a \leq -1$

그런데 $a > 0$ 이므로

a 의 최솟값은 1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f'(x) = 3ax^2 + 6x + 3a$ (미분을 올바르게 하면 2점)	2점
	$\frac{D}{4} = 9 - 9a^2 \leq 0$ 를 구하면 (또는 $1 - a^2 \leq 0$)	4점
	a 의 최솟값은 1을 구하면	2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a 의 최솟값은 1이다.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수학) / 14번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
	핵심개념 및 용어	수열의 합
예상 소요 시간	6분	

2. 문항 및 자료

14. 수열 $\{a_n\}$ 이 모든 자연수 n 에 대하여 $a_n + a_{n+8} = 5$ 를 만족시킨다.

$\sum_{n=1}^4 a_{2n} = 1$ 일 때, $\sum_{n=1}^{36} a_{2n}$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3. 출제 의도

수열의 합을 이해한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수학 I] - (3) 수열 - ㉔ 수열의 합 [12수학 I 03-05] 여러 가지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 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 I	박교식 외	동아출판	2018	139
기타	EBS 수능특강 수학 I	EBS 교육방송 편집부	한국교육방송공사	2024	101

5. 문항 해설

$$\begin{array}{ll}
 a_2 + a_{10} = 5 & a_{10} + a_{18} = 5 \\
 a_4 + a_{12} = 5 & a_{12} + a_{20} = 5 \\
 a_6 + a_{14} = 5 & a_{14} + a_{22} = 5 \\
 a_8 + a_{16} = 5 & a_{16} + a_{24} = 5
 \end{array}
 \quad \dots\dots$$

각각 변끼리 더하면

$$a_2 + a_4 + \dots + a_{16} = 20, \quad a_{10} + a_{12} + \dots + a_{24} = 20$$

$$\sum_{n=1}^4 a_{2n} = a_2 + a_4 + a_6 + a_8 = 1 \text{ 이므로}$$

$$\sum_{n=5}^8 a_{2n} = a_{10} + a_{12} + a_{14} + a_{16} = 20 - 1 = 19$$

$$\sum_{n=1}^{36} a_{2n} = \left(\sum_{n=1}^4 a_{2n} + \sum_{n=5}^8 a_{2n} \right) + \left(\sum_{n=9}^{12} a_{2n} + \sum_{n=13}^{16} a_{2n} \right) + \dots + \sum_{n=33}^{36} a_{2n}$$

$$= (1 + 19) + (1 + 19) + \dots + (1 + 19) + 1 = 20 \times 4 + 1 = 81$$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a_2 + a_4 + \dots + a_{16} = 20$ 와 같이, 8개 항을 더하여 20이 나오면 또는 $a_{10} + a_{12} + a_{14} + a_{16} = 19$ 와 같이, 4개 항을 더하여 19가 나오면	4점
	$\sum_{n=1}^{36} a_{2n}$ 을 4개 항들의 합 또는 8개 항들의 합으로 나누면	2점
	81이 나오면	2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begin{array}{ll} a_2 + a_{10} = 5 & a_{10} + a_{18} = 5 \\ a_4 + a_{12} = 5 & a_{12} + a_{20} = 5 \\ a_6 + a_{14} = 5 & a_{14} + a_{22} = 5 \\ a_8 + a_{16} = 5 & a_{16} + a_{24} = 5 \end{array} \quad \dots$$

각각 변끼리 더하면

$$a_2 + a_4 + \dots + a_{16} = 20, \quad a_{10} + a_{12} + \dots + a_{24} = 20$$

$$\sum_{n=1}^4 a_{2n} = a_2 + a_4 + a_6 + a_8 = 1 \text{ 이므로}$$

$$\sum_{n=5}^8 a_{2n} = a_{10} + a_{12} + a_{14} + a_{16} = 20 - 1 = 19$$

$$\sum_{n=1}^{36} a_{2n} = \left(\sum_{n=1}^4 a_{2n} + \sum_{n=5}^8 a_{2n} \right) + \left(\sum_{n=9}^{12} a_{2n} + \sum_{n=13}^{16} a_{2n} \right) + \dots + \sum_{n=33}^{36} a_{2n}$$

$$= (1 + 19) + (1 + 19) + \dots + (1 + 19) + 1 = 20 \times 4 + 1 = 81$$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수학) / 15번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
	핵심개념 및 용어	삼각함수
예상 소요 시간	8분	

2. 문항 및 자료

15. $-2 \leq x \leq 4$ 일 때, 방정식 $|\sin \pi x|^2 - \cos^2 \pi x = 0$ 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3. 출제 의도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해한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수학 I] - (2) 삼각함수 - ㉠ 삼각함수 [12수학 I 02-02] 삼각함수의 뜻을 알고, 사인함수, 코사인함수, 탄젠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	박교식 외	동아출판	2018	72
기타	EBS 수능특강 수학 I	EBS 교육방송 편집부	한국교육방송공사	2024	49

5. 문항 해설

$$\sin^2 \pi x - \cos^2 \pi x = \sin^2 \pi x - (1 - \sin^2 \pi x) = 2 \sin^2 \pi x - 1 = 0$$

이므로 $\sin \pi x = \pm \frac{1}{\sqrt{2}}$ 이고

$0 \leq x \leq 2$ 에서 근 $x = \frac{1}{4}, \frac{3}{4}, \frac{5}{4}, \frac{7}{4}$ 이고 근의 합은 4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주기가 2이므로

$2 \leq x \leq 4$ 에서 모든 근의 합은 $4+8=12$ 이고
 $-2 \leq x \leq 0$ 에서 모든 근의 합은 $4-8=-4$ 이다.
 그러므로 구하는 값은 12이다.

(별해1)

$$\sin^2 \pi x - \cos^2 \pi x = (\sin \pi x - \cos \pi x)(\sin \pi x + \cos \pi x) = 0$$

- i) $\sin \pi x = \cos \pi x$ 의 $0 \leq x \leq 2$ 에서의 해 $x = \frac{1}{4}, \frac{5}{4}$ 이고
- ii) $\sin \pi x = -\cos \pi x$ 의 $0 \leq x \leq 2$ 에서의 해 $x = \frac{3}{4}, \frac{7}{4}$ 이다.

그러므로 $0 \leq x \leq 2$ 에서 모든 근의 합은 4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면, 주기가 2이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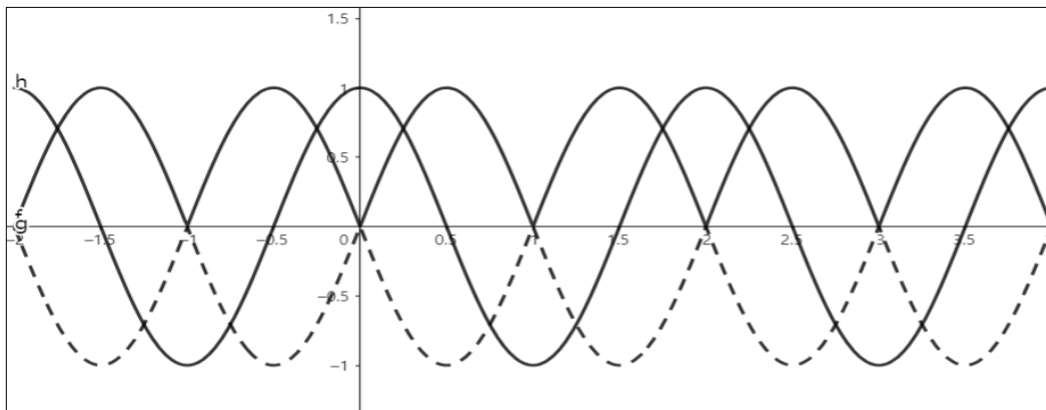
$0 \leq x \leq 4$ 일 때 모든 근의 합은

$$4 + (4+8) = 4 \times (1+3) \text{ 이고}$$

$-2 \leq x \leq 0$ 일 때, 모든 근의 합은 $4 \times (-1)$ 이다.

그러므로 구하는 값은 12이다.

(별해2)



$0 \leq x \leq 2$ 구간에서

$$|\sin \pi x| - \cos \pi x = 0 \text{의 근은 1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 \frac{x_1 + x_2}{2} = 1 \text{이다.}$$

$$\cos \pi x + |\sin \pi x| = 0 \text{의 근도 역시 1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 \frac{x_3 + x_4}{2} = 1 \text{이다.}$$

그러므로 $0 \leq x \leq 2$ 에서 모든 근의 합은 4이다.

$2 \leq x \leq 4$ 구간에서

$$|\sin \pi x| - \cos \pi x = 0 \text{의 근은 3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 \frac{x_1 + x_2}{2} = 3 \text{이다.}$$

$$\cos \pi x + |\sin \pi x| = 0 \text{의 근도 역시 3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 \frac{x_3 + x_4}{2} = 3 \text{이다.}$$

그러므로 $2 \leq x \leq 4$ 에서 모든 근의 합은 $12 = 4 \times 3$ 이다.

$0 < x \leq 4$ 일 때, 모든 근의 합은 $4 \times (1+3)$ 이고

$-2 \leq x \leq 0$ 일 때, 모든 근의 합은 $4 \times (-1)$ 이다.

그러므로 구하는 값은 12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 \sin \pi x ^2 - \cos^2 \pi x = 0$ 을 $\cos^2 \pi x = 1 - \sin^2 \pi x$ (또는 $\sin^2 \pi x + \cos^2 \pi x = 1$)을 이용하여 변형을 하면	2점
	$\sin \pi x = \pm \frac{1}{\sqrt{2}}$ 와 같은 식을 구하면	2점
	$0 \leq x \leq 2$ 에서 근 $x = \frac{1}{4}, \frac{3}{4}, \frac{5}{4}, \frac{7}{4}$ 또는 $2 \leq x \leq 4$ 에서의 근 $x = 2 + \frac{1}{4}, 2 + \frac{3}{4}, 2 + \frac{5}{4}, 2 + \frac{7}{4}$ 을 구하면	2점
	12를 구하면	2점

하위 문항	별해 1 채점 기준	배점
	$ \sin \pi x ^2 - \cos^2 \pi x = 0$ 을 $(\sin \pi x - \cos \pi x)(\sin \pi x + \cos \pi x) = 0$ 으로 변형하면	2점
	$\sin \pi x = \cos \pi x$ 의 $0 \leq x \leq 2$ 에서의 해 $x = \frac{1}{4}, \frac{5}{4}$ 또는 $\sin \pi x = -\cos \pi x$ 의 $0 \leq x \leq 2$ 에서의 해 $x = \frac{3}{4}, \frac{7}{4}$ 를 구하면	2점
	$0 \leq x \leq 2$ 에서 근의 합이 4. 또는 $2 \leq x \leq 4$ 에서의 근의 합이 12임을 구하면	2점
	12를 구하면	2점

하위 문항	별해 2 채점 기준	배점
	$ \sin \pi x - \cos \pi x = 0$ 의 근은 1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frac{x_1 + x_2}{2} = 1$ 또는 $\cos \pi x + \sin \pi x = 0$ 의 근도 역시 1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frac{x_3 + x_4}{2} = 1$ 을 구하면 4점	4점
	$0 \leq x \leq 2$ 에서의 근의 합이 4 또는 $2 \leq x \leq 4$ 에서 근의 합이 12 를 구하면 2점.	2점
	12를 구하면	2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구하는 값은 12이다.

[한신대학교 문항정보]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 계열(국어) / 1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고등학교 독서 과목
	핵심개념 및 용어	보이스 피싱, 금융 실명제법, 죄형 법정주의, 교사범, 방조범, 필요적 공범, 정범
예상 소요 시간	5분	

2. 문항 및 자료

<지문>

타인으로부터 예금 계좌 대여나 예금 인출 심부름 제안을 받게 된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이스 피싱 범죄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스 피싱 범죄에서는 대개 타인 명의의 예금 계좌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아 돈을 가로채는데 이때 타인 명의 예금 계좌를 사용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보이스 피싱 범죄자를 ‘갑(甲)’, 피해자를 ‘을(乙)’이라고 하고, ‘을’이 돈을 입금하는 계좌의 명의인을 ‘병(丙)’이라고 가정할 때, 첫 번째 방법은 ‘갑’이 ‘병’ 몰래 ‘병’ 명의의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병’이 개설한 예금 계좌를 ‘갑’이 빌려서 사용하는 예금 계좌 대여이다. ‘병’이 자신의 예금 통장과 도장을 ‘갑’에게 넘겨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면 예금 계좌 대여로 인정된다. 세 번째 방법은 ‘병’이 ‘갑’의 부탁을 받고 ‘병’ 자신의 예금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해서 ‘갑’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다. 이들 중 첫 번째 경우에는 ‘병’이 처벌될 가능성이 없지만 두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에는 ‘병’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려면 반드시 그 행위가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 하는데, 구성 요건이란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미리 정해 둔 것을 뜻한다. 처벌 대상 행위는 미리 법률로 정해져야 하며 이것을 ‘죄형 법정주의’라고 한다. 보이스 피싱 범죄에서 피해자를 속여서 돈을 가로채는 행위는 형법에 규정된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예금 계좌의 대여나 개설과 관련한 구성 요건은 금융 실명제법에 규정되어 있다. 금융 실명제법에 의하면 타인 명의로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금융 실명제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예금 계좌의 명의인과 실제로 그 예금 계좌를 사용하여 금융 거래를 하는 사람이 일치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예금 계좌의 대여, 즉 ‘병’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 계좌를 ‘갑’에게 빌려주어 ‘갑’이 사용하게 하는 것도 독립된 구성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와 달리 예금 계좌의 명의인이 타인의 부탁을 받고 스스로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은 금융 실명제법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이런 행위가 타인의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이면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다. 형법에는 타인에게 범죄 행위를 하라고 부추긴 교사범이나 타인의 범죄 행위를 도와준 방조범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조문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교사범과 방조범을 통틀어 공범이라고 하고, 교사범이 부추긴 범죄나 방조범이 도와준 범죄를 저지른 자를 정범이라고 한다. 범죄 중에는 성질상 적어도 두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도 있다. 이러한 범죄 유형 가운데 하나가 필요적 공범이다. 이 경우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은 모두 그 범죄의 정범으로 처벌된다. 예를 들어 뇌물 수수 범죄에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뇌물을 받은 사람, 적어도 두 사람이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으므로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고, 그 두 사람은 모두 정범으로 처벌된다.

교사범은 범죄가 발생하도록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이미 범죄 행위를 하기로 결심한 정범을 도와준 것에 불과한 방조범보다 더 나쁘다. 따라서 교사범은 정범과 같은 형벌을 받는 데 비해 방조범은 정범보다 가벼운 형벌을 받는다.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범죄 실행이라는 요건 이외에도, 방조 행

위와 방조의 고의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첫 번째 요건인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죄 행위를 하기 쉽게 해 주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범행 도구를 제공하는 등의 물질적 방조뿐 아니라 이미 범행을 결심한 정범을 격려하는 정신적 방조도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 요건인 '방조의 고의'는 두 가지 고의로 구성된다. 우선 정범이 저지르려고 하는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인 정범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방조범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행을 돕는 행위라는 것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문항>

1. <보기>는 윗글의 ㉠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①은 다섯 음절, ②는 여섯 음절로 쓸 것).

**<보
기>**

㉠은 '갑'이 '병'에게서 '병'의 예금 계좌를 빌려 사용한 경우이므로 예금 계좌 대여 범죄에 해당한다. 예금 계좌 대여 범죄는 최소 두 명, 즉 계좌를 대여해 준 자와 대여받은 자가 존재하여야만 성립하므로 (①)에 해당하고, '병'은 정범으로 처벌받는다. 이때 '병'은 예금 계좌의 명의인과 예금 계좌의 사용자가 달라지게 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법률 중에서 (②)에 규정된 범죄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처벌될 수 있다.

3. 출제 의도

- 지문의 핵심적인 내용과 전체적인 내용의 이해도를 점검한다.
- 지문에 등장하는 개념과 용어를 이해하고, 개념에 맞는 정확한 용어를 찾아내어 제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 음절, 어절, 단어, 문장 등 기초적인 문법 지식의 습득 정도를 확인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성취 기준 2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제구성 여부
고등학교 독서	박영목 외	천재교육	2019	116-122, 123-129		○
고등학교 독서	한철우 외	비상교육	2019	40-49, 142-159		○
고등학교 독서	방민호 외	미래엔	2019	74-83, 152-173		○

교과서 외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자료명(도서명)		김태석 외	한국교육방송공사	2024	156-158		○

5. 문항 해설

이 문항은 예금 계좌 대여 범죄가 무엇이고 범죄에 관련된 인물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한 상태에서, 이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를 글의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윗글의 ㉠은 ‘병’이 개설한 예금 계좌를 ‘갑’이 빌려서 사용하는 예금 계좌 대여 범죄로, 이 예금 계좌 대여 범죄에는 계좌를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두 사람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기>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윗글의 3문단에서 범죄 중에는 성질상 두 사람을 필요로 하는 범죄가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과 이때의 두 사람은 ‘정범’으로 처벌된다는 내용을 이해하였다면 ㉠의 자리에는 ‘필요적 공범’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는 2문단을 통해 타인의 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하는 것 자체가 ‘금융 실명제법’의 구성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읽고 이해하였다면 ㉡가 바로 ‘금융 실명제법’이라는 것을 도출할 수 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p>※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2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어절과 끝 어절을 제대로 찾지 못했을 경우 - 괄호 넣기에서 앞뒤 문맥과 호응하지 못했을 경우 - 글자 수 제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 발문이 요구하는 2가지 조건 중 1개만 어겼을 경우 - 윗글에서 찾으라는 지시를 어겼을 경우(학생이 임의로 답안 작성) <p>* 위의 조건들이 중복되더라도 1회만 감점(-2점)</p> <p>* 위의 감점 기준은 이하 문항에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를 각각 4점으로 배점함. ① 필요적 공범: 4점 (그 외는 모두 0점) ② 금융 실명제법: 4점 (그 외는 모두 0점) • 발문에 ‘㉠은 5음절, ㉡는 6음절’이라는 요구 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함.(미준수 시 위 조건에 따라 -2점) 	8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① 필요적 공범
 - ② 금융 실명제법
- (띄어쓰기 관계없이 정답 처리함.)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 계열(국어) / 2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고등학교 독서 과목
	핵심개념 및 용어	보이스 피싱, 금융 실명제법, 죄형 법정주의, 교사법, 방조범, 필요적 공범, 정범
예상 소요 시간	5분	

2. 문항 및 자료

<지문>

자연 계열(국어) 1번과 동일.

<문항>

2. <보기>는 어느 마을에서 일어난 절도 사건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말을 윗글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

〈보 기〉

어느 마을의 곡식 창고에 돈이 될 만한 곡식이 가득 있는 것을 안 A는 B에게 이 정보를 주고 곡식 창고를 털도록 지시했다. A의 말을 들은 B는 곡식 창고를 털기로 결심하고, C의 도움을 얻어 곡식을 운반할 트럭을 구했다. 범행 당일 B는 곡식 창고의 곡식을 모두 훔치는 데 성공했다.

이 사건에서 B는 정범이고 A와 C는 공범인데, A는 B에게 절도를 부추긴 (①)이고, C는 B에게 절도한 곡식의 운반에 필요한 트럭을 제공하여 (②) 방조를 한 방조범이다.

3. 출제 의도

- 글의 전반적인 내용을 핵심어를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지문에 제시된 핵심 개념을 파악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점검한다.
- 보조문에 제시된 사건을 주어진 지문에 맞추어 적용하여 사고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성취 기준 2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독서	박영목 외	천재교육	2019	116-122, 123-129		○
고등학교 독서	한철우 외	비상교육	2019	40-49, 142-159		○
고등학교 독서	방민호 외	미래엔	2019	74-83,152-173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25 수능 특강 국어영역 독서	김태석 외	한국교육방송공사	2024	156-158		○

5. 문항 해설

이 문항은 지문에서 설명하는 교사범, 방조범, 정범 등 범죄 관련자들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보조문에 새롭게 주어진 사례에 이 개념을 적용하여 정확한 어휘를 찾아 적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지문의 3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조문에 주어진 사례에서 A는 타인의 곡식을 절도하도록 지시한 ‘교사범’, B는 타인의 곡식을 절도한 ‘정범’, C는 절도 행위를 도와준 ‘방조범’이다. 또한 4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방조범인 C가 도와준 행위의 형태는 B가 절도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트럭’과 같은 물질적 도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물질적 방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①의 자리에는 ‘교사범’을, ②의 자리에는 ‘물질적’을 써야 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②를 각각 4점으로 배점함. ① 교사범: 4점 (그 외는 모두 0점) ② 물질적: 4점 (그 외는 모두 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문의 ②의 뒤에 ‘방조’가 있으므로 ‘물질적’이 아니라 ‘물질적 방조’라고 ‘방조’까지 쓴 경우는 괄호 넣기의 문맥을 미준수한 것이므로 감점 조건에 따라 -2점 	8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① 교사범
- ② 물질적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 계열(국어) / 3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고등학교 독서 과목
	핵심개념 및 용어	남세균, 광합성, 오존층, 호기성 생물, 질소 고정 능력, 포자, 수직 이동
예상 소요 시간	4분	

2. 문항 및 자료

<지문>

(가)

남세균은 조류 중 지구상에 최초로 존재하였으며, 약 35억 년 전의 지층에서 화석으로 발견되었다. 남세균은 지구에서 햇빛을 이용하여 물과 이산화 탄소를 산소와 영양분으로 만든 광합성 생물로, 산소가 거의 없던 과거 지구의 대기는 남세균으로 인해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었다. 남세균으로 만들어진 산소는 지구 대기 중에서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과 만나 오존을 형성하였고, 이렇게 만들어진 오존은 20~25km 상공에서 오존층을 형성하였다.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하면 산소 원자를 방출하는데, 산소 원자는 다른 산소 분자와 결합하면서 열을 방출한다. 즉 지구 대기 상층부에 형성된 오존층은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에게 해로울 수 있는 자외선을 흡수하는 동시에 지구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결국 남세균으로 인해 과거 지구 대기에 산소가 생겨나면서 산소가 필요한 호기성 생물이 탄생할 수 있었고, 오존층이 형성되어 지표면에 닿는 자외선이 약해지면서 물속이 아닌 육지에서도 생명체가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남세균은 지구상에서 오래전부터 존재한 만큼 환경 변화에 뛰어난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 일부 남세균은 대기 중의 질소를 유기 질소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질소 고정 능력이 있어, 양분이 되는 질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 또한 생존에 불리한 환경에서는 포자를 형성해 물속 퇴적층에 가라앉아 있다가, 생존에 좋은 환경이 되면 다시 포자가 발아하여 성장하기도 한다. 남세균은 세포 내에 공기 주머니를 갖고 있어 상하로 수직 이동을 하는데, 이를 통해 성장에 필요한 햇빛이나 양분이 많은 곳으로 이동한다.

(나)

녹조 현상은 강이나 호수에 남세균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물의 색깔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이다. 남세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영양물질과 수온 및 일사량, 물의 흐름이 있다.

도심에서 나오는 하수, 각종 농축산 시설 등에서 배출하는 폐수,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비료 등에는 질소나 인과 같은 여러 영양물질이 들어 있다. 이런 영양물질은 남세균의 증식에 필수적이며, 남세균이 영양물질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증식하게 되면 녹조 현상이 발생한다.

수온은 남세균의 성장을 좌우하는 요인이며, 햇빛은 남세균의 광합성을 위해 필수적 요소이다. 녹조 현상의 원인이 되는 남세균은 20~30℃의 수온에서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며,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잘 자란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온이 높아지고 일사량이 증가하는 여름철에 남세균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진다.

또한 물의 흐름이 약하거나 정체되어 있으면 남세균이 더 많이 증식할 수 있다. 물의 흐름이 빠르면 물 표면에 떠다니는 남세균이 하류로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한곳에서 대량으로 증식하기 어렵다. 수심이 깊고 흐름이 정체된 강이나 호수에서는 여름철에 성층 현상이 나타난다. 성층 현상이란 따뜻하고 밀도가 낮은 물이 위에 놓이고 차갑고 밀도가 높은 물이 아래에 놓여 밀도 차에 의해 수층이 분리되어 물이 수직으로 잘 이동하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성층 현상이 일어나 물이 잘 섞이지 않으면 수면의 온도

가 더욱 올라가게 되어 남세균이 성장하기 더 좋은 여건이 만들어진다.

남세균은 수생태계에서 생산자의 역할을 하지만, 남세균이 과다하게 증식하여 녹조 현상이 일어나면 수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남세균이 과다하게 증식하면 물속으로 들어가는 햇빛을 차단하여 물속의 수생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물속의 생물들이 산소 부족으로 폐사하기도 하고, 폐사한 생물들이 부패하면서 악취와 독소가 발생해 수생태계가 점점 파괴된다.

<문항>

3. <보기>는 남세균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 (가)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

**<보
기>**

지구의 대기에 산소의 농도를 증가시킨 남세균은 호기성 생물을 탄생시켰다. 또한 남세균으로 인해 지구의 대기에 (①)이/가 형성되어 지표면에 닿는 자외선이 약해지면서 수중뿐 아니라 육지에 서도 생명체가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남세균은 질소 고정 능력을 통해 질소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생존에 필요한 환경이 악화될 경우 (②)을/를 형성하였다가 환경이 좋아지면 다시 성장할 수 있으며, 공기 주머니를 통해 수직 이동을 하는 등 환경 변화에 뛰어난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

3. 출제 의도

-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핵심적인 개념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읽고 문맥을 파악하여 핵심 어휘를 추출하는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한다.
- 과학·기술 지문의 객관적 사실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사실 관계 파악 능력을 평가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성취 기준 2	[12독서03-03]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독서	방민호 외	미래엔	2019	84-93, 174-200		○
고등학교 독서	한철우 외	비상교육	2019	40-49, 180-197		○
고등학교 독서	박영목 외	천재교육	2019	56-63, 132-151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25학년도 수능 완성 국어 영역 독서·문학·화법과 작문	김태석 외	한국교육방송공사	2024	162-165		○

5. 문항 해설

이 문항은 남세균이 지구 생태계에 미친 영향과 남세균의 환경 변화 적응력을 서술한 지문 (가)를 읽고, 그 내용을 정리한 보조문의 빈칸에 핵심이 되는 어휘를 찾아 정확하게 적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가)의 1문단을 읽고 남세균으로 만들어진 산소가 오존을 형성하고 이로 인해 지구의 20~25km 상공에 ‘오존층’이 형성됨으로써 지표면에 닿는 자외선이 조절되는 순기능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구의 대기에 형성되어 지표면에 닿는 자외선을 약해지게 만든 것을 뜻하는 보조문 ①에 들어갈 말은 ‘오존층’이다. 또한 남세균이 만든 산소가 자외선과 만나 오존을 형성하였고 이 오존이 모여 층을 이루어 결과적으로 오존층을 형성한 것이므로, 포괄적 의미에서 ①은 ‘오존’도 정답이 된다.

한편 (가)의 2문단을 읽고 남세균은 질소 고정 능력을 통한 생존, ‘포자’ 형성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의 생존, 공기 주머니를 통해 상하 이동을 통한 이동의 용이성이라는 세 가지의 환경 변화 적응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세균이 생존에 필요한 환경이 악화될 때 형성하는 것은 ‘포자’이므로 보조문 ②에 들어갈 말은 ‘포자’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②를 각각 4점으로 배점함. ① 오존층/오존: 4점 (그 외는 모두 0점) ② 포자: 4점 (그 외는 모두 0점) 	8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① 오존층 / 오존
- ② 포자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 계열(국어) / 4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고등학교 독서 과목
	핵심개념 및 용어	남세균, 녹조 현상, 영양물질, 수온, 일사량, 물의 흐름, 성층 현상
예상 소요 시간	5분	

2. 문항 및 자료

<지문>

자연 계열(국어) 3번과 동일.

<문항>

4. 윗글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 1>의 환경에 대해 <보기 2>와 같이 가정하였을 때, <보기 2>의 ①, ②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 (나)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

————— <보 기 —————

1)

- A 강 주변에는 인구 밀집 지역이 없으며, 폐수 처리 시설이 미흡한 다수의 축산 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 B 호수 인근에는 과수 농원이 많아, 비가 오면 땅에 있는 질소나 인 등의 비료 성분이 B 호수로 유입된다.

————— <보 기 —————

2)

- A 강 주변에 있는 축산 시설의 폐수 처리 장치를 개선한다면, 남세균이 발생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 수심이 깊은 A 강 하류에 댐을 만든다면, 날씨가 더운 계절에 (①) 현상이 발생하여 남세균이 잘 성장할 것이다.
- B 호수에 비가 내린 뒤에도 물의 온도, 물의 흐름 등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②)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다.

3. 출제 의도

-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핵심 개념의 과학 현상을 추론해 내는 능력을 평가한다.
- 보조문의 내용을 읽고 문맥을 파악하여 지문의 내용과 복합적으로 융합하여 사고할 수 있는지를 점검한다.
- 과학·기술 지문의 객관적 사실을 이해하고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 기준 1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성취 기준 2	[12독서03-03]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독서	방민호 외	미래엔	2019	84-93, 174-200		○
고등학교 독서	한철우 외	비상교육	2019	40-49, 180-197		○
고등학교 독서	박영목 외	천재교육	2019	56-63, 132-151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25학년도 수능 완성 국어 영역 독서·문학·화법과 작문	김태석 외	한국교육방송공사	2024	162-165		○

5. 문항 해설

이 문항은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남세균의 발생 요인들과 녹조 현상이 수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한 지문 (나)를 읽고, 보조문의 조건에 따라 남세균의 성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유추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나)에서 녹조 현상을 일으키는 남세균은 영양물질이 많고, 수온이 높으며, 일사량이 풍부하고, 물의 흐름이 약하거나 정체될 때 더 많이 증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기 2>에 따라 만일 A 강 하류에 댐을 만든다면 A 강은 물의 흐름이 정체될 것이라는 점과, A 강은 수심이 깊다는 점, 날씨가 더운 계절, 즉 여름철이라는 점에서 지문 (나)의 4문단의 내용에 따라 ‘성층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①의 자리에는 ‘성층’으로 답해야 한다.

<보기 1>에 따르면 B 호수는 비가 오면 질소나 인 등의 영양물질이 호수로 유입되는데, <보기 2>의 상황에 따라 수온, 일사량, 물의 흐름 등 녹조 현상의 발생 조건이 유지된다면, 지문 (나)의 전체적인 내용에 따라 남세균의 발생 요인인 영양물질, 수온, 일사량, 물의 흐름이 모두 갖추어진 것이므로, B 호수에는 ‘녹조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②의 자리에는 ‘녹조’로 답해야 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 ②를 각각 4점으로 배점함. ① 성층: 4점 (그 외는 모두 0점) ② 녹조: 4점 (그 외는 모두 0점) • 보조문의 ①과 ②의 뒤에 모두 ‘현상’이 적혀 있으므로 각각 ‘성층’, ‘녹조’가 아니라 ‘성층 현상’, ‘녹조 현상’이라고 쓴 경우는 괄호 넣기의 문맥을 미준수한 것이므로 감점 조건에 따라 -2점 	8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① 성층
- ② 녹조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 계열(국어) / 5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고등학교 문학 과목
	핵심개념 및 용어	문학과 사회, 등장인물의 성격과 갈등
예상 소요 시간	5분	

2. 문항 및 자료

<지문>

민도식이 나서서 험악해진 분위기를 간신히 가라앉혔다.

“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한 건 처음부터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았던 거야. 경영자 독단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원들의 의사를 물어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가지고 결정했다는 인상을 대내외에 풍길 필요가 있었던 거야. 이제 길은 두 가지뿐야. 나머지 절반을 찾아서 마저 몸에 꿰든가, 아니면 기왕 우리 몸에 입혀진 절반을 아예 벗어 버리든가 각자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야. 저기 좀 보라고. 저 사람이 아까부터 우릴 비웃고 있어. 제복 얘기 앞으로는 그만하기로 하지.”

생산부 공원 복장을 한 사내가 엇비뚜름한 자세로 이쪽을 돌아다보며 야릇한 웃음을 입가에 물고 있었다. 그를 보더니 장상태가 화를 벌컥 내면서 큰 소리로 미스 윤을 불렀다.

“이봐, 저기 앉은 저 사람 내가 좀 보잔다구 전해!”

눈이 휘둥그레진 미스 윤이 종종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가기 전에 그쪽에서 자진해서 먼저 일어섰다. 그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장의 목소리가 컸던 것이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여전히 웃음기를 입에 문 얼굴이 장을 정면으로 상대했다.

“당신 뭐야? 뭘데 어제부터 남의 얘길 엿듣고 비웃지, 비웃길?”

“비웃음으로 보셨다면 용서하십시오. 엿듣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들릴 정도로 선생님들 목소리가 컸습니다. 말씀 내용이 동림 산업에 계신 분들 같아서 저도 모르게 관심이 컸나 봅니다.”

“오오라, 그리고 보니 당신도 동림 가족의 일원이 분명하군. 부서가 어디야?”

“생산부 제1 공장입니다. 거기서 잡역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 “권입니다.”

“이름이 권이다? 그럼 성까지 아주 짝을 채워 보게.” / “성이 권입니다.”

만만한 상대를 만난 장은 권 씨를 노리갯감으로 삼아 화풀이할 작정임을 분명히 하면서 동료들에게 은밀히 눈짓을 보냈다. 함께 놀이에 끼어들라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도식이 보기엔 첫눈에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참을성 좋게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것은 생산부 공원들이 본사의 사무직을 대할 때 일반적으로 갖는 비굴한 표정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적대감도 아닌 그것은 일종의 자신감의 표현임이 분명했다. 두툼한 입술과 커다란 눈이 얼핏 눈에 띄는 특징이었다. 장상태하고 비교해서 둘이 서로 어금어금할* 정도로 작은 체구였다. 실제 나이는 장보다 두세 살쯤 위일 것 같은데 적어도 이삼십 년은 더 세상을 살아 냈을 법한 관록 같은 게 엿보이는 얼굴이었고, 그것이 교양이라는 것하고도 연결되어 잡역부라던 자기소개가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짝을 채우기 싫다 이거지? 좋았어. 그런데 자네가 하는 잡역일하고 무슨 상관관이 있어서 우리 얘기에 이틀 동안이나 관심을 갖지?”

“물론 상관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에선 작업 중에 팔이 뭉텅 잘려져 나간 사람이 있고 그 팔값을 찾아 주려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선 몸에 걸치는 옷 때문에 거기에 자기

[A]

인생을 걸려는 분들도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장상태의 얼굴색이 하얗게 질리는 것 같았다. 장이 어물거리는 사이에 우기환이 나섰다. 우 역시 장처럼 권 씨의 나이를 전혀 셈해 주지 않는 말투였다.

“팔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옷도 중요해. 옷을 지키려는 건 다시 말해서 팔을 찾으려는 거나 마찬가지로 일이야. 팔이 옷에 우선한다 생각하고 우릴 비웃었다면 당신은 분명히 덜떨어진 사람이야.”

“그래서 다방에 앉아서 투쟁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지?”

우의 응원에 힘입어 전열을 가다듬고 난 장이 입꼬리를 비틀면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옷도 중요하고 팔도 중요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을 찾으려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자세만큼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생님들한테 팔이 있듯이 옷은 우리들도 필요하니까요. 이제 또 들어가 봐야죠.”

팔과 옷을 한참 주고받던 권 씨가 장과 우를 향해 차례로 목례를 보낸 다음 핑하니 다방을 나가 버렸다. [중략 부분 줄거리] 회사 창업 기념일 행사를 앞두고 모든 직원들의 제복을 맞추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만, 민도식과 우기환 둘은 이를 거부하기로 의기투합한다. 이에 두 사람은 사장과 면담을 하게 되는데, 사장은 두 사람을 다독이면서 회사의 뜻에 따라 줄 것을 요구한다.

사장실로 들어서기 무섭게 권 씨는 민도식을 향해 눈자위를 하얗게 부릅뜨며 보였다. 우기환의 돌연한 행동에 초벌 놀랐던 도식은 권 씨의 험악한 표정에 재벌 놀라면서 엉거주춤 궁둥이를 들었다. 빨리 자리를 비켜 달라는 권 씨의 무언의 협박이 빔발치고 있었다.

“죄송해요, 사장님. 한사코 안 된다는데두 부득부득 우기면서 이 사람이…….”

뒤쫓아 들어온 여비서를 손짓으로 내보낸 다음 사장이 말했다. / “어서 오게, 권 군.”

자기보다 더 ㉠사정이 절박한 사람을 위해서 민도식은 사장실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잘 생각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게.”

도어가 채 닫히기 전에 사장의 꺾꺾한 목소리가 도식의 등 뒤에 따라붙는다.

“장 선생 집에 전화 걸었더니 부인이 받대요. 새로 맞춘 유니폼 입구 아침 일찍 출근했다구요.”

아내의 바가지 굵는 소리로 창업 기념일의 아침은 시작되었다. 체육 대회가 열리는 제1 공장까지 가자면 다른 날보다 더 일찍 나서야 되는데도 여전히 멍기적거리고만 있는 남편 곁에서 아내는 시종 근심스런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제복 때문에 총각 사원 하나가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을 아내는 믿지 않았다.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강제로 모가지가 잘린 거라고 굳게 믿었다.

“까짓것 난 필요 없어. 거기 아니면 밥 빌어먹을 데 없는 줄 알아? 세상엔 아직도 유니폼 안 입는 회사가 수두룩하단 말야!”

[B
]

거듭되는 재촉에 이렇게 큰소리로 대거리는 했지만 결국 민도식은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고 말았다. 시내를 멀리 벗어나서 교외에 널찍하게 자리 잡은 제1 공장 앞에 당도했을 때는 벌써 개회식이 시작된 뒤였다. 공장 정문 철책 너머로 검정 곤색 일색의 운동장을 넘어다보는 순간 민도식은 갑자기 숨이 턱 막혀 옴을 느꼈다. 새로 맞춘 제복으로 단장한 남녀 전 사원이 각 부서별로 군대처럼 질서 정연하게 도열해 서서 연단에 선 지휘자의 손끝을 우러러보며 사가(社歌)를 제창하기 직전의 예비 운동으로 목청을 가다듬는 헛기침들을 하고 있었다. 이윽고 공장 일대를 한바탕 들었다 놓는 우렁찬 노래가 터지기 시작했다. 노래 부르는 사원들 모두가 작당해서 지각한 사람을 야유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검정 곤색의 제복들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사복 차림으로 꿈무늬에 따라붙으려는 유일한 사람을 완강히 거부하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세상 전체가 온통 제복투성이인 가운데 저 혼자만 외톨리로 떨어져 있는 셈이었다. 자기 한 사람쯤 불참한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체육 대회 개회식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민도식을 무척 화나면서도 그지없이 외롭게 만들었다. 정문으로 들어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돌아서서 나오지도 못한 채 그는 일단 멈춘 자리에 붙박여 버린 듯 언제까지고 움직일 줄을 몰랐다.

*어급어급하다: 표준어로는 '어급버급하다'. 서로 엇비슷하여 정도나 수준에 큰 차이가 없다.

<문항>

5. 윗글의 ㉠에 나타난 '절박한 사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윗글의 [A]에 근거해서 10자 이내로 쓰시오(단, 띄어쓰기로 인한 빈칸은 글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음).

3. 출제 의도

- 소설 속에 당대 현실의 모습이 어떻게 투영되어 있음을 이해하는지 확인한다.
- 소설 등장인물들의 행동과 대화를 통하여 인물의 성격과 소설 속 사건의 진행을 정확히 추론하는지를 점검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 기준 1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성취 기준 2	[12문학03-04]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문학	한철우 외	비상교육	2019	18-328		○
고등학교 문학	정호웅 외	천재교육	2019	14-39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25학년도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문학	김태석 외	한국교육방송공사	2024	187		×

5. 문항 해설

윤홍길의 이 작품은 「아홉 켄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직선과 곡선」, 「창백한 중년」과 연결되는, ‘권씨(권기용)’ 주인공인 연작소설이다. 이 작품은 한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제복 제도를 도입하면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통해 1970년대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주의를 앞세워 국민을 통제하던 국가 권력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회사의 사무직들은 이에 맞서 불만을 토로하는데, 우연히 이 장면을 팔을 잃은 동료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같은 회사의 생산부 공원인 권 씨가 바라본다.

이 문항은 이러한 사무직(민도식들)과 생산직(권 씨)의 갈등을 통하여, 생산부 직원인 권 씨가 가진 ‘절박한 사정’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이 문항은 절박한 사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 있기 때문에 ‘(동료가) 팔을 잃음’ 또는 ‘동료를 위한 투쟁(싸움)’이라는 두 가지 내용 중 반드시 어느 하나가 있어야만 8점으로 인정된다. ‘팔을 찾는다’, ‘팔이 필요하다’ 등은 팔의 절단을 구체화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2점만 인정함.	8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동료가) 팔을 잃음’, ‘동료를 위한 투쟁(싸움)’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 계열(국어) / 6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고등학교 문학 과목
	핵심개념 및 용어	문학의 표현 방법, 상징과 주제
예상 소요 시간	5분	

2. 문항 및 자료

<지문>

자연 계열(국어) 5번과 동일.

<문항>

6. <보기>는 윗글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①, ②에 들어갈 단어를 윗글의 [B]에서 찾아 각각 쓰시오.

<보 기>

1970년대 국가 권력은 국가 발전의 명목으로 시민의 자유를 억압하며 개인의 희생, 규율과 복종을 강요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 권력은 정치적 정당성을 가장하여 국민을 획일화시키면서 통제하기 위한 각종 의례나 행사의 시행, 장발이나 미니스커트 단속, ‘공연 활동 정화’를 위한 공연윤리위원회 설치 등과 같은 다양한 제도를 동원하였다. 이런 제도적 장치들은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것은 물론, 국가 권력에 의한 개인의 통제를 합리화하는 수단이 되었다. 소설은 제목을 통해 (①)을/를 ‘날개’에, (②)을/를 ‘수갑’에 비유하면서 1970년대의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3. 출제 의도

- 소설이 인간에 대한 이해의 심화라는 전제 아래서 소설 속 배경과 인물들의 삶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 소설의 다양한 표현 방법에 대한 이해를 확인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교과명: 국어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기준 1	[12문학01-01] 문학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며, 정서적·미적으로 삶을 고양함을 이해한다.
성취기준 2	[12문학03-04]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문학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탐구한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문학	한철우 외	비상교육	2019	20-41		○
고등학교 문학	방민호 외	미래N	2019	227-280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2025학년도 수능 특강 국어 영역 문학	김태석 외	한국교육방송공사	2024	187		×

5. 문항 해설

이 작품은 1970년대 한국 사회의 전체주의적, 획일주의적, 국가주의적 모습을 한 회사에서 벌어진 제복을 둘러싼 구성원들의 갈등을 통해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제복의 제목이기도 한 「날개 또는 수갑」은 모든 사원을 통제하고자 하는 제복을 ‘수갑’에, 그리고 이에 반발하는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날개’에 비유, 대비하면서 작품의 주제 의식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①, ②를 각각 4점으로 배점함. ① 사복(4점) ② 제복, 유니폼(4점) ①에 ‘사표’는 자유를 의미하지만, 개성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부분 점수인 2점만 인정한다. ②의 경우 ‘사가’, ‘노래’ 역시 획일성이라는 의미가 어느 정도 인정되기 때문에 2점으로 인정한다. 참고로 사표나 사가는 상징성이 약하고, 대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정답으로는 미흡하다.	8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 ①: 사복(4점), 사표(2점)
- ②: 제복, 유니폼(4점), 사가, 노래(2점)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수학) / 7번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
	핵심개념 및 용어	로그함수
예상 소요 시간	4분	

2. 문항 및 자료

7. $\log_9 a + \log_9 b = \frac{7}{2}$ 을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a, b 의 모든 순서쌍 (a, b) 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3. 출제 의도

로그함수의 성질을 이해한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수학 I] - (1)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 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12수학 I 01-08]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	박교식 외	동아출판	2018	26
기타	EBS 수능특강 수학 I	EBS 교육방송 편집부	한국교육방송공사	2024	17

5. 문항 해설

$$\log_9 a + \log_9 b = \frac{7}{2} \text{에서 } \log_9 ab = \frac{7}{2}$$

$$ab = 9^{\frac{7}{2}} = (3^2)^{\frac{7}{2}} = 3^7$$

따라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서쌍 (a, b) 는

$(1, 3^7), (3^1, 3^6), (3^2, 3^5), \dots, (3^6, 3^1), (3^7, 1)$ 이고

그 개수는 8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log_9 ab = \frac{7}{2}$ 을 구하면	4점
	$ab = 3^7$ 을 구하면	2점
	8을 구하면	2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8.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수학) / 8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I
	핵심개념 및 용어	함수의 극한
예상 소요 시간	4분	

2. 문항 및 자료

8. $\lim_{x \rightarrow 3} \frac{\sqrt{2x-a} - x}{x-3} = b$ 일 때, 두 상수 a, b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3. 출제 의도

함수 극한의 성질을 이해한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수학II] - (1) 함수의 극한과 연속 - ㉠ 함수의 극한 [12수학II01-02]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고, 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II	박교식 외	동아출판	2018	19
기타	EBS 수능특강 수학II	EBS 교육방송 편집부	한국교육방송공사	2024	13

5. 문항 해설

$$\lim_{x \rightarrow 3} \frac{\sqrt{2x-a} - x}{x-3} = b \dots\dots \textcircled{1}$$

㉠ 에서 $x \rightarrow 3$ 일 때 (분모) $\rightarrow 0$ 이고 극한값이 존재하므로
 (분자) $\rightarrow 0$ 이어야 한다. 즉,

$$\lim_{x \rightarrow 3} \sqrt{2x-a} - x = \sqrt{6-a} - 3 = 0$$

$$\sqrt{6-a} = 3 \text{ 에서 } a = -3$$

$$\begin{aligned} \text{㉠에서 } b &= \lim_{x \rightarrow 3} \frac{\sqrt{2x+3} - x}{x-3} = \lim_{x \rightarrow 3} \frac{(\sqrt{2x+3} - x)(\sqrt{2x+3} + x)}{(x-3)(\sqrt{2x+3} + x)} \\ &= \lim_{x \rightarrow 3} \frac{2x+3-x^2}{(x-3)(\sqrt{2x+3} + x)} = \lim_{x \rightarrow 3} \frac{-(x-3)(x+1)}{(x-3)(\sqrt{2x+3} + x)} \\ &= \lim_{x \rightarrow 3} \frac{-(x+1)}{(\sqrt{2x+3} + x)} = -\frac{4}{6} = -\frac{2}{3} \end{aligned}$$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sqrt{6-a} = 3$ 을 구하면	2점
	$a = -3$ 을 구하면	2점
	$b = \lim_{x \rightarrow 3} \frac{\sqrt{2x+3} - x}{x-3} = \lim_{x \rightarrow 3} \frac{(\sqrt{2x+3} - x)(\sqrt{2x+3} + x)}{(x-3)(\sqrt{2x+3} + x)}$ 을 구하면	2점
	$-\frac{2}{3}$ 을 구하면	2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a = -3, b = -\frac{2}{3}.$$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수학) / 9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
	핵심개념 및 용어	등차수열
예상 소요 시간	4분	

2. 문항 및 자료

9. 등차수열 $\{a_n\}$ 이 $a_1 = 36$ 이고 $|a_{10}| = |a_{28}|$ 일 때, $a_m = -10$ 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m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3. 출제 의도

등차수열의 성질을 이해한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p>[수학 I] - (3) 수열 - ㉠ 등차수열과 등비수열</p> <p>[12수학 I 03-02] 등차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 첫째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p>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I	박교식 외	동아출판	2018	107
기타	EBS 수능특강 수학 I	EBS 교육방송 편집부	한국교육방송공사	2024	71

5. 문항 해설

$a_n = 36 + (n-1)d$ 라 하자.

$a_1 = 36$, $|a_{10}| = |a_{28}|$ 이므로 $|36 + 9d| = |36 + 27d|$ 이고,

$36 + 9d = \pm(36 + 27d)$ 이다. -----> 4점

i) $36 + 9d = 36 + 27d$ 인 경우 $d = 0$ 이 되고 $a_m = -10$ 을 만족시키는 m 이 존재할 수 없다.

ii) $36 + 9d = -(36 + 27d)$ 인 경우 $d = -2$ 이고 $a_n = 38 - 2n$ 이다.

$38 - 2m = -10$ 이므로 $m = 24$ 이다. -----> 4점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식 $ 36 + 9d = 36 + 27d $ 를 세우면	2
	$d = -2$ 를 구하면	4
	$m = 24$ 를 구하면	2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m = 24$$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수학) / 10번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I
	핵심개념 및 용어	연속함수의 성질
예상 소요 시간	5분	

2. 문항 및 자료

10. 0이 아닌 상수 a 에 대하여 함수 $f(x)$ 가 다음과 같다.

$$f(x) = \begin{cases} x & (x > 0) \\ x+a & (x \leq 0) \end{cases}$$

함수 $g(x) = \{f(x)-1\} \{f(x)+2\}$ 가 $x=0$ 에서 연속일 때, a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3. 출제 의도

연속함수의 성질을 이해한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수학II] - (1) 함수의 극한과 연속 - ㉔ 함수의 연속 [12수학II01-03] 함수의 연속의 뜻을 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II	박교식 외	동아출판	2018	36
기타	EBS 수능특강 수학II	EBS 교육방송 편집부	한국교육방송공사	2023	19

5. 문항 해설

$$\lim_{x \rightarrow 0^-} f(x) = a, \quad \lim_{x \rightarrow 0^+} f(x) = 0$$

함수 $g(x)$ 가 $x=0$ 에서 연속이므로, $\lim_{x \rightarrow 0^-} g(x) = \lim_{x \rightarrow 0^+} g(x) = g(0)$

$$\lim_{x \rightarrow 0^-} g(x) = \lim_{x \rightarrow 0^-} \{f(x) - 1\} \{f(x) + 2\} = (a-1)(a+2)$$

$$\lim_{x \rightarrow 0^+} g(x) = \lim_{x \rightarrow 0^+} \{f(x) - 1\} \{f(x) + 2\} = -2$$

$$(a-1)(a+2) = -2$$

$$a^2 + a = 0 \text{이고 } a \neq 0 \text{이므로}$$

$$a = -1$$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lim_{x \rightarrow 0^-} g(x) = (a-1)(a+2)$ 를 구하면	4점
	$\lim_{x \rightarrow 0^+} g(x) = -2$ 를 구하면	2점
	$a = -1$ 을 구하면	2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lim_{x \rightarrow 0^-} f(x) = a, \quad \lim_{x \rightarrow 0^+} f(x) = 0$$

함수 $g(x)$ 가 $x=0$ 에서 연속이므로, $\lim_{x \rightarrow 0^-} g(x) = \lim_{x \rightarrow 0^+} g(x) = g(0)$

$$\lim_{x \rightarrow 0^-} g(x) = \lim_{x \rightarrow 0^-} \{f(x) - 1\} \{f(x) + 2\} = (a-1)(a+2)$$

$$\lim_{x \rightarrow 0^+} g(x) = \lim_{x \rightarrow 0^+} \{f(x) - 1\} \{f(x) + 2\} = -2$$

$$(a-1)(a+2) = -2$$

$$a^2 + a = 0 \text{이고 } a \neq 0 \text{이므로}$$

$$a = -1$$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수학) / 11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I
	핵심개념 및 용어	미분계수와 도함수
예상 소요 시간	5분	

2. 문항 및 자료

11. 다항함수 $f(x)$ 가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lim_{h \rightarrow 0} \frac{f(x-2h) - f(x)}{h} = 4x^2 + ax$$

를 만족시킨다. $f'(1) = 0$ 이고 $f(3) = -8$ 일 때, 함수 $f(x)$ 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단, a 는 상수)

3. 출제 의도

미분계수와 도함수의 성질을 이해한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p>[수학II] - (2) 미분 - ㉠ 미분계수 [12수학II02-01] 미분계수의 뜻을 알고, 그 값을 구할 수 있다.</p> <p>[수학II] - (2) 미분 - ㉡ 도함수 [12수학II02-05] 함수의 실수배, 합, 차, 곱의 미분법을 알고, 다항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p>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II	박교식 외	동아출판	2018	65
기타	EBS 수능특강 수학II	EBS 교육방송 편집부	한국교육방송공사	2024	40

5. 문항 해설

$$\lim_{h \rightarrow 0} \frac{f(x-2h) - f(x)}{h} = 4x^2 + ax \text{ 에서}$$

$$\lim_{h \rightarrow 0} \frac{f(x-2h) - f(x)}{h} = \lim_{h \rightarrow 0} \left\{ \frac{f(x-2h) - f(x)}{-2h} \times (-2) \right\}$$

$$\text{즉, } -2f'(x) = 4x^2 + ax$$

$$f'(x) = -2x^2 - \frac{a}{2}x$$

$$f'(1) = -2 - \frac{a}{2} = 0 \text{ 이므로 } a = -4$$

$$f'(x) = -2x^2 + 2x$$

따라서 $f(x) = -\frac{2}{3}x^3 + x^2 + C$ 라 놓으면

$$f(3) = -18 + 9 + C = -8 \text{ 에서 } C = 1$$

$$\text{따라서 } f(x) = -\frac{2}{3}x^3 + x^2 + 1$$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식 $-2f'(x) = 4x^2 + ax$ 을 구하면	4점
	$a = -4$ 를 구하면	2점
	$f(x) = -\frac{2}{3}x^3 + x^2 + 1$ 를 구하면	2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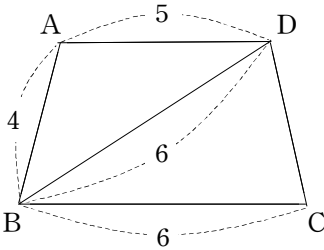
$$f(x) = -\frac{2}{3}x^3 + x^2 + 1$$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수학) / 12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
	핵심개념 및 용어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
예상 소요 시간	5분	

2. 문항 및 자료

12. 그림과 같이 $\overline{AB} = 4$, $\overline{AD} = 5$, $\overline{BD} = \overline{BC} = 6$ 인 사다리꼴 ABCD가 있다.



다음은 사다리꼴 ABCD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다. (가), (나), (다), (라), (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삼각형 ABD에서 $\angle ADB = \theta$ 라 하면,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cos \theta =$ (가) 이므로, $\sin \theta =$ (나) 이다.

따라서 삼각형 ABD의 넓이는 (다) 이다.

사다리꼴 ABCD가 사다리꼴이므로 $\angle DBC = \theta$ 이고 삼각형 BCD의 넓이는 (라) 이다.

따라서 사다리꼴 ABCD의 넓이는 (마) 이다.

3. 출제 의도

코사인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수학 I] - (2) 삼각함수 - ㉠ 삼각함수 [12수학 I 02-03]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	박교식 외	동아출판	2018	86
기타	EBS 수능특강 수학 I	EBS 교육방송 편집부	한국교육방송공사	2024	63

5. 문항 해설

삼각형 ABD에서 $\angle ADB = \theta$ 라 하면

삼각형 ABD에서 코사인법칙에 의하여

$$\cos\theta = \frac{\overline{AD}^2 + \overline{BD}^2 - \overline{AB}^2}{2 \times \overline{AD} \times \overline{BD}} = \frac{25 + 36 - 16}{2 \times 5 \times 6} = \frac{45}{60} = \frac{3}{4} \text{ (가)}$$

$$0 < \theta < \pi \text{ 이므로 } \sin\theta = \sqrt{1 - \cos^2\theta} = \sqrt{1 - \frac{9}{16}} = \sqrt{\frac{7}{16}} = \frac{\sqrt{7}}{4} \text{ (나)}$$

삼각형 ABD의 넓이는

$$\frac{1}{2} \times \overline{AD} \times \overline{BD} \times \sin\theta = \frac{1}{2} \times 5 \times 6 \times \frac{\sqrt{7}}{4} = \frac{15\sqrt{7}}{4} \text{ (다)} \dots \text{㉠}$$

사각형 ABCD가 사다리꼴이므로 $\angle DBC = \theta$ 이다.

삼각형 BCD의 넓이는

$$\frac{1}{2} \times \overline{BD} \times \overline{BC} \times \sin\theta = \frac{1}{2} \times 6 \times 6 \times \frac{\sqrt{7}}{4} = \frac{9\sqrt{7}}{2} \text{ (라)} \dots \text{㉡}$$

$$\text{㉠, ㉡ 에 의해 사각형 ABCD의 넓이는 } \frac{15\sqrt{7}}{4} + \frac{9\sqrt{7}}{2} = \frac{33\sqrt{7}}{4} \text{ (마)}$$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가)	$\frac{3}{4}$	4점
(나)	$\frac{\sqrt{7}}{4}$	2점
(마)	$\frac{33\sqrt{7}}{4}$	2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가) $\frac{3}{4}$ (나) $\frac{\sqrt{7}}{4}$ (다) $\frac{15\sqrt{7}}{4}$ (라) $\frac{9\sqrt{7}}{2}$ (마) $\frac{33\sqrt{7}}{4}$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수학) / 13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I
	핵심개념 및 용어	적분
예상 소요 시간	6분	

2. 문항 및 자료

13. 다항함수 $f(x)$ 가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int_1^x tf(t)dt = x^3 + ax^2 + bx$$

를 만족시킬 때, $f(b)$ 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단, a, b 는 상수이다.)

3. 출제 의도

미적분학의 기본정리를 이해할 수 있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수학II] - (2) 미분 - ㉔ 도함수 [12수학II02-05] 함수의 실수배, 합, 차, 곱의 미분법을 알고, 다항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II	박교식 외	동아출판	2018	130
기타	EBS 수능특강 수학 II	EBS 교육방송 편집부	한국교육방송공사	2024	75

5. 문항 해설

위 조건식에서 $x=1$ 를 대입하면 $0=1+a+b, a+b=-1$ 이다.

위 조건식의 양변을 미분하면 $xf(x)=3x^2+2ax+b$ 이고

양변에 $x=0$ 을 대입하면 $b=0$ 이고

$a = -1$ 이다.

그러므로 $f(x) = 3x - 2$ 이고 $f(b) = f(0) = -2$ 이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0 = 1 + a + b$ 또는 $a + b = -1$	2
	$xf(x) = 3x^2 + 2ax + b$	4
	$f(b) = f(0) = -2$	2

하위 문항	별해 채점 기준	배점
	$xf(x) = 3x^2 + 2ax + b$	4
	$0 = 1 + a + b$ 또는 $a + b = -1$	2
	$f(b) = f(0) = -2$	2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f(b) = f(0) = -2$$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수학) / 14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I
	핵심개념 및 용어	극솟값
예상 소요 시간	6분	

2. 문항 및 자료

14.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삼차함수 $f(x)$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 (가) $f(-1) = 0$ 이고 함수 $|f(x)|$ 는 $x = \alpha$ ($\alpha \neq -1$)에서만 미분가능하지 않다. (단, α 는 상수)
 (나) 함수 $f(x)$ 의 극솟값은 -4 이다.

함수 $f(x)$ 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3. 출제 의도

그래프의 개형을 이해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수학II] - (2) 미분 - ㉓ 도함수의 활용 [12수학II02-09]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II	박교식 외	동아출판	2018	89
기타	EBS 수능특강 수학 II	EBS 교육방송 편집부	한국교육방송공사	2024	70

5. 문항 해설

(가) 조건에 의해 함수 $f(x)$ 는 $x = -1$ 에서 x 축에 접하고 $x = \alpha$ 가 근이어야 한다.
 즉, $f(x) = (x+1)^2(x-\alpha)$ 이다.

$$f'(x) = 2(x+1)(x-\alpha) + (x+1)^2 = 0$$

$$(x+1)\{2(x-\alpha) + x+1\} = 0$$

$$x = -1 \text{ 또는 } x = \frac{2\alpha-1}{3} \text{ 이다.}$$

함수 $f(x)$ 는 $x = -1$ 에서 극댓값을 가지므로 극솟값을 가지는 x 는 $\frac{2\alpha-1}{3}$ 이다.

$$f\left(\frac{2\alpha-1}{3}\right) = \left(\frac{2\alpha-1}{3} + 1\right)^2 \left(\frac{2\alpha-1}{3} - \alpha\right) = \frac{-4(\alpha+1)^3}{27} = -4$$

$$(\alpha+1)^3 = 27, \alpha = 2$$

$$\text{그러므로 } f(x) = (x+1)^2(x-2)$$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f(x) = (x+1)^2(x-\alpha)$	4
	극솟값을 가지는 x 는 $\frac{2\alpha-1}{3}$	2
	$f(x) = (x+1)^2(x-2)$	2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x = \frac{2\alpha-1}{3}, f(x) = (x+1)^2(x-2)$$

1. 일반 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input type="checkbox"/>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수학) / 15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 II
	핵심개념 및 용어	정적분
예상 소요 시간	8분	

2. 문항 및 자료

15. 함수 $f(x) = x^3 + x - 1$ 의 역함수를 $g(x)$ 라 하자.

두 곡선 $y = f(x)$, $y = g(x)$ 와 두 직선 $x = -1$, $y = -1$ 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서술하시오.

3. 출제 의도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다.

4. 출제 근거

가) 적용 교육과정 및 학습내용 성취 기준

적용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20-236호 [별책8] “수학과 교육과정”
문항 및 제시문	학습내용 성취 기준
	[수학II] - (3) 적분 - ㉓ 정적분의 활용 [12수학II 03-05]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수학II	박교식 외	동아출판	2018	141
기타	EBS 수능특강 수학II	EBS 교육방송 편집부	한국교육방송공사	2024	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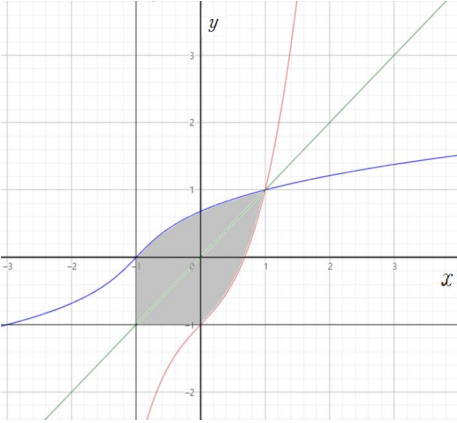
5. 문항 해설

$f'(x) = 3x^2 + 1 > 0$ 이므로 함수 f 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고, 역함수 $g(x)$ 가 존재한다.

$x = x^3 + x - 1$ 에서 $x^3 - 1 = 0$ 이므로 $f(1) = 1$ 이고 $g(1) = 1$

즉 교점은 (1, 1)

또 $f(0) = -1$ 이므로 $g(-1) = 0$



$$S = 1 + 2 \int_0^1 \{x - (x^3 + x - 1)\} dx$$

$$= 1 + 2 \int_0^1 (-x^3 + 1) dx = 1 + 2 \left[-\frac{1}{4}x^4 + x \right]_0^1 = 1 + 2 \cdot \frac{3}{4} = \frac{5}{2}$$

(별해1)

$f'(x) = 3x^2 + 1 > 0$ 이므로 함수 f 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고, 역함수 $g(x)$ 가 존재한다.

$x = x^3 + x - 1$ 에서 $x^3 - 1 = 0$ 이므로 $f(1) = 1$ 이고 $g(1) = 1$ 즉 교점은 $(1, 1)$

또 $f(0) = -1$ 이므로 $g(-1) = 0$

$$S = 4 - 2 \int_0^1 \{f(x) - (-1)\} dx = 4 - 2 \int_0^1 \{(x^3 + x - 1) - (-1)\} dx = 4 - 2 \cdot \frac{3}{4} = \frac{5}{2}$$

(별해2)

$f'(x) = 3x^2 + 1 > 0$ 이므로 함수 f 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고, 역함수 $g(x)$ 가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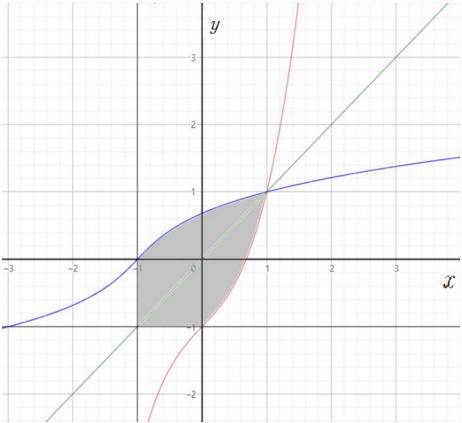
$x = x^3 + x - 1$ 에서 $x^3 - 1 = 0$ 이므로 $f(1) = 1$ 이고 $g(1) = 1$ 즉 교점은 $(1, 1)$

또 $f(0) = -1$ 이므로 $g(-1) = 0$

$$S = 2 \left[\int_{-1}^1 \{x - f(x)\} dx - \int_{-1}^0 \{(-1) - f(x)\} dx \right]$$

$$= 2 \left[\int_{-1}^1 \{(-x^3 + 1)\} dx - \int_{-1}^0 \{(-x^3 - x)\} dx \right] = 2 \left(2 - \frac{3}{4} \right) = \frac{5}{2}$$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p>(구하는 영역을 잘 표현하면 2점 가능) 식 $S = 1 + 2 \int_0^1 \{x - (x^3 + x - 1)\} dx$ 을 세우면 (그래프 없어도 식을 올바르게 세우면 6점)</p>	6점
	$\frac{5}{2}$ 을 구하면 2점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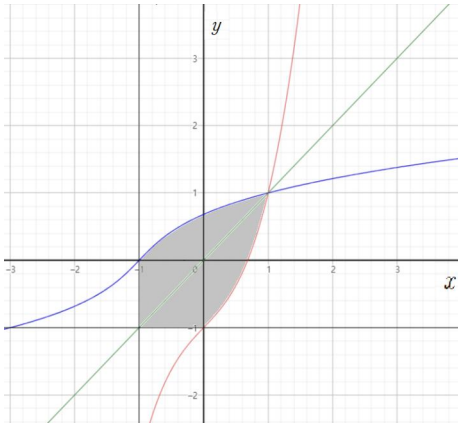
하위 문항	별해1 채점 기준	배점
	<p>(구하는 영역을 잘 표현하면 2점 가능) 식 $S = 4 - 2 \int_0^1 \{f(x) - (-1)\} dx$ 을 구하면 (그래프 없어도 식을 올바르게 구하면 6점)</p>	6점
	$\frac{5}{2}$ 을 구하면 2점	2점

하위 문항	별해2 채점 기준	배점
	<p>(구하는 영역을 잘 표현하면 2점 가능) 식 $S = 2 \left[\int_{-1}^1 \{x - f(x)\} dx - \int_{-1}^0 \{(-1) - f(x)\} dx \right]$ 을 구하면 (그래프 없어도 식을 올바르게 구하면 6점)</p>	6점
	$\frac{5}{2}$ 을 구하면 2점	2점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f'(x) = 3x^2 + 1 > 0$ 이므로 함수 f 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고, 역함수 $g(x)$ 가 존재한다.

$x = x^3 + x - 1$ 에서 $x^3 - 1 = 0$ 이므로 $f(1) = 1$ 이고 $g(1) = 1$ 즉 교점은 $(1, 1)$
 또 $f(0) = -1$ 이므로 $g(-1) = 0$



$$S = 1 + 2 \int_0^1 \{x - (x^3 + x - 1)\} dx$$

$$= 1 + 2 \int_0^1 (-x^3 + 1) dx = 1 + 2 \left[-\frac{1}{4}x^4 + x \right]_0^1 = 1 + 2 \cdot \frac{3}{4} = \frac{5}{2}$$

별해1)

$f'(x) = 3x^2 + 1 > 0$ 이므로 함수 f 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고, 역함수 $g(x)$ 가 존재한다.

$x = x^3 + x - 1$ 에서 $x^3 - 1 = 0$ 이므로 $f(1) = 1$ 이고 $g(1) = 1$ 즉 교점은 $(1, 1)$

또 $f(0) = -1$ 이므로 $g(-1) = 0$

$$S = 4 - 2 \int_0^1 \{f(x) - (-1)\} dx = 4 - 2 \int_0^1 \{(x^3 + x - 1) - (-1)\} dx = 4 - 2 \cdot \frac{3}{4} = \frac{5}{2}$$

(별해2)

$f'(x) = 3x^2 + 1 > 0$ 이므로 함수 f 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고, 역함수 $g(x)$ 가 존재한다.

$x = x^3 + x - 1$ 에서 $x^3 - 1 = 0$ 이므로 $f(1) = 1$ 이고 $g(1) = 1$ 즉 교점은 $(1, 1)$

또 $f(0) = -1$ 이므로 $g(-1) = 0$

$$S = 2 \left[\int_{-1}^1 \{x - f(x)\} dx - \int_{-1}^0 \{(-1) - f(x)\} dx \right]$$

$$= 2 \left[\int_{-1}^1 \{(-x^3 + 1)\} dx - \int_{-1}^0 \{(-x^3 - x)\} dx \right] = 2 \left[2 - \frac{3}{4} \right] = \frac{5}{2}$$

4. 2025학년도 선행학습영향평가 설문지 양식

2025학년도 한신대학교 선행학습영향평가 설문지

[설문 개요]

- 설문대상: 면접·논술고사 대상자(본등록 대상자 기준)
- 설문방식: 온라인(네이버폼)
- 설문기간: 2025.01.06.~17
- 설문안내: 개별문자(URL 전송), 홈페이지 공지(배너) 등

안녕하세요! 한신대학교 수시모집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신대학교 입학인재발굴팀은 사교육 발생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여, 학생들이 공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확산하고, 학생들의 역량과 잠재력을 평가하여 선발할 수 있는 대입전형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 선행학습영향평가와 관련된 설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어린 답변이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 입시 제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응답 내용은 오직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설문 관련 문의사항은 한신대학교 입학인재발굴팀(031-379-0104)으로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기본정보]

1. 자신의 성별을 선택해주세요.

남자 여자

2. 지원한 전형을 선택해주세요.

참인재전형(학생부종합전형) [면접고사일: 10/05(토)]

논술전형 [논술고사일: 12/01(일)]

중복제출 확인을 위해 이름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text입력)

- 이름은 유효 응답(중복 확인) 체크 후 바로 파기됩니다.

- 2번 설문종료 후, 각 페이지(면접, 논술)로 이동

3. 지원한 모집단위(전공)를 선택해주세요.

참인재	논술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모집단위(전공)</th> </tr> </thead> <tbody> <tr><td><input type="checkbox"/> 자유전공학부</td></tr> <tr><td><input type="checkbox"/> 신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철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독일어문화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영미문화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문예창작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한국어문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한국사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중국어문화콘텐츠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디지털영상문화콘텐츠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일본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동아시아통상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경제금융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국제관계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공공인재빅데이터융합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경영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IT경영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글로벌비즈니스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사회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재활상담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심리·아동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금융공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빅데이터융합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AI·SW계열(AI·SW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AI시스템반도체학</td></tr> </tbody> </table>	모집단위(전공)	<input type="checkbox"/> 자유전공학부	<input type="checkbox"/> 신학	<input type="checkbox"/> 철학	<input type="checkbox"/> 독일어문화학	<input type="checkbox"/> 영미문화학	<input type="checkbox"/> 문예창작학	<input type="checkbox"/> 한국어문학	<input type="checkbox"/> 한국사학	<input type="checkbox"/> 중국어문화콘텐츠학	<input type="checkbox"/> 디지털영상문화콘텐츠학	<input type="checkbox"/> 일본학	<input type="checkbox"/> 동아시아통상학	<input type="checkbox"/> 경제금융학	<input type="checkbox"/> 국제관계학	<input type="checkbox"/> 공공인재빅데이터융합학	<input type="checkbox"/> 경영학	<input type="checkbox"/> IT경영학	<input type="checkbox"/> 글로벌비즈니스학	<input type="checkbox"/>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	<input type="checkbox"/> 사회학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학	<input type="checkbox"/> 재활상담학	<input type="checkbox"/> 심리·아동학	<input type="checkbox"/> 금융공학	<input type="checkbox"/> 빅데이터융합학	<input type="checkbox"/> AI·SW계열(AI·SW학)	<input type="checkbox"/> AI시스템반도체학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모집단위(전공)</th> </tr> </thead> <tbody> <tr><td><input type="checkbox"/> 자유전공학부</td></tr> <tr><td><input type="checkbox"/> 영미문화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문예창작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한국어문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한국사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중국어문화콘텐츠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디지털영상문화콘텐츠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일본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경제금융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공공인재빅데이터융합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경영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IT경영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글로벌비즈니스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재활상담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심리·아동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금융공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빅데이터융합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AI·SW계열(AI·SW학)</td></tr> <tr><td><input type="checkbox"/> AI시스템반도체학</td></tr> </tbody> </table>	모집단위(전공)	<input type="checkbox"/> 자유전공학부	<input type="checkbox"/> 영미문화학	<input type="checkbox"/> 문예창작학	<input type="checkbox"/> 한국어문학	<input type="checkbox"/> 한국사학	<input type="checkbox"/> 중국어문화콘텐츠학	<input type="checkbox"/> 디지털영상문화콘텐츠학	<input type="checkbox"/> 일본학	<input type="checkbox"/> 경제금융학	<input type="checkbox"/> 공공인재빅데이터융합학	<input type="checkbox"/> 경영학	<input type="checkbox"/> IT경영학	<input type="checkbox"/> 글로벌비즈니스학	<input type="checkbox"/>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학	<input type="checkbox"/> 재활상담학	<input type="checkbox"/> 심리·아동학	<input type="checkbox"/> 금융공학	<input type="checkbox"/> 빅데이터융합학	<input type="checkbox"/> AI·SW계열(AI·SW학)	<input type="checkbox"/> AI시스템반도체학
모집단위(전공)																																																			
<input type="checkbox"/> 자유전공학부																																																			
<input type="checkbox"/> 신학																																																			
<input type="checkbox"/> 철학																																																			
<input type="checkbox"/> 독일어문화학																																																			
<input type="checkbox"/> 영미문화학																																																			
<input type="checkbox"/> 문예창작학																																																			
<input type="checkbox"/> 한국어문학																																																			
<input type="checkbox"/> 한국사학																																																			
<input type="checkbox"/> 중국어문화콘텐츠학																																																			
<input type="checkbox"/> 디지털영상문화콘텐츠학																																																			
<input type="checkbox"/> 일본학																																																			
<input type="checkbox"/> 동아시아통상학																																																			
<input type="checkbox"/> 경제금융학																																																			
<input type="checkbox"/> 국제관계학																																																			
<input type="checkbox"/> 공공인재빅데이터융합학																																																			
<input type="checkbox"/> 경영학																																																			
<input type="checkbox"/> IT경영학																																																			
<input type="checkbox"/> 글로벌비즈니스학																																																			
<input type="checkbox"/>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																																																			
<input type="checkbox"/> 사회학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학																																																			
<input type="checkbox"/> 재활상담학																																																			
<input type="checkbox"/> 심리·아동학																																																			
<input type="checkbox"/> 금융공학																																																			
<input type="checkbox"/> 빅데이터융합학																																																			
<input type="checkbox"/> AI·SW계열(AI·SW학)																																																			
<input type="checkbox"/> AI시스템반도체학																																																			
모집단위(전공)																																																			
<input type="checkbox"/> 자유전공학부																																																			
<input type="checkbox"/> 영미문화학																																																			
<input type="checkbox"/> 문예창작학																																																			
<input type="checkbox"/> 한국어문학																																																			
<input type="checkbox"/> 한국사학																																																			
<input type="checkbox"/> 중국어문화콘텐츠학																																																			
<input type="checkbox"/> 디지털영상문화콘텐츠학																																																			
<input type="checkbox"/> 일본학																																																			
<input type="checkbox"/> 경제금융학																																																			
<input type="checkbox"/> 공공인재빅데이터융합학																																																			
<input type="checkbox"/> 경영학																																																			
<input type="checkbox"/> IT경영학																																																			
<input type="checkbox"/> 글로벌비즈니스학																																																			
<input type="checkbox"/>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학																																																			
<input type="checkbox"/> 재활상담학																																																			
<input type="checkbox"/> 심리·아동학																																																			
<input type="checkbox"/> 금융공학																																																			
<input type="checkbox"/> 빅데이터융합학																																																			
<input type="checkbox"/> AI·SW계열(AI·SW학)																																																			
<input type="checkbox"/> AI시스템반도체학																																																			

[면접고사에 관한 질문]

4. 한신대학교는 면접일 이전에 면접 문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면접문항의 사전 공개가 면접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5. 면접고사의 시간은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6. 면접의 질문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이나 범위에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다, 적절하다, 보통이다, 적절하지 않다, 매우 적절하지 않다

7. 면접의 질문 문항 난이도는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쉬웠다, 쉬웠다, 보통이다, 어려웠다, 매우 어려웠다

8. 우리대학 면접고사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였습니까?

우리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준비

EBS에서 제공하는 강의 또는 도서 활용

스스로 준비

학교에서 선생님의 지도하에 준비

학원·과외 등 사교육의 도움을 받음

기타 ()

9. 우리대학 면접전형을 지원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입시결과(입학홈페이지 제공 자료)가 나의 위치(학생부 성적)와 적절해서

면접 일정(10월 5일)이 타 대학과 겹치지 않아서

전형 방법이 적절해서(반영요소, 반영비율 등)

면접 준비에 부담이 없어서(면접문제 간소화와 사전공개)

서류 준비에 부담이 없어서(제출서류 없음)

기타 ()

[논술고사에 관한 질문]

4. 한신대학교는 논술고사 전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논술모의고사 문제와 답안, 기출문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논술모의고사, 기출문제 공개가 논술고사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5-1. 논술고사 중 ‘국어’ 과목의 시간은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5-2. 논술고사 중 ‘수학’ 과목의 시간은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6-1. 논술고사 중 ‘국어’ 과목의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이나 범위에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다, 적절하다, 보통이다, 적절하지 않다, 매우 적절하지 않다

6-2. 논술고사 중 ‘수학’ 과목의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이나 범위에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적절하다, 적절하다, 보통이다, 적절하지 않다, 매우 적절하지 않다

7-1. 논술고사 중 ‘국어’ 문항의 난이도는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쉬웠다, 쉬웠다, 보통이다, 어려웠다, 매우 어려웠다

7-2. 논술고사 중 ‘수학’ 문항의 난이도는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쉬웠다, 쉬웠다, 보통이다, 어려웠다, 매우 어려웠다

8. 우리대학 논술고사를 위해 어떻게 준비하하셨습니까?
 우리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준비
 EBS에서 제공하는 강의 또는 도서 활용
 스스로 준비
 학교에서 선생님의 지도하에 준비
 학원·과외 등 사교육의 도움을 받음
 기타 ()

9. 우리대학 논술전형을 지원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입시결과(입학홈페이지 제공 자료)가 나의 위치(학생부 성적)와 적절해서
 논술고사 일정이 타 대학과 겹치지 않아서 (논술고사일: 12.01(일))
 전형 방법이 적절해서(반영요소, 반영비율 등)
 고사 준비에 부담이 없어서(논술모의고사, 기출문제 공개)
 서류 준비에 부담이 없어서(제출서류 없음)
 기타 ()

[공통질문 - 사교육 경험]

10. 고교 재학기간 사교육을 받았다면 사교육을 받은 주된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사교육 경험 없음
 수능대비
 교과성적(내신관리)
 비교과관리(학생부종합전형 대비)
 면접 및 구술고사
 실기
 어학
 논술
 기타()

11. 고교 재학기간 사교육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실시하하셨습니까?
 사교육 경험 없음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추가질문 - 의견 수렴]

12. 면접/논술고사를 통해 느낀 점 또는 향후 우리대학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자유롭게 기재해주세요.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한신대학교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입학 후 입학인재발굴팀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2025학년도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검토의견서

1) 내부위원 - ①

2025학년도 한신대학교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검토의견서

1. 참인재전형(면접)

검토사항	응답내용	응답결과 (해당란 √표시)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 시험 실시 여부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기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시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위반되는 출제문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출제문항 수 및 난이도의 개선할 사항 (출제문항: 2문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출제 문항 사전 공개 원칙의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전형 운영 시기의 개선할 사항 - 면접고사일: 10.5.(토요일)	① 전혀 없음	
	② 다소 있음	√
	③ 상당히 많음	

2. 논술전형(논술)

검토사항	응답내용	응답결과 (해당란 √표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는 논술고사 실시 여부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기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시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위반되는 출제문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출제문항 수 및 난이도의 개선할 사항 (출제문항: 교시당 15문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출제 문항 사전 공개 원칙의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전형 운영 시기의 개선할 사항 - 논술고사일: 12.1.(일요일) (1교시:인문계열, 2교시:자연계열)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3. 검토사항별 검토 결과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 (서술형 응답)

검토 결과	참인재전형(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한 교과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항이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전공 적합성을 묻는 형태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이나 범위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 모집단위별 점수를 5점을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보이는 4.32점이라는 결과는 지난해 대비 상승한 것이며, 모집단위별로도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어, 출제 문항의 난이도나 범위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난이도에 대해서는 중립적 응답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부정 응답보다는 긍정 응답이 높은 비중을 보인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해당 전형에 대해서는 학교 선생님의 지도와 학생 스스로 준비한 경우, 그리고 우리 대학의 자료를 통해서 공부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집계되었다. 사교육이 해당 전형을 준비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 2025년의 경우 전형일이 긴 연휴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 혹여 미응시 이탈자가 있을 우려가 있다. 숙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논술전형(논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제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에 적절했는지에 대한 응답에 그렇다는 응답이 국어와 수학에서 각각 88.8%, 82.8%로 집계되었다. 고교 교사의 검토와 자문을 통한 검증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난이도와 관련해서는 국어와 수학 모두 '쉬웠다'와 '매우 쉬웠다'에 해당하는 긍정 응답이 50%를 넘었고, '어려웠다'와 '매우 어려웠다'에 해당하는 부정 응답은 10%를 전후한 것으로 집계된 바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 논술고사를 준비하면서 사교육의 도움을 받은 비율보다는 스스로 준비하거나 우리 대학에서 제공한 자료를 통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환경만으로도 충분히 준비하여 수행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지난 입시 결과 및 기출문제 등을 공개하는 것이 전형에 지원하도록 하는 주요한 요인인 만큼 이 같은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여겨진다.

4. 위원 정보

소 속	성 명	서 명
신학 · 인문융합대학 한국어문학전공	유00	



글로벌 평화 리더 양성
한신대학교

2) 내부위원 - ②

2025학년도 한신대학교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검토의견서

1. 참인재전형(면접)

검토사항	응답내용	응답결과 (해당란 √표시)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 시험 실시 여부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기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시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위반되는 출제문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출제문항 수 및 난이도의 개선할 사항 (출제문항: 2문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출제 문항 사전 공개 원칙의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전형 운영 시기의 개선할 사항 - 면접고사일: 10.5.(토요일)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2. 논술전형(논술)

검토사항	응답내용	응답결과 (해당란 √표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는 논술고사 실시 여부	① 전혀 없음	V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기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① 전혀 없음	V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시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V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위반되는 출제문항	① 전혀 없음	V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출제문항 수 및 난이도의 개선할 사항 (출제문항: 교시당 15문항)	① 전혀 없음	V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출제 문항 사전 공개 원칙의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V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전형 운영 시기의 개선할 사항 - 논술고사일: 12.1.(일요일) (1교시:인문계열, 2교시:자연계열)	① 전혀 없음	V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3. 검토사항별 검토 결과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 (서술형 응답)

검토 결과	참인재전형(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 유형이나 수준이 고등학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쉽게 답할 수 있는 형태임
	논술전형(논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 수학 논술 문항이 고등학교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응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행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모두 출제됨

4. 위원 정보

소 속	성 명	서 명
금융공학	윤00	



글로벌 평화 리더 양성
한신대학교

3) 외부위원 - ① [외부입시전문가]

2025학년도 한신대학교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검토의견서

1. 참인재전형(면접)

검토사항	응답내용	응답결과 (해당란 √표시)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 시험 실시 여부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기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시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위반되는 출제문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출제문항 수 및 난이도의 개선할 사항 (출제문항: 2문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출제 문항 사전 공개 원칙의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전형 운영 시기의 개선할 사항 - 면접고사일: 10.5.(토요일)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2. 논술전형(논술)

검토사항	응답내용	응답결과 (해당란 √표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는 논술고사 실시 여부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기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시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위반되는 출제문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출제문항 수 및 난이도의 개선할 사항 (출제문항: 교시당 15문항)	① 전혀 없음	
	② 다소 있음	√
	③ 상당히 많음	
출제 문항 사전 공개 원칙의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전형 운영 시기의 개선할 사항 - 논술고사일: 12.1.(일요일) (1교시:인문계열, 2교시:자연계열)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3. 검토사항별 검토 결과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 (서술형 응답)

검토 결과	참인재전형(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일 이전에 면접 문항을 사전 공개하는 것이 면접 대비에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98.5%나 되고, 면접고사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이나 범위에 적절했다는 응답이 90.9%이면서 적절성 판단도 5점 만점에 4.32점이 된다는 설문조사 결과로도 알 수 있듯이 한신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 모집 면접고사 문항은 준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출제에 있어서도 매우 적절했다고 사료됨. ● 더불어 사교육을 유발시킬 요인도 없었던 출제였다고 사료됨.
	논술전형(논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학년도에 처음 도입하여 2025학년도에 두 번째로 시행한 한신대학교 수시모집 논술고사는 약식 논술로 출제 범위가 국어 영역은 '문학과 독서', 수학 영역은 '수학 I 과 수학 II'로 교육과정의 일반선택과목과 수능시험의 공통과목에 해당하여 수험생들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이 없었을 것으로 사료됨. ● 이는 설문조사에서 논술고사 시험이 충분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국어 영역 86.2%, 수학 영역 79.5%이었던 것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적절하게 출제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국어 영역 88.8%, 수학 영역 88.2%이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음. ● 이에 2025학년도 한신대 논술고사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적절하게 출제되어 사교육을 유발시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난이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보통이거나 어려웠다는 응답이 국어 영역은 46.8%(2024학년도 56.4%), 수학 영역은 41.5%(2024학년도 42.6%)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난이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특히 국어 영역의 난이도를 보통이거나 어려웠다는 응답이 40% 이하가 되도록 조절했으면 함.

4. 위원 정보

소 속	성 명	서 명
1318대학진학연구소	유OO	



글로벌 평화 리더 양성
한신대학교

4) 외부위원 - ② [현직 고교 교사]

2025학년도 한신대학교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검토의견서

1. 참인재전형(면접)

검토사항	응답내용	응답결과 (해당란 √표시)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 시험 실시 여부	① 전혀 없음	v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기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① 전혀 없음	v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시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v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위반되는 출제문항	① 전혀 없음	v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출제문항 수 및 난이도의 개선할 사항 (출제문항: 2문항)	① 전혀 없음	v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출제 문항 사전 공개 원칙의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v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전형 운영 시기의 개선할 사항 - 면접고사일: 10.5.(토요일)	① 전혀 없음	v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2. 논술전형(논술)

검토사항	응답내용	응답결과 (해당란 √표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는 논술고사 실시 여부	① 전혀 없음	v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기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① 전혀 없음	v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시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② 다소 있음	v
	③ 상당히 많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위반되는 출제문항	① 전혀 없음	v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출제문항 수 및 난이도의 개선할 사항 (출제문항: 교시당 15문항)	① 전혀 없음	v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출제 문항 사전 공개 원칙의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v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전형 운영 시기의 개선할 사항 - 논술고사일: 12.1.(일요일) (1교시:인문계열, 2교시:자연계열)	① 전혀 없음	v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3. 검토사항별 검토 결과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 (서술형 응답)

검토 결과	참인재전형(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인재 전형에 대한 설문조사 문항 중 면접 문항의 사전 공개가 면접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긍정적인 대답을 한 학생이 98.5%였고, 면접고사를 준비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준비 및 한신대 홈페이지 자료 참고 비율이 70.3%이고 사교육 도움은 4.6%에 불과했다. ● 또한 면접 문항의 공통 문제가 학교생활을 기반으로 대답하면 되는 질문이고, 각 전공들의 전공적성분야 질문 역시 한신대학교 홈페이지 전공 소개 자료를 살펴보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한 학생이라면 큰 문제 없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도 90.9% 정도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주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사교육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논술전형(논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전형에 대한 설문조사 문항 중 모의고사 문제와 기출문제 공개가 논술고사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대답이 70.3%를 차지하였고, 논술고사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이나 범위에 적절한지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국어 86.2%, 수학 79.5%였다. ● 더불어 논술고사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 적절성 판단 5점 척도 결과 국어 4.26, 수학 4.24로 매우 높았다. ● 또한 논술고사를 스스로 준비한 비율이 31.3%, 한신대 홈페이지의 자료 활용 비율이 21%로 높았고, 난이도 역시 '매우 쉬웠다', '쉬웠다', '보통이다' 라고 대답한 학생이 국어는 88.3%, 수학은 90.8%를 차지하였다. ● 또한 전체적으로 논술 문항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내용 범위를 준수하고 있으며 그 난이도 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소화한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특별히 선행학습을 하거나 사교육을 받아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됨.

4. 위원 정보

소 속	성 명	서 명
(경기)오산고등학교	한OO	



글로벌 평화 리더 양성
한신대학교

5) 외부위원 - ③ [현직 고교 교사]

2025학년도 한신대학교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검토의견서

1. 참인재전형(면접)

검토사항	응답내용	응답결과 (해당란 √표시)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 시험 실시 여부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기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시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위반되는 출제문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출제문항 수 및 난이도의 개선할 사항 (출제문항: 2문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출제 문항 사전 공개 원칙의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전형 운영 시기의 개선할 사항 - 면접고사일: 10.5.(토요일)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2. 논술전형(논술)

검토사항	응답내용	응답결과 (해당란 √표시)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는 논술고사 실시 여부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기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시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위반되는 출제문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출제문항 수 및 난이도의 개선할 사항 (출제문항: 교시당 15문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출제 문항 사전 공개 원칙의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전형 운영 시기의 개선할 사항 - 논술고사일: 12.1.(일요일) (1교시:인문계열, 2교시:자연계열)	① 전혀 없음	√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3. 검토사항별 검토 결과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 작성 (서술형 응답)

검토 결과	참인재전형(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 및 기초소양과 전공적합성 영역을 구분하여 사전에 각 영역에 필요한 역량을 평가하는 적절한 수준의 문항을 공개했으며, 특히 검정고시 출신을 배려한 기초소양 문제까지 공개해 정상적인 고등학교 과정과 이해 준하는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사교육의 유발요인 없이 답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 됨. ● 신입생 77%가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사전 공개가 면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99%로 면접 문항의 사전 공개는 학생들의 부담감을 덜어 주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사려됨. ● 면접 문항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이나 범위에 적절한 지에 대한 응답의 환산점수가 4.32(5점 만점)으로 매우 높고 모집 단위별로도 고르게 점수 분포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면접 문항이 매우 적절했다고 판단됨
	논술전형(논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술전형의 각 문항의 구성이 범위 내에서 적절한 구성과 난이도로 교과별 성취 기준을 준수한 변별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됨. 설문조사 결과 또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이나 범위에 적절하다고 묻는 질문에 5점 척도 환산 점수 분석 결과 국어와 수학 모두 4.2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문항이 교육과정을 준수했음을 알 수 있음. ● 논술 준비 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학에서 제공한 모의 논술과 기출문제 공개 결과가 도움이 되었다 분석 결과를 볼 때 유의미한 서비스 제공으로 차후에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4. 위원 정보

소 속	성 명	서 명
장안고등학교	최00	



글로벌 평화 리더 양성
한신대학교



글로벌 평화 리더 양성

한신대학교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18101) 경기도 오산시 한신대길 137 한신대학교

입학인재발굴팀

전 화 : 031-379-0104

팩 스 : 031-372-6101

홈페이지 : <http://ent.hs.ac.kr>